시민들이 만든 수원 스토리북

삶과 추억 그리고 여행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시민들의 인문학적 성찰로 만들어진 수원 스토리북을 발간하며

시민 주도로 수원의 잠재된 생활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수원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 시민들 스스로 일상적 삶을 해석하고,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년간 추진되었던 수원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중 스토리텔링 분야 작품을 모아 《시민들이 만든 수원 스토리북 : 삶과 추억 그리고 여행》을 발간하였습니다. 열한 살의 어린 학생부터 칠순이 넘은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들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이곳에 풀어 놓았습니다. 이에 이 책에는 개인 · 가족 · 단체 · 마을 등 지역의 소단위에서 전개되는 지역 이야기가 생생하고 밀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겪었던 경험세계와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삶의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신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수원 지역의 서사(敍事)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형성될 것입니다.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 ·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와 사회, 그 관계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수원 시민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은 수원이 인문도시로 성장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정연구원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 수원학 연구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수원시정연구원장 **최 병 대**

발간사

구운동 그리고 삼환아파트 007
정동욱 · 이용희 · 정주의 · 전찬민

할머니의 컬러 사진 033
신민정

나의 수원은 현재진행형 049
오자영

남문, 극장의 추억 059
김태두

이모와 수원왕갈비 069
서현정

수원의 인문 씨앗! 독서 모임을 찾아서 079
신연정 · 김정희 · 노윤영 · 박순옥 · 안수희

나의 그림 연대기 107
이영은

수원의 아름다운 공원, 그곳을 따라 이어지는 추억들 119
박현우

나혜석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몇 가지 것들 131
이종철

푸른지대에서 보낸 나의 푸른 시절, 신혼 139
김미경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153
박지아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의 인생 언제나 봄이길 163
심보영

두 팔 벌려 한가득 안아도 모자란 수원 171
한아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있는 퉁소바위 공원에서 179
양성자

여행길 위에서 185
최광현

나의 달콤한 도시, 수원 195
나경윤

행궁동의 네 가지 매력 201
강은비

수원해, 그리고 기억해 211
김유영

시끌벅적, 열한 살 우리들의 여행 221
박호원

수원의 맛 229
전미라

수원화성 탐험 및 수원 먹거리 체험 235
천성만

수원화성을 담다! 낮과 밤으로 이끄는 성곽길 247
안명희

수원 가볼 만한 곳,
수원화성 한 바퀴 살레살레 돌아보리라 259
이은주

정동욱
이용희
정주의
전찬민

구운동
그리고 삼환아파트

55세, 엄마의 이야기
: 마을 이야기가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엄마 어렸을 적에

엄마는 매산로1가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렸을 적에 구운동에 와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구운동 바로 옆인 서호천이랑 서호저수지는 정말 자주 왔던 것 같아. 서호천 말이야.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청 더러웠잖아. 믿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어렸을 때 서호천은 정말 깨끗한 곳이었어. 너의 할머니는 여기로 빨래도 하러 다녔다니까. 할머니는 엄마랑 이모 데리고 여기 서호천으로 빨래를 하러 자주 왔어. 그때는 빨래를 널어 주던 사람이 있었다.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나면 빨래를 널어 주던 사람이 돈을 받고 빨래를 판판하게 펴서 말려 줬어. 빨래에 물이 좀 빠질 때까지 할머니는 빨래터에 나온 아줌마들이랑 신나게 수다를 떨었지.

엄마 어렸을 적에 토끼를 한 마리 키웠다. 이름이 솜털이었어. 엄마가 끔찍이 귀여워하던 토끼였어. 어딘가 갈 때면 꼭 끌어안고 가거나, 다리에 실을 묶어서 데리고 다녔지.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학교 다녀오니까 토끼가 없더라고. 엄마는 토끼를 한참 찾았지. 토끼는 없어졌는데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들이 팔팔 끓는 도가니에



할머니의 빨래터 서호천



엄마가 어렸을 때 서호

무언가 먹고 있더라. 그래 엄마 토끼는 그날 잡아 먹혔어. 엄마는 “내 토끼 살려내!”라고 아주 서럽게 떼를 쓰고 박박 울어댔지. 한여름 날의 보신거리가 된 나의 가엾은 토끼. 그런 엄마의 모습에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는 엄청 미안했나 봐. 그날 할아버지는 어망을 챙겨서 서호천에 왔단다. 그 시절에 뭐 여름휴가라는 게 있었겠니? 그저 더운 여름이면 동네 하천에 가서 물놀이나 하고 오는 것이 다였지. 그날 미안했던 할아버지는 엄마랑 이모랑 외삼촌을 데리고 서호천에서 아주 신나게 놀아 주었어.

엄마가 어렸을 적에 구운동은 논과 밭이 전부였기 때문에 별로 올 일이 없었지. 재미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동네에는 아는 친구가 없었으니까. 구운동엔 좀처럼 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처녀가 되어서 너의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구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은 아마 너의 아빠를 만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연극 '신부의 들러리' 공연 티켓



연극 '신부의 들러리' 공연 팜플릿



연극 '베니스의 상인' 공연 포스터
뒷면에 지정 예매처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

연극 보러 갈래요?

너의 아빠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어느 날 아빠가 엄마가 일하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휴대폰이 없을 시절이니까 아빠는 그저 하염없이 엄마가 도청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엄마를 발견하고 너의 아빠가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 연극 티켓. 정말 엄마는 깜짝 놀랐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 산이랑 계곡만 찾아다니고 허름하고 냄새나는 집이 맛있는 집이라고 박박 우기던 너의 아빠가 글쎄 엄마 보고 주말에 같이 연극 보러 가자고 예매를 해 놨지 뭐니. 사실 엄마는 연애하면서 내심 걱정도 했어. 엄마는 평생을 도시에서 백화점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는데, 너의 아빠는 그 시골에서 포도농사 지으면서 살아왔잖니. 그래서 엄마는 아빠랑 이런 문화생활을 앞으로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 그런 의문에 반박하듯이 그날 아빠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치 '나 어서 칭찬해 줘!'라는 표정으로 그 연극 티켓을 보여 주더라.

88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살 만해졌어. IMF 오기 전까지는 취직 걱정 돈 걱정 없는 나라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사는데 시선이 갔나 봐. 그런데 수원에는 이렇다 할 공연시설이 없었지. 가까운 문화시설이라고 해 봐야 남문에 중앙극장이나 아카데미극장 정도였어. 좀 괜찮다 싶은 공연 보려면 그땐 서울까지 가야 했어.

1990년인가 1991년에 경기도예술회관이 지어지면서 여기 구운동에서 그나마 가까운 공연장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아빠도 이런 공연을 보고 싶었나 봐. 연극 보러 가기로 한 날 엄마 집 앞으로 낯익은 승용차가 들

어오더라고. 평소에는 잘 닦지도 않던 아빠의 차가 그날은 왜 그렇게 깔끔했는지. 또 덥수룩한 더벅머리는 나름 멋 부린다고 무스를 발라 넘겼던 아빠의 모습에 엄마는 깔깔거리며 같이 연극을 보러 갔었단다. 연극이 끝나고 그때 그래도 나름 유명했던 '동신호프'라는 경양식 집에서 피자를 먹고 오는데 그때가 돼서야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구나.

우리 아들 태어난 날은 비가 억수로 왔지

엄마는 1992년 10월에 아빠랑 결혼을 하고 구운동 삼환아파트로 왔어. 아빠랑 구운동에 신혼살림을 꾸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너를 가지게 되었지. 한 달, 두 달 그리고 일곱 달쯤 되니까 정말 어떻게 누울 방법이 없더라. 우리 아들, 그래 넌 그때부터 엄마를 힘들게 했지. 옆으로 누워도, 똑바로 누워도 배가 너무 무거워서 잠을 잘 청할 수 없었어. 엄마가 힘든 만큼 우리 아들도 힘들었나 봐. 태풍이 와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7월 29일 이른 아침. 아직 출산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네가 벌써 나오겠다고 떼쓰는 거 있잖니.

그때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였지. 엄마는 바로 아빠의 회사에 전화를 했어.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엄마도 당황스럽고 급하니까 바로 앞 동남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서 같이 병원에 갔지. 웃거리에 있는 제일산부인과. 그곳까지 가는데도 너무나 험난했어. 비가 오는 바람에 다니는 택시가 많지 않았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재수 좋게 잡게 된 택시를 타고 엄마와 할머니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단다. 13시간의 진통 끝에 결국 엄마는 너를 안아 볼 수 있었어. 아기가 나왔다는 그 소식에 아빠도 기쁨의 고함을 질렀지. 분만실에서 나와 입원실에서 너의 아빠를 봤는데 엄마는 정말 깜짝 놀랐어. 아빠가 물에 빠진 생쥐 꼴이더구나.

그때만 하더라도 차를 타고 화서역으로 가려면 화산지하차도를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어. 아빠는 네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집을 향해 오고 있었지. 당시 화산지하차도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물에 잠기기 일쑤였어. 네가 나오던 날도 큰비가 왔는데, 아빠가 그만 침수된 화산지하차도에서 발이 묶인 거 아니겠어. 그래서 급하게 인삼담배공사(KT&G)에 차를 대고 우산을 쓴 채로 걸어서 화서역을 넘어왔대. 강한 바람에 우산살이 휘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너의 아빠는 그 쏟아지는 빗속을 맨몸으로 헤치며 병원까지 걸어왔다더라. 물에 꽉 잠긴 화산지하차도도, 성난 태풍도 아들 보고 싶은 아빠의 마음은 막지 못했나 봐.

삼환상가 하나로마트

삼환아파트 전경



지금은 우리가 15동에 살고 있지만 네가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3동에 살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높이인 13층이었지. 간혹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기도 했지만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단다. 바로 삼환상가가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이야.

지금은 우리 동네가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지만, 그때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 동남아파트, 성일아파트, 강남아파트 그리고 저 멀리 천천아파트 정도가 전부였지. 우리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도 많고 높이도 높았지. 사람이 많이 살아서일까? 우리 아파트에는 아주 커다란 상가가 있었단다. 물론 지금도 있지. 우리 아파트 상가를 너도 알다시피 삼환상가라고 불렀어. 없는 것이 없는 상가였지. 지금도 있는 농협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슈퍼, 문방구,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교회, 호프, 미용실, 정육점 등등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단다. 아이들의 학

원가이기도 하면서 엄마들의 쇼핑타운이었던 삼환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면 동네 새댁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 엄마도 새댁이 되어 처음 여기로 왔을 때 엄마 같은 새댁들을 모두 하나로마트에서 만났지. 지금도 옆 라인에 사는 호환이 엄마, 상혁이 엄마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준태 엄마, 지혜엄마. 우리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단다. 엄마 같은 새댁들은 대부분 시집을 오면서 이곳 구운동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야. 우리는 각자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지. 이 동네에 모여든 새댁들은 서로의 외로움이나, 고민이나,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단다. 게다가 대부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지.

아이를 키운다는 것. 엄마들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막막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일 때가 많아. 그럴 때면 하나로마트 신선식품 코너 앞에서 두부를 고르며 육아 선배들의 육아 노하우나 걱정거리들을 나누곤 했단다. 특히 삼환상가의 하나로마트는 우리 동네에서 그냥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 지금은 우리 집 근처에 이마트와 농협,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지만, 그때는 하나로마트밖에 없었지.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엄마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육아의 힘듦을 수다로 해소하는 만남의 장이자 엄마들의 수다스런 놀이터였어.

준태 아빠

1997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망해 있던 적이 있었어. 너도 기억하지? IMF. 그때 유행어가 "먹을 게 없어서 나라를 말아 먹었다."였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망해 버린 사건이었어. 연일 8시 뉴스는 "재계 순위 몇 위 ○○그룹이 부도가 났네, ○○그룹이 부도 위기를 맞았네." 하는 내용들로 넘쳐났지. 슬프게도 우리 동네, 그래 우리 삼환아파트도 그 엄청난 사건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단다. 아파트 전체 분위기가 침울했지.

우리가 아직 3동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옆집에 준태네 가족이 살고 있었단다. 그래 너도 기억날 거야. 매일 단것만 먹어서 이가 몽땅 썩어 버린 그 준태 말이야. 준태 아빠는 수원 삼성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물론 삼성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IMF가 터지자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 들었지. 그 예리한 칼날은 단칼에 준태 아빠의 넥타이와 와이셔츠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를 싹둑 잘라 버렸지. 준태 아빠는 해고된 지 얼마 후 술을 마시고 목 놓아 울다가 다음날 집 앞에 쭈그려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지. 너와 준태는 같은 삼환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 준태가 유치원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단다. 준태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허벅지 살이라도 떼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을 그 마음은 갈갈이 찢기다 못해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 버렸을 거야. 하나로마트의 분위기도 아주 침울했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해 버린 수많은 준태 아빠들, 새우깡을 사 달라고 조르는 준태들, 하지만 새우깡조차도 사 주지 못하는 준태 엄마들. 이렇게 힘겨워진 수많은 준태 가족들은 정 붙여 살던 삼환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어딘가로 떠나가 버렸단다.

도시화로 인한 단절이란 사회적 문제는 우리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얘기되던 문제였어. 하지만 IMF 이후 사라진 이웃 주민과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은 좀처럼 섞이지 못했단다. 살기 팍팍해서였을까? 아니면 낯설어서였을까? 어쨌든 IMF는 우리 동네와 정든 이웃들을 산산조각 내 버렸단다.

우리 아파트가 이 산산조각 나 버린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아니 오히려 열심히 노력했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했고, 동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바자회나 알뜰장, 노래자랑대회 같은 행사들을 많이 개최했어. 하지만 처음 있던, 처음 정 붙인 사람들과 보낸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더구나. 준태. 이제는 너와 같은 27살이 된 준태, 60을 바라보는 준태 엄마와 아빠는 요즘 무얼 하고 지낼까? 부디 어딘가에서 잘 지내기를.



이제는 사라진 아빠의 고향 합덕읍 도곡리와 나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전신주 뒤로 실제 뒷간과 전신주 앞으로 대추나무 가지가 보인다.

너는 무얼 보았니?

30년. 우리 가족이 자그마치 30년 가까이를 구운동 삼환아파트에서 살았네! 우리 앞집에 살던 성수 엄마는 10동으로 이사 갔단다. 성수 엄마는 아직도 너의 안부를 묻곤 해. 정말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있었구나. 마을이 조각조각 무너지기도, 무너진 마을이 다시 온전한 꽃병이 되고, 근처에 마트가 생기고, 여기산과 일월저수지에 커다란 공원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화서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도 했단다. 느리지만 계속되는 변화.

아들아 너의 고향이 30년 동안 이렇게 변했단다. 네가 어디를 가던 어디서 무엇을 하고 먹고살든지 이곳 구운동 삼환아파트가 너의 고향이고 첫 걸음마를 뗀 곳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단다.

너의 아빠는 고향을 잃었단다. 합덕읍 도곡리에 있던 너의 아빠가 나고 자란 그 허름한 초가집은 시멘트 밑에 묻혔고 그 시멘트 위에는 커다란 공장이 들어섰단다. 너의 아빠는 이제 시골 똥간 옆에 있던 그 대추나무의 잘 익은 대추 맛을 다신 볼 수 없어. 네가 나고 자란 이 고향도 언젠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 테지. 사람은 기억을 먹고사는 짐승이란다. 그런데 그 기억할 고향이 없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다는 의미야. 아들아! 이 순간 그리고 너의 옛날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의 27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27년을 구운동에서 살아온 구운동 토박이 아들. 아들아, 신세대인 네가 보는 이 마을의 모습도 참 궁금하구나.

27세, 나의 이야기 : 청년의 구운동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차가운 어느 겨울 덜컹대는 기차 안. 우리가 흔히 보는 열차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열차를 타고 새로운 풍경을 보는 감동도, 어딘가를 여행한다는 설렘도 없는 적막한 열차. 초록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잔뜩 주눅이 든 수십 명의 건장한 청년들, 그리고 이 남자들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한 남자, 달리고 있는 적막하고 차가운 열차. 매의 눈을 가진 남자가 이 차갑고 적막한 기운을 단 한 마디로 깨 버린다.

"신병들 지금부터 식사 시작합니다. 더운 물은 순서대로 정량만 나눠 씁니다."

그렇다. 이 열차는 저 멀리 전라도 장성훈련장에서 전투공병훈련을 마친 신병들을 호송하는 호송열차였다. 그렇다 그 열차엔 나도 타고 있었다.

나는 전라도 장성에서 공병훈련을 마치고 자대인 강원도 고성으로 가기 위해 호송되던 중이었다. 추운 겨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차가운 열차에서 조금이라도 더운 물을 더 받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나. 힘겹게 받아낸 더운물과 맛없고 덜 익은 전투식량을 처량 맞게 먹던 나는 익숙한 풍경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저 멀리 보이는 무언가 익숙한 풍경, 그리고 수원역, 그 다음 화서역. 그렇다. 나는 나의 23년의 생애가 담긴 내 고향을 저 멀리 고성으로 끌려가던 중 보고야 말았다.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서러운 감정, 하지만 퍽퍽한 밥풀떼기에 꽉 막혀 버린 목구멍.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차렷 자세로 앉아서 저 멀리 가까워지는 농민회관과 서호공원, 화서역 그리고 나의 집 삼환아파트가 다시금 멀어질 때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고향. 나는 20여 년을 구운동에서 살았다. 그곳이 내 세상이었고 내가 아는 전부였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엄마와의 쇼핑도, 영화를 보는 것도 모두 내가 아는 서수원이란 곳에서 이루어졌다. 고향이란 곳을 강제로 떠나게 되면서 비로소 고향이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0일. 정확히는 121일 만에 나는 그 지옥 같은 부대를 잠시 떠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떠나 본 고향. 나는 무서웠다. 100일 동안 내가 없던 세상은, 내 고향은 어떻게 변해 버렸을까? 혹시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율현중학교 앞 메차쿠차 돈가스집이 망해 버린 것은 아닐지. 꿈에서도 못 가본 내 동네. 열차에 앉아 처량 맞게 유리창만 바라보던 내가 드디어 내 집, 내 동네에 왔다. 장장 100일 만에! 나는 이날 그 어렵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었다. 나의 고향은 있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

보이저호. 지구를 떠난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찍어 온 한 장의 사진, 인류는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라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조감(鳥瞰), 한 발짝 멀리서 보아야 보이는 소중함. 나는 고성이란 저 멀리 땅 끝에 있게 되면서 동네란 것의 소중함과 고향이라는 것이 가진 특별함을 알게 되었다.

빙상장

난 추운 겨울을 좋아했다. 몸에 열이 많거나 더위를 못 참아서가 아니었다. 겨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추운 날씨에 누런 콧물을 질질 흘리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 썰매와 스케이트, 우리 동네엔 김연아 선수도 부러워할 만큼 커다란 빙상장이 있었다.

화서역과 수원성 교회 사이, 지금의 서호체육센터와 수자원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는 원래 커다란 논이 있었다. 지금은 농구장과 산책로, 풋살장으로 변해 버린 그곳은 약 15년 전만 해도 가을이면 금빛 물결을 일으키는 거대한 논이었다. 벼를 수확하고 밋밋해진 논.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이 되면 그 논의 주인아저씨는 농번기도 아닌데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다. 농부아저씨의 짭짤한 부수입. 날이 추워지면 그 논은 얼음이 넓게 깔린 거대한 아이스링크로 변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에는 여러 사이즈의 스케이트화가 진열되었고 무릎을 꿇고 타는 얼음 썰매, 채찍을 휘둘러 때려야만 돌아가는 얼음팽이도 그곳에서 즐길 수 있었다. 나의 사촌은 화서역 너머 화서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근처에 공원이 많이 없던 시절 나와 사촌 형과 동생은 매주 주말 그곳에서 만나 신나게 동계스포츠를 즐기곤 했다.

그렇게 한 주씩 스케이트장을 갈 때면 나는 나의 스케이트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스피드 스케이트 강국. 분명 나의 핏속에도 스케이트를 잘 타는 유전자가 녹아 있음이 느껴졌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 두 살이나 많은 형보다 내가 더 스케이트를 잘 탄다는 우월감, 그 우월감에 나는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스케이트를 타고 무리하게 커브를 돌던 나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것을 본 외삼촌은 부리나케 미끄러운 빙판을 가로질

러 다가왔지만 엉덩이로 전해진 얼얼한 충격에 나는 이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꼬리뼈에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 나는 결국 엄마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다. X-Ray는 내가 다친 엉덩이에 방사선을 쏘아댔고 나는 결국 꼬리뼈에 실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다 커서 차게 된 기저귀, 정확히는 기저귀 같은 깁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학교에 기저귀 같은 깁스를 차고 간 그 날의 치욕을.

지금은 서호체육센터와 수자원센터가
들어선 자리에 있던 빙상장
뒤편으로 신동아아파트와 공사 중인 대우아파트,
지금은 없어진 주유소의 담장이 보인다.



스케이트를 대여해 주고 간단한 취식을
할 수 있던 비닐하우스



망태할아버지

지금은 율천고등학교가 되어 버린 곳. 그곳에는 원래 정천초등학교가 있었다. 정천초등학교 앞 도로 너머에는 자그마한 포도밭이 있었다.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쟁이였던 나와 내 친구. 어느 날 나와 친구는 그 포도밭을 습격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일종의 담력 테스트였을까?

'포도 팝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녹슨 철망과 비닐하우스에서 장사를 하던 '효정꽃집' 사이에는 나와 내 친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개구멍이 있었다. 개구멍을 지나 들어가게 된 포도밭 그리고 바로 앞에서 보게 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생각보다 기괴하게 생겼다.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휘고 구부러진 가지들, 까무잡잡하고 거친 나무껍질. 꼭 할머니가 어릴 적 해 주던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꼬부랑 망태할아버지의 모습 같았다. 내심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일까. 아니면 그 기괴한 포도나무의 모습에 지레 겁을 집어먹은 것일까. 나와 내 친구는 주렁주렁 가지마다 열린 수많은 포도를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금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려는 그 순간, 하늘을 찢는 듯한 불호령.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망태할아버지가 이야기책을 찢고 나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포도밭 주인인, 가위로 포도를 따던 그 할아버지의 감시망에 우리는 걸리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허름한 오두막으로 가시고는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셨다. 얼마쯤 지났을까.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가. 나쁜 사람들이 간다는 경찰서에 가는 것일까? 우리는 도둑놈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쯤 우리를 벌세우고 묵묵히 밭일에 열중하던 할아버지가 휙 뒤를 돌아 오두막으로 오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다.

"늬들. 이거 농약 준 그다. 농약 묻은 거 안 씻고 고냥 먹으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그러믄 안 된다."



망태할아버지가 포도를 따던 과수밭



내가 벌을 섰던 오두막도 무너져 가는 중이다.

우리는 그렇게 농약의 무서움과 도둑질의 나쁨에 대하여 일장 연설을 듣게 되었다. 도둑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 우리는 도둑질을 한 도둑놈이었다. 일장 연설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찰을 부르러 다녀오겠다고, 너희들의 얼굴 다 보았으니 도망갈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더니 어디론가 갔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의 두려움 가득한 눈만 쳐다보고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 망태할아버지가 오셨다. 손에는 알록달록한 쟁반과 포도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거 따려고 아흔아홉 번 허리를 숙인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먹고 가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내 친구는 그 포도를 다 발라 먹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와 내 친구는 한동안 포도밭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포도 한 송이를 위해 아흔아홉 번 허리를 굽힌다는 망태할아버지, 이제 그 할아버지도 그 포도밭을 떠난 것 같다. 떠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포도나무들은 아직 있지만 이제 곧 없어질 것 같다. '2020년 일월 수목원 예정지'라 쓰인 포도밭 근처에 서 있는 식물원 예정지 현수막을 보면서 무언가 생기려면 무언가 없어져야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다.

일월저수지

문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양식. 사람이 있고 사회가 있는 곳이라면 문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동네도 거창하거나 특별하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동네만의 문화라는 것이 있다. 우리 동네의 문화는 일월저수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일월저수지 정원을 관리하시던 자원봉사자
사진 찍기를 요청하자 포즈를 취해 주셨다.



일월저수지 바로 옆에 위치한 논
사진을 찍을 당시 오리가족이 산책로를 가로질러 일월저수지에서 논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내가 일월저수지 앞에 있는 일월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일월저수지는 아주 더럽고 커다란 물웅덩이에 불과했다. 지금과 같이 새들이 갈대밭 위를 날아다니고, 팔뚝만한 잉어가 사는 그런 예쁜 공원이 아니었다. 일월저수지는 더러움의 극치였다. 근처에 가면 악취가 매우 심하게 났다.

악취를 못 견뎠는지 그곳에 살던 물고기들도 허연 배를 보이며 둥둥 떠오르기 마련이었다. 바람 빠진 축구공도 심심치 않게 떠다니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일월초등학교가 개교함과 동시에 코오롱, 성원, 청구 아파트 같은 커다란 아파트들도 입주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동안 일월저수지는 많이 오염되었던 모양이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이런 저수지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 같다. 우리는 토요일이 되면 '마을 대청소'란 이름 아래 학교 주변, 특히 일월저수지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쓰레기 봉지를 든 선생님을 따라서 일월저수지에 도착하면 선생님은 각자 쓰레기 열 개씩 주워 확인을 맡아야만 집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조금이라도 집에 일찍 가고 싶은 마음. 우리는 사슴 같은 눈과 고사리 같은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여댔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도 자극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저수지가 더러워서였을까? 어쨌든 우리 동네의 어른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오염된 하천이 되살아나는 데 꼬박 몇 년이 필요했다. 그렇게 다시 깨끗해진 일월저수지에서 어느 날부턴가 새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일월저수지를 살려내면서 마을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월저수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되었다. 더러워서 가지 않던 저수지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배 나온 아저씨들과 동네 개 엄마, 개 아빠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깨끗해진 저수지는 여전히 우리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 공원의 정원과 환경은 마을 주민들과 학생의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죽어 가던 저수지를 살려낸 사람들, 그



일월저수지 산책로
저녁이 되면 주민들로 붐빈다. 오른쪽엔 논이, 왼쪽엔 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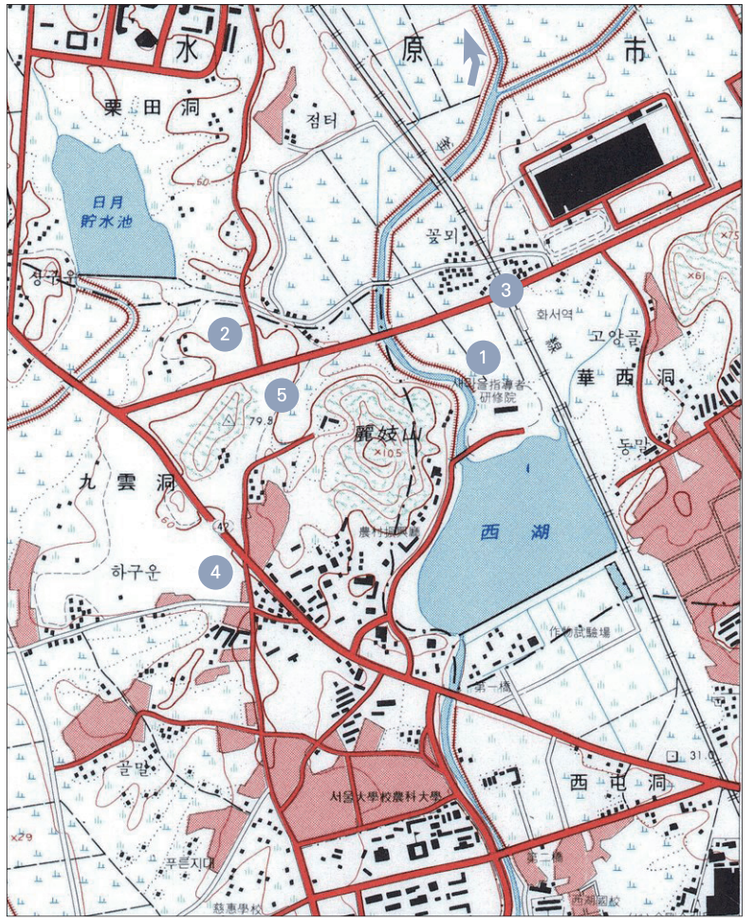
리고 살아난 저수지의 푸르름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일월저수지가 없는 구운동은 꿈도 꾸지 않는다.

기억

과거는 쉽게 바스러진다. 우리가 기억하려 애쓰지 않고 기록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결국 한 줌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혼자 바스러지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추억과 기억들을 담고 있다. 우리 동네도 매일 매일 천천히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들과 사라지는 것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 무언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보통의 동네. 그 보통의 기억들은 한 방울 두 방을 모여 거대하고 거스를 수 없는 역사라는 강줄기를 만들어낸다. 신기하지 않은가? 책에서만 보고 배우는 역사. 나도 그 역사의 한 줄기라는 것이.

엄마의 말처럼 사람은 기억을 먹고사는 짐승이다. 나도 이제 스물일곱이다. 언젠가 먹고사는 문제로, 결혼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날이 결국 오고야 말 것이다. 그땐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져갈 것이라곤 고향의 여기저기 묻어 있는 기억들밖엔 없겠지. 우린 모두 기억을 먹고사는 짐승.

엄마의 지도



1990년 지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번호	설명
1	**할머니의 빨래터** 지금은 (구)농촌진흥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왼쪽에 보이는 여기산은 백로의 서식지로서 들어갈 수 없게 막혀 있다.
2	**우리 가족이 30년간 살아온 구운동 삼환아파트** 삼환상가가 들어서 있다. 아직 꽃뫼 부근과 일월저수지의 남쪽 지역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웃거리와 함께 많은 아파트들의 생활 중심지였다.
3	**화산지하차도** 수원시의 배수 여건이 좋지 않았을 당시 폭우가 오면 자주 침수되었던 곳이다.
4	**지금은 화서역 앞에 있는 수원 제일산부인과가 있던 자리** 아빠는 3번(화산지하차도)부터 4번(제일산부인과)까지 비를 맞으며 걸어왔다고 한다.
5	**할머니가 사는 곳**
화살표	**아빠의 회사(SKC)가 있는 방향** 1990년 지도상으로 보면 (구) 천천아파트 앞 지하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빠가 퇴근을 하기 위한 길은 화산지하차도만 존재했다.

※ 엄마와 나의 지도를 유심히 보면 번호의 분포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태어나 아주 아기였을 때는 웃거리-삼환아파트가 이 지역 주민의 주 생활권이었다. 내가 조금 자라나고 나서 일월저수지 공원, 일월 먹거리 골목, 꽃뫼상가단지 등이 생기면서 생활권이 삼환아파트-화서역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의 지도



2002년 지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번호	설명
1	**내가 태어나 27년을 살아온 고향, 삼환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에 위치하고 있다.
2	**빙상장이 있던 자리** 지금은 수자원센터와 스포츠센터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꼬리뼈에 실금이 간 쓰라린 기억이 있다.
3	**포도밭이 있는 자리**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지만 포도나무, 살구나무, 감나무들은 남아 있다. 2020년 일월저수지 식물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4	**일월저수지 공원이 있는 곳** 일월저수지 북부에 더 큰 공원이 존재한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곤 했었다. 지금은 지역 주민 봉사자들이 가꾸는 정원이 있는 곳이다.
5~6	**일월초등학교와 율현중학교** 내가 졸업한 학교들이다. 초등학교는 일월저수지 남단, 중학교는 서호천의 서단에 위치해있다. 봉사 동아리를 하였기 때문에 마을 정화 봉사에 자주 참여하였다.
7	**일월도서관** 2016년 개장한 일월도서관이다. 구운동, 화서동의 학생들이 자주 방문한다. 주말이 되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도 책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

신민정

스 크 즈

할머니의 컬러 사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나의 고향은 수원이다.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다. 그리고 나의 수원에는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는 나의 고향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다.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아 언젠가는 할머니 혼자만의 추억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그 이야기를 역사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종종 할머니의 집에 놀러 간다. 할머니의 집은 나의 집이었다. 나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의 집이었던 세류동 그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나의 집이 되었고, 내가 어느 정도 자라 밥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후에는 할머니 혼자만의 집이 되었다. 오늘도 할머니의 집에 가는 길이다. 할머니의 집을 둘러싼 동네의 풍경은 오늘따라 새롭게 보인다. 매일 보는 하늘도 고개를 들어 시선을 둘 때만 오늘의 구름의 모양과 빛깔이 어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 대문을 넘어 빌라로 들어간다. 참, 그 땐 이 옆에도 빌라가 있었지. 동네 아저씨들이 함께 지었던 빌라. 우리 할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철거되어 차도가 되었다. 그게 벌써



수인선 철길 위에서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몇 년 전이구나. 그러고 보니 집 앞에 오래된 기찻길이 있었는데, 그 자리 대신 공원이 생기더니 이번엔 길이 되었네. 자연스레 떠오르는 옛 생각을 뒤로 하고 계단을 올라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의 집은 내가 살 때와 변한 게 거의 없다. 내 짐이 빠져나가 조금은 휑해진 것뿐이다. 코끼리 집으로 향하는 커다란 레미콘이 집 앞을 지나갈 때 핸드폰 진동처럼 집이 흔들리는 것도 그대로이고, 부엌의 창밖으로 몇 십 년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옆집 정원의 커다란 나무들이 보이는 것도 그대로이다. 내가 놀러 갈 때마다 할머니가 건네는 첫 마디도 언제나처럼 변함이 없다.

"배고프지? 밥해 줄까?"

밥 대신 내가 사 온 피자를 두 조각씩 해치우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안방에 마주앉았다.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했지만, 첫 질문을 던지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할머니가 꼭 역사책을 읽어 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겪은 한국전쟁

"할머니 수원에서 태어났지?"

"그렇지. 서둔동. 옆에 대학교가 있었어. 서울대학교.[1] 일본 놈이 들어와서 뺏었었지."

"해방하기 전에도 기억나?"

"그땐 잘 기억 안 나지. 어려서."

"그러면 6.25전쟁 때는?"

"그때가 열 몇 살인가, 열두 살에 난리 난 거 아녀, 우리나라. 우리 형부가 경찰이었어. 우리 아부지는 처음엔 잡혀 갔었어. 동네 빨갱이가 어느 집에 경찰 사위 있고, 어느 집이 군대 가 있고 다 일러서 팔달산에 붙들려서 … 팔달산에서 많이 죽었대. 그런데 우리 아부지는 어떻게 도망 오셔 가지고 멍석을, 벼 말리는 걸쳐 놓고 몰래 밥해 잡수고 수원역으로 간 거야. 기차를, 화물차에 타고 한강까지 갔대. 거기서 경찰 큰사위를 만난 거야. 거기서 잘 먹고 살이 이렇게 쪄서 왔다. 우리네는 먹을 게 없어서 비쩍 말랐는데."

"할머니도 피란 갔었어?"

"우리는 호매실 넘어서, 칠보 넘어서. 기다란 천 기저귀 같은 걸로 하

나씩 매서 끌고 간 거여. 그리고 그 죽은 할아버지 있잖아. 내 막냇동생. 그 할아버지가 어렸었어. 우리 엄마가 막내를 업고 간 거여. 갈 때 내가 얘 버리고 가자고 했었지. 그땐 사람 다 버리고 가니까. 눈 속에서 애도 울고, 노인네도 얼어 죽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어딜 버리냐구, 같이 죽어야지."

"칠보로 가서 그럼 어디에 있었어?"

"가정집 아무데나 가는 거여. 요렇게 좁은 데서 스물 몇 명씩 앉아서 자구. 나무 하러 댕기고, 김치도 얻으러 댕기고. 여기 찢어진 데 아직 있을걸? 나무 하러 댕겨 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니까 처음에는 아부지가 산에다가 방구대(방공호)를 팠어. 엥- 울면 집에서 거기로 뛰어드는 거여. 열흘 만인가? 후퇴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여.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나왔다고 우리네도 거지꼴로 막 손 흔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먹을 걸 막 준다."

"그러면 수원에도 폭탄 떨어지고 그랬어?"

"그럼. 우리 동네 부자 할머니는 피란 안 갔다가 피격, 그 포탄 맞어서 마당 파서 묻어 놓구 그랬어."

"그러면 미군 들어오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집은 멀쩡했어?"

"다 뚜들겨졌지. 그 전엔 (아궁이) 불 땠잖아. 그 재에다가 쌀을 감춰 놓고 갔더니 누가 다 쑤셔서 가져갔어. 그래서 미국 사람이 밀가루 그런 것 주면 타다가, 설탕이랑 또 우유 가루를 물에다가 타서 쪄먹고 그랬지."

"그러면 53년이니까 … 할머니 열다섯 살쯤에 전쟁이 끝난 건가? 그때 이후로 계속 서둔동 산 거야?"

"서둔동 계속 살았지 그 집에. 그 집 다 뚫어진 거 고쳐 가지고 그냥 산 거야. 술곽 놓구 흙으로 해서 …."



서둔동 집에서 할머니의 '아부지' 환갑잔치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배우던 것과는 달랐다. 10대 소녀였던 할머니가 겪었던 6.25전쟁은 연표로 나열되는 역사적 사실보다 더욱더 생생한 모습으로 눈앞에 그려졌다. '내가 사는 이 동네에도 폭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겠구나.' '수원비행장이 6.25전쟁 때에도 있었을까?[2]' 단 한 번도 궁금해 한 적 없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할머니에게도 청춘은 있다

6·25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좀 더 할머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할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나 결혼을 했는지, 할머

니는 무엇을 좋아했는지 ….

"그러면 할머니 학교도 수원에서 다 나왔겠네?"

"수원에서 댕기다 말았지. 국민핵교 새로 진 데, 이름 없는 데 댕기다가 야학에 갔었어. 하늘 천, 따 지 그런 거 배우는 데. 보자기에다가 책을 매구. 보자기도 다 떨어진 거 꼬매 갖고, 신발도 게다[3] 신고 댕기고. 그걸 집에서 아부지가 만들었어. 헝겊으로 데다가 그 위에다가 못이 금방 빠지잖아. 잘못하면 발이 다 찢어져. 약이 뭐 있냐? 상처 나면 쑥 말려 놨다가 적셔서 바르고. 또 오징어 뼈 긁어서 바르고. 오징어 뼈가 짜서 바르면 쓰라려. 나는 중학교 못 나왔어. 야학까지 하구. 그래도 한글 보는 건 다 봐. 근데 제대로 쓰질 못하지."

"할머니 결혼은 몇 살 때 한 거야?"

"스물두 살."

"그 전까진 뭐 했어?"

"직장에 댕겼지. 처음엔 저기 시험장에."

"무슨 시험장?"

"뭐 우리 동네 시험장 있잖어. 서호 있는 데에. 그니까 거기 씨앗 뿌리고 그러는 데."

"아, 그 농촌진흥청 앞에?"

"누에 기르는 데 댕기고. 벌러지 기르잖어. 거기서 뽕 따다가 맥이구. 첨엔 그 시험장 댕겼어. 그다음엔 자로 이렇게 재. 벼를 몇 센치인지 재서 적구. 또 벼를 세어 봐 하나씩. '몇 알이다.' 하면 적구. 지금은 많이 이사 간 거여. 전라도루. 다 전라도루 갔지.[4] 누에도 하구, 베 짜는 공장에도 댕기고. 시집갈 때 피를 선물로 주더라. 그걸로 옷 해서 가라고."



마음껏 놀아 보자 칠보산에서(1959년)

할머니가 결혼 전 직장에 다녔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것도 옛 농촌진흥청에. 할머니는 한 평생 전업주부로 산 줄로만 알았다.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녀이자 할머니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손녀라고 자신했는데 …. 할머니의 인생에 무관심했던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도 잠시, 나는 책꽂이에서 옛날 앨범을 찾아 꺼내 왔다. 할머니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처녀 때 찍은 거. 머리 땋은 거 봐라. 여긴 칠보산이다. 놀러 가서 춤 춘 거여. 얘가 장구를 잘 쳤어. 얘는 일찍 죽었어. 얘두 죽구. 이 사람은 살았다는 말 있는데…."

"이게 몇 년도야?"

"오래됐지. 스물, 스무 살 적인가, 열아홉 살 적인가. 스물두 살에 시집갔으니까. 처녀 때두 이렇게 한복 입구. 크크. 이건 네 할아버지하구 나허구."

결혼 그리고 자녀

"할아버지는 몇 살에 만나서 연애한 거야?"

"연애한 게 아니라. 하두 남자가 쫓아댕겨 갖구. 평동 사람이 우리 집에 쫓아와서 아부지가 그냥 스물두 살에 바로 시집보낸 거여. 이거 봐 이거. 첨에 만났을 때. 진짜 못생겼어. 할아버지가. 키 키. 할아버지 못생겼다고 내가 싫다 그랬어. 이렇게 창호지 바른 문 찍구 보니까, 목에 살이 쪄서 …. 아이구! 키도 쪼그맣고 배기 싫었어. 옷은 잘 입었는데."

"결혼도 수원에서 했어?"

"종로에서 했다. 최고로 좋은 데서. 할아버지가 부잣집이라 …. 그리고 네 할아버지 친구들. 네 할아버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결혼식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봐라. 나 얼굴도 못 들었지. 피로연 할 때. 이건 친구들하고 찍은 거. 선물 준 거랑. 저기 있잖아. 저 컵."

"이거? 장식장에 있는 게 다 결혼할 때 받은 거라구? 헉!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거야? 60년 전이네?"

"다 일본 거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식(1959년)

"결혼하고 집은 어디였어?"

"서울서 살았지. 중매한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여. 네 할아버지 집안네고. 내가 이쁘니까, 머리 이렇게 칭칭 땋고."

"그러면 오남매가 다 서울서 태어났나?"

"아녀. 셋만. 큰외삼촌, 큰이모, 네 엄마. 네 엄마 낳구선 고생 엄청 했다. 우리 시아버지가 이혼하고 시어머니가 새로 들어왔어. 그래서 나만 일 죽도록 하고. 내가 식모 하나 구해 달라고 했어. 부자니까. 나중에 시아버지가 우리 집 하나 해 주고, 그 집 팔고 검정골[5]에 농장 하다가 실패해서. 거기 지금은 잘해 놨어. 그거 있었으면 우리 오남매 가만 앉아도 먹고살어. 아직도 거기 지나가면 (기분이) 안 좋아. 아까워서."

"여긴 어디야?"



큰삼촌의 신곡초등학교 졸업식



서호에서

"여기 학교여. 여기 신곡! 너 댕기던 데. 외삼촌 졸업. 가만있어 봐. 여긴 서호 같은데? 여기 서호에서 막내 이모가 그렇게 울었어. 그래서 뒤에다가 팽개쳐 놓고 사진 찍은 거여. 전엔 놀러 잘 댕겼지. 돋보기 써야지 안 되겠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와서는 본격적으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네 외삼촌이다. 여긴 저기 수원 화성 같은데? 네 삼촌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나쁜 놈들이 계집애 같다고 그러구. 울구, 나는 데릴러 오구. 빗자루 들고 가서 그놈한테 '이놈아, 넌 다마네기[6]같이 생겼다!' 그래도 네 삼촌이 공부도 잘해서 대우를 받았어. 주산학원 댕기고. 그전에 신곡학교 뒤에. 거기가 그전에 과수원 나무가 많았었어."

나는 할머니의 젊었을 때 사진 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발견했다. 가족사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애는 시영동상[7] 삼은 거여. 처녀 때. 이거 시영했잖아. 이거 봐."
"시영? 시영했다는 게 뭐야?"
"이거 이제 자매 맞았다는 거. 먹물 갈어서. 문신 한 거여."
"거기에 문신이 있었구나!"
"개 거는 내가 떠 주고, 내 거는 개가 떠 주고. 그니까 이제 양쪽 집이 다 아는 거여. 왔다 갔다 하구 식구들끼리. 서둔동에도 오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 때, 나는 항상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할머니의 왼쪽 팔 안쪽에 작은 점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할머니

에게 문신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할머니에게 문신이 있었다니! 그게 의자매를 맺으며 새긴 약속의 흔적이라니!

할머니의 인생 2막

우리는 어느새 두꺼운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앨범을 펼쳤다. 두 앨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세월의 간극이 있었는지 전 앨범엔 온통 흑백 사진뿐이었는데 이번엔 컬러 사진으로 가득했다. 특히 할머니가 한참 친구들과 관광을 자주 다니던 때엔 저마다 갖춰 입은 붉고 푸른 옷들로 사진의 색감이 정말 다채로웠다. 힘들었던 흑백 사진의 시절이 지나고 난 뒤, 40~50대였던 할머니의 인생에도 컬러 사진처럼 빛이 들었을까?

"아이구. 여기 옛날 할머니들 있네. 안동네 사람들. 이거 저기서 찍은 거여. 원천유원지.[8] 이때가 재밌었다. 에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 얘는 우리 집에 온다는 애. 이거 봐라. 아휴, 배꼽이다! 얘 오면 보여 줘야겠다. 이건 절에 가서 찍은 거다. 칠보에서."

"칠보에도 절이 있어?"

"그럼. 우리 언니허구 놀러 가서 찍은 거. 옛날에도 멋쟁이였지? 우리 언니는 일본 학교 졸업 맡은 거여. 초등핵교. 그래서 일본말두 잘허구."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야? 옛날에 위안부 데려갈라 그래서 얼른 결혼했다는?"

"응. 열일곱 살에 결혼한 거여. 서둔동에서. 선도 안 보구 데려갔지. 일본 놈들이 와서."

"할머니 동네에서도 잡혀간 사람 있었어?"

"없었어. 다 시집갔어. 시집가면 안 데려가지. 그래서 부모들이 그냥 선도 안 보구 시집보낸 거여."



1992년 할머니의 생일 파티

"여기부턴 이 집이다! 이 빌라엔 언제 이사 온 거야? 여기 92년이라고 쓰여 있네. 그럼 이때 이사 온 건가?"

"90년인가, 그때쯤에. 오목살이, 저쪽 동네서 이사 온 거여. 인심 안 잃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사 도와주고. 처음에는 전세로 왔다가 경매를 했는데, 우리가 딴 사람보다 십만 원을 더 써서 일 순위로 해서 부자가 된 거여. 네 할아버지가 똑똑해서."

"이 사진도 여기다! 2월이면 할머니 생일잔치 한 건가? 여기 거실이잖아. 태래비 있고, 냉장고랑 안방 문."

"그러네. 참 내, 이 집이 내 집이래니까 이상하드라. 남의 집 살다가. 아휴, 지겨워. 남의 집은 식구들 많다고 방도 잘 안 줘 사람들이."

할머니는 옛날 생각에 잠긴 듯 찬찬히 방을 둘러보았다. 꽃 같던 젊은 시절을 가난의 손아귀에 붙들려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했던 할머니에게 이 집은 집 이상의 의미일 것이다.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첫 직장을 다니고,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서울에 터를 잡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다. 가정엔 충실했지만 좀처럼 일을 손에 잡지 않는 남편 탓에 남의 집 살림을 해 주며 오남매를 키운 할머니.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집, 내 집을 갖게 되고 그의 인생 2막이 열렸다.

할머니의 작은 바람

나의 어렸을 때 사진을 함께 보던 중, 할머니 집에 오기로 했다는 할머니의 친구 한 분이 도착하셨다. 어렸을 때 자주 봤던 분이었다.

"얘가 걔여. 내가 키운 애. 이렇게 커서 아가씨가 다 됐다."

"몰러.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야 이거 봐라. 사진 봐 봐. 아주 배꼽 잡았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나는 급히 짐을 챙기고 할머니의 집을 나섰다. 오늘은 바로 버스를 타지 않고 동네를 조금 걷기로 했다. 옛 수인선 철길이 있던 길을 따라 걸었다. 부모님이 화서동에 아파트를 구하기 전 살았던 작은 빌라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어릴 때 동네 동생들과 함께 누비던 골목길도 그대로였다. 그 뒤에는 전에는 없던 아파트가 있다. 나에겐 '시골' 같은 이미지가 강했던 세류동도 세월이 흘러 도시의 주택가로 탈바꿈했다. 이질적인 기분을 느끼며 할머니가 해 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할머니가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절대 다른 데 안 가." 할머니의 작은 바람은 수원 토박이로 살았으니 삶의 매듭도 수원에서 짓는 것이다. 할머니가 몇 십 년을 같은 동네, 같은 집에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해 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몇 년 뒤 나도 할머니의 품을 떠났다. 이웃 사람들은 딸,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몇몇은 요양원으로 떠나기도 했다. 또 많은 사람이 세월에 등 떠밀려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할머니만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다른 도시로 떠난 자식들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수원으로 모이고,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도 할머니의 집으로 모인다.

그는 우리에게 나무 같은 존재이다.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지만 절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팔순을 넘은 나이에도 새로움을 추구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전에 먹어 본 적 없는 음식을 먹는 것,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자신의 집을 갖고 인생의 2막을 시작했던 그는 매일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이 도시 수원에서 인생의 3막에 발을 디뎠다. 나에게 고향 그 자체였던 할머니가 나의 미래에도 지금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있어 주길 바라며, 나는 할머니의 컬러풀한 인생 3막을 응원한다.

---

1 수원농림전문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의 시초는 1904년 9월 대한제국 학부가 한성부 수진동에 설치한 농상공학교의 농과이다. 1907년 1월 수원에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가 발족되면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병합되었다.(이원호, 「수원농림전문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2 6.25전쟁 초기 수원비행장은 미대사관 사절단과 고문단의 이동을 위한 기지로 사용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수원비행장은 유엔군 수송과 보급기지로서 김포 및 영일비행장과 함께 미 제5공군의 폭격기 발진 기지가 되어 유엔군 작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비행기지였다. 1950년 6월 29일 오후 미 극동사령관인 맥아더가 전용기를 타고 전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곳도 수원비행장이었다.(「6.25전쟁 68주년 : 한국전쟁과 수원,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수원타임즈』, 2018년 6월 25일(http://swtimes.co.kr/index.php/2018/06/25/sw180625001), 2019년 7월 2일 접속)

3 올이 없이 바닥의 앞과 양옆에 구멍을 뚫어 꿰어서 신는 일본식 나막신이다.(임우기, 「게다」, 『소설 토지 용어·인물사전』, 솔출판사, 1997)

4 농촌진흥청은 1962년 발족 이후 52년 만인 2014년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농촌진흥청 전신인 권업모범장이 세워진 1906년으로 거슬러 가면 108년 만이었다.(「농진청 '수원 시대' 막내렸다」, 『한겨레』, 2014년 7월 24일(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48415.html), 2019년 7월 2일 접속)

5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이다.

6 일본어로 양파이다.

7 수양동생의 방언. 문맥상 의동생(義同生)을 의미한다.

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었던 호수공원으로, 현재는 광교호수공원으로 바뀌었다.(「원천유원지」,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360&cid=40942&categoryId=31931), 2019년 7월 3일 접속)

오자영

ㅇㅈㅇ

나의 수원은 현재진행형

내가 수원 사람이 된 이유

"엄마, 엄마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수원에서 자리를 잡았어?"
"그러게. 한 번 다른 곳에서도 살아 볼 걸 그랬어."
"에이, 그게 뭐야.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야?"
"빡빡한 서울에서 살기는 힘들 것 같았고 …. 수원은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

우리 엄마는 부산 사람, 우리 아빠는 포항 사람이다. 두 분은 모두 각자의 고향에서 나고 자라셨다. 같은 선생님께 배웠던 부모님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만났고 결혼까지 하셨다. 일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해야 할 타이밍에 엄마는 고민이 깊었다고 했다.

"그럼 지금은 수원에서 살았던 걸 후회해?"

나의 물음에 엄마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삶은 수원에 오기 전과 후로 나뉘어.
수원에서 우리 가족이 시작됐지.
난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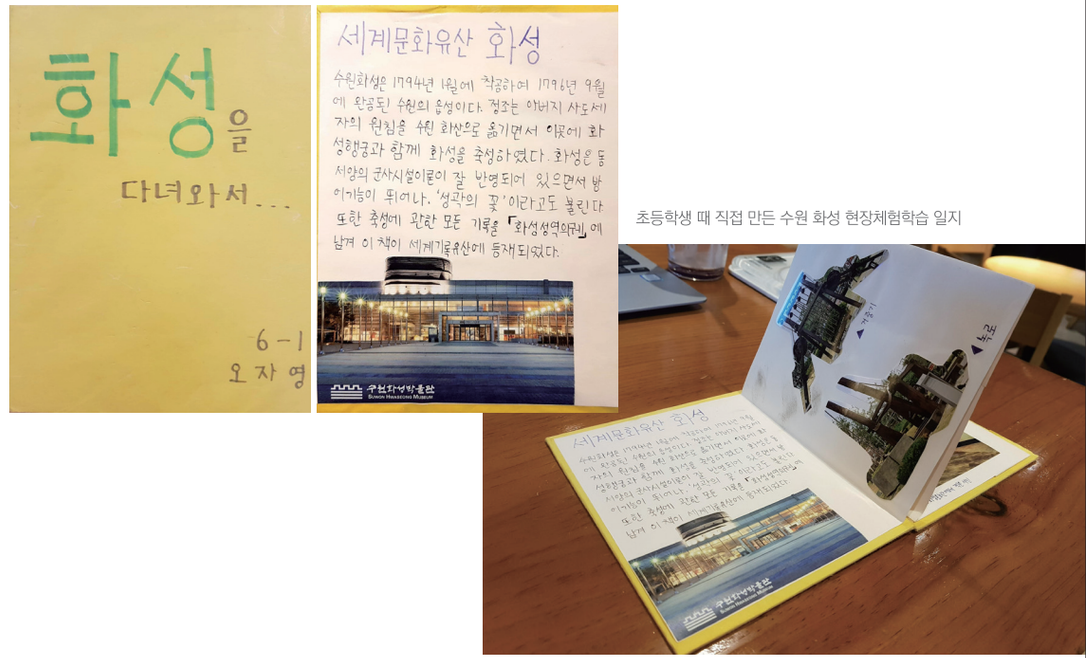
나의 초등학교 추억 한 움큼, 신풍동

태어나서 계속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다던데, 우리 가족은 꽤나 이사를 많이 다니는 편이었다. 그러나 반전인 사실은, 대여섯 번의 이사 속에서도 내가 수원을 벗어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내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집은 행궁동에 있었다. 아니, 그때만 해도 행궁동의 이름은 '신풍동'이었다. 이는 화성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당연히 초등학교 이름은 동네 이름을 딴 신풍초등학교였다.

"내가 신풍국민학교 출신이야."
"엇, 할아버지도요? 저도 신풍초등학교 다녀요!"
"허허, 그래? 앞집 김 씨 할머니도 거기 나오셨지."

동네 어르신들은 이 학교를 나오신 분이 굉장히 많았다. 역시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였다. 최근에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해서 학교를 철거하고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던 '우화관'을 짓는다고 한다. 수원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야외 활동을 대체로 화성으로 갔다. '성곽 한 바퀴', '화성박물관 나들이', '서장대에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화성을 다녀왔다. 그때 친구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난 화성으로 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정말 좋아했다. 친구들은 매번 똑같은 화성을 간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으나, 나에게 화성은 늘 새로웠다.

길 따라 우뚝 자리를 잡고 있는 성벽을 걸으면 나도 '순시'를 도는 군사가 된 것 같았고, 친구들과 숲속에 있는 암문을 몰래 통과하며 놀 때는 내가 암행어사가 된 기분이었으며, 노을이 깔릴 무렵 방화수류정에 산책을 나가면 어떤 왕도 부럽지 않았다. 커다란 장안문에 그려진 용들을 좋아해서 혼자 이름도 붙여 줄 정도였다. 한 번은 서장대까지 올라가서 가장 빠르고 재밌게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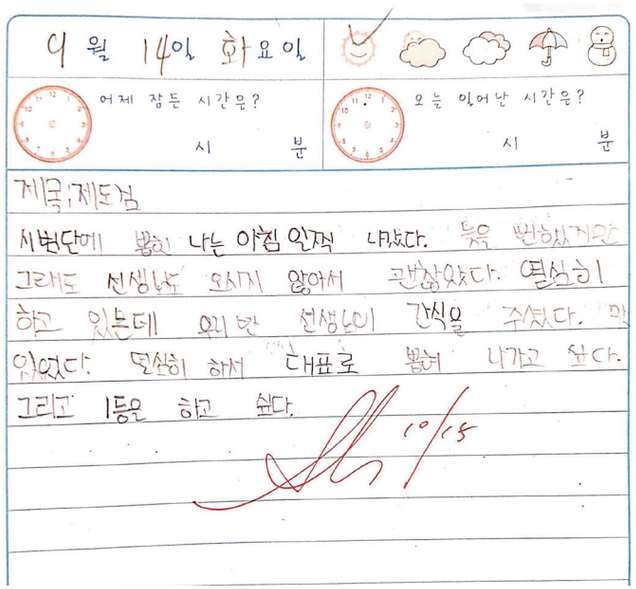


초등학생 때 직접 만든 수원 화성 현장체험학습 일지

증 사진을 찍는 팀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다. 지금 올라가면 어렵지 않게 정상에 도착하는 팔달산이지만,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팔달산은 가팔라 보였다. 하지만 산이 높은 게 무슨 문제랴. 아무리 힘들어도 서장대에서 1등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다. 나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달래며 주머닛돈으로 이온 음료를 사서 나눠 주면서까지 열심히 올라갔다. 어렵게 아주 어렵게 팔달산 정상에 도착하여 결국 우리는 1등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불만을 터트렸던 친구들도 웃으면서 바람을 쐬었다. 이후 어떤 산 정상에서도, 한마음으로 수원을 내려다보면서 느꼈던 상쾌함을 다시 느끼기는 힘들었다. 다만, 단체로 수원의 새인 백로를 흉내내며 찍은 팀에게 밀려서 상품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매일 출석 도장을 찍던 화성행궁

나는 토요일마다 화성행궁에서 '무예 24기'를 배웠다. 무예 24기는 조선의 최정예 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이다. 가족들과 화성행궁 나들이를 나갔을 때, 멋진 옷을 입고 날아다니며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다. 그 뒤로 화성행궁에 매주 출석 도장을 찍으며 무예 24기를 배웠다. 당장 칼과 창을 쥐어 주실 줄 알았지만, 장용영 군사훈련에 기초는 맨손 무예인 '권법'이었다. 쉽게 지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권법을 완파하여 검까지 받았던 걸 보면, 무예 24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다. 특히 시범단에 뽑혀서 공연을 했던 순간은 지금도 또렷하다. 넓은 연무대에서 손끝 발끝에 힘을 주어 내딛고, 신호탄을 터트렸을 때의 박수갈채는 아직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기억이다.



그 기억 덕분에 지금도 화성행궁은 나에게 마치 앞마당 같은 존재이다. 다른 친구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놀 때 나는 화성행궁을 밥 먹듯이 다녔기 때문이다. 누군가 물어보면 기분 좋게 무예 24기에 대해 설명해 주며 기억나는 몇 가지 동작을 보여 주었다. 가끔 화성행궁을 다시 지나갈 때마다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내가 바로 저기서 무예 24기를 배웠지!"

따뜻하고 시원한 수원천

대학교 1학년 때 '수원의 이해'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수원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첫 수업부터 확실하게 깨졌다. 지역학적 관점에서 보는 수원학, 근대 농업의 중심지, 수원 지명의 유래 등에 대해서 배울 때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더 많았다. 특히 '수원 지역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발표회' 시간은 수원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수원에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만 누렸고, 또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며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수원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발표회 때 '수원천'을 주제로 콘텐츠를 구상했다. 수원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경관이 다른 도시의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주민들의 인식과 관리 태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 수원천에 대해 조사해 보니 갑자기 몇 백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던 사건을 알 수 있었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해 보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골

머리를 앓았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수원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수원천 공공예술, 하천 체험 프로그램, 지속적인 관리라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발표를 마치고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영 학생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이미 실행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음 …. 조금 더 지속적이고 참여형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이후 22살이 되던 해에 나는 휴학을 했다. 쉬면서 정리할 생각이 많았지만, 몸까지 쉬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리 휴학을 해도 좋아하는 운동은 절대 쉬지 말아야지.' 했던 다짐 덕분에 반 년 동안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다. 운동 코스를 고민하다가 우연히 '수원천'을 걷게 되었다. 수원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고, 많은 동식물로 생기가 도는 곳이었다. 수원천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한두 번 가보기는 했지만,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수원천을 간 적은 없었다.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을 하러 나오는 곳이었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지나다니는 길이었으며,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 몸을 풀고 가는 곳이 수원천이었다. 몸으로 직접 느낀 수원천은 따뜻한 동시에 시원한 곳이었다.

추운 겨울이라 패딩을 입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모자가 없으면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햇살이 고개를 내밀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운동을 하니 볼거리가 참 많았다. 분명 회색 빛깔을 띠는 하천이었는데 어느 순간 초록색과 노란색, 분홍색으로 칠해지는 모습을 보고 자연의 신비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왜가리, 백로, 오리, 물고기, 개나리, 벚꽃, 오디나무 등 생명






수원천에서 반 년 동안 운동을 하며 직접 찍은 사진

력을 불어넣는 동식물들이 차츰 등장할 때마다 인사할 친구들이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오리 가족을 지켜보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웃게 만들기 충분했다. "삐약, 삐약" 소리를 내는 12마리의 새끼들을 엄마 오리는 정성을 다해 돌보았다. 나만 자연경관을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있었다.

"저 오리는 대단 혀. 자기는 잠도 잘 못 자면서 새끼들을 지킨다니께."
"우와 할머니, 저 오리가 엄마 오리예요?"
"그렇지. 봐봐 고개를 쭉 빼 들고 주위를 둘러보잔혀."

내가 직접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무엇보다 수원천이 깨끗하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다. 그리고 2년 전에 얼마나 탁상공론의 느낌으로 발표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곳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부족했음이 느껴졌다. 어떤 제안이든 내가 살아보고 겪어 보고 하는 것은 참 다를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오늘도 수원천으로 운동을 하러 나간다.

우리의 고향이자 만남의 장소

수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천안, 대전 등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본가는 여전히 수원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더러는 아예 이사 가는 친구도 있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 흩어진 친구들을 어디서 만날까? 정답은 바로 수원이다. 모두 바쁜 일정 속에 살았지만 방학이나 생일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절대 놓치지 않고 만났다. 많은 친구들이 수원을 떠났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반갑게 인사하고 중고등학교 추억이 가득한 곳을 놀러 갈 때면 몽글몽글한 기분이 샘솟았다. 최근에는 행궁동의 카페거리가 급부상하며 자주 찾아가는 인기 장소가 되었다.

"아니 우리가 살던 수원이 이렇게 예쁜 곳이었다고?"
"그러게 말이야. 화성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사진 찍자, 사진!"

모두가 떠나도 나는 아마 계속 이곳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화성이 좋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수원천이 좋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수원이 좋을 뿐이다. 언제든 친구들이 수원으로 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며 어디를 가도 추억이 가득하여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제는 '고향'의 개념이 많이 흐려졌다고 이야기한다. 이사를 많이 다니고 유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교통수단도 발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 고향을 묻는다면 내가 늘어놓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만 수십 가지이다. 우리 가족의 사연까지 이야기한다면 훨씬 많은 가짓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 '수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의 수원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수원아,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김태두

ㄱㄷㄷ

남문, 극장의 추억

내가 수원 사람이 된 이유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이번 주말 얼굴 한 번 볼까?"

"좋지. 몇 시에?"

"오후 5시."

"좋아. 그럼 토요일 5시 ○○극장 앞이다."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대략 1960년대에서 1990년대를 수원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위 대화에 나오는 ○○을 묻는다면 아마 십중팔구 특정 극장을 떠올릴 것이다. 1970년대 수원에서 태어나 1980~199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내게, 수원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이 건물을 대답할 것이다. 바로 중앙극장이다.

고대 서양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20세기 수원에서 모든 길은 남문(팔달문)으로 통하는 듯했다. 화성의 남문으로 사방팔방 길이 열린다는 뜻을 지닌 팔달문은 그 이름만큼 일찍이 번화가가 형성됐다. 수원시민들이 '시내'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시내'는 곧 '남문'을 의미했다.

새로운 옷이나 신발을 사야 할 때, 친구들과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 병원에 가야 할 때 나는 항상 팔달문, 즉 남문에 오곤 했다.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예쁜 새 신발을 샀던 곳, 엄마 손에

이끌려 장을 보러 와 처음 햄버거를 처음 먹었던 곳, 감기에 걸려 주사를 맞고 엉덩이를 문지르던 곳, 고등학교 졸업식에 입을 시장표 양복을 샀던 곳 모두 남문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가족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한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이러한 남문 추억의 중심에는 한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중앙극장'이었다.

1951년 수원 한복판인 팔달문 옆에 문을 연 중앙극장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시민들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해 왔다. 최고의 입지 조건에 위치한 만큼 당시 시민들이 영화를 보고 싶을 때면 늘 1순위로 생각했던 곳이 바로 중앙극장이었다. 극장마다 상영하는 영화가 달랐던 당시 중앙극장은 국내에 개봉한 최신 화제작들이 수원에서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극장들과도 시기적으로 별 차이 없이 상영됐던 곳이다.

과거 영화마다 필름 복사본 개수가 제한돼 있었기에 최신 화제작들은 주요 도시, 주요 극장에서 우선순위로 개봉됐는데, 인구가 적은 도시의 규모가 작은 극장일수록 개봉일이 점차 늦춰졌다. 당시 신문광고를 보면 서울 주요 극장들의 신작 개봉일을 알 수 있었는데, 중앙극장의 개봉일은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때로는 광고의 한쪽 모서리에서 작은 글씨로 '수원 중앙극장'이라는 글귀를 읽을 수도 있었다. 수원 중앙극장은 광고의 주최자였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남문에 있는 이 극장 덕분에 때때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원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

내가 중앙극장과 처음 인연이 닿은 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7살 무렵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남문에 갔던 나는 볼일을 마치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생애 처음으로 영화관이란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중앙극장이었다.

어떤 영화를 하는지도 모른 채 들어간 극장 안은 어두컴컴하고 침침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주로 아저씨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무섭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영화가 시작되자 나는 커다란 사운드에 한 번 놀랐다. 당시 어머니께서



1978년 중앙극장(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대 중앙극장(수원박물관 제공)

TV 소리가 큰 걸 싫어하셔서 집에서 가능하면 작은 볼륨으로 TV를 시청했다. 그런데 영화관에서는 아주 큰 소리들이 전해졌다.

"슉슉슉슉"

"아~악, 타탁탁탁"

실감나는 음향효과가 더해진 쿵푸의 화려한 액션은 어린 나의 가슴을 뛰게 했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제목에 누가 나오는 영화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화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 쿵푸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혼자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무술 장면을 흉내내 보곤 했다. 당시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하루는 체육관에서 족보에도 없는 쿵푸 액션(?)을 남발해 사범님으로부터 따끔한 주의를 듣기도 했다.

1983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한동안 극장에 가지 않았다. 당시 초등학생이 극장에서 볼 만한 영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역시 영화를 보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축구, 짬뽕, 딱지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등 우리는 계절마다 종목을 바꿔 가며 학교에서, 또 골목에서 신나게 놀았다. 가끔 TV에서 '똘이장군'이나 '로보트 태권 V' 등을 하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렇게 지내던 나는 1986년 김청기 감독, 심형래 주연의 '우뢰매'가 개봉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내 스스로 '극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이던 심형래 씨가 빨간 망토에 헬맷을 쓰고 나와 하늘을 날아다니며 외계 악당과 싸우는 모습은 어린 나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날이면 날마다 두 살 터울의 동생과 아버지께 '우뢰매'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처음에 유치한 영화라고 시큰둥하시던 아버지는 이내 지치셨는지 결국 허락해 주셨다. 영화를 보러 간 어느 휴일, 나는 아버지, 동생과 함께 영화가 상영하는 수원시민회관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언덕을 오르던 나는 창가에 비친 길고 긴 줄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택시에 내린 아버지는 가장 뒷줄에 서시더니 옆에 있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답니다."

아버지의 물음에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 어떠한 수완(?)을 발휘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줄을 서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동생과 나는 극장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뢰매'를 보고 난 후 1년이 지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나는 스스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가 아니어도 어딘가를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학교 운동장

과 교실, 동네 안에서만 놀던 우리는 조금씩 활동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여름방학에는 친구 서너 명이서 같이 수영장에 가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오기도 했고, 가을에는 당시 꽤 멀게 느껴졌던 수원역 너머에 있는 평동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층 자신감이 붙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끼리 극장에 가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우뢰매 시리즈'가 공전의 대성공을 거둔 이후 극장가에 여러 어린이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 중 중국의 쿵푸 신동들이 나오는 '호소자 시리즈'가 단연 인기였다.

'할머니를 찾아 도시로 온 시골 쿵푸신동 3형제'

위와 같은 내용의 선전문구 등이 포스터로 돌아다녔다. 또 예고 영상에 꼬마들이 양변기의 물을 샘물인 줄 알고 마시려는 장면이 나왔는데 생각만 해도 재미있었다. 꼬마 형제들이 쿵푸 실력으로 어른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멋지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와 친구들은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며 각자 부모님을 졸라 용돈을 마련한 후 영화가 상영되는 '코리아극장'으로 향했다.

수원공설운동장 인근에 살았던 나와 친구들은 조원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에서 모인 후 도보로 수성중학교를 지나 길 건너 전신전화국을 찍고 영화관이 있던 장안문 쪽으로 향했다. 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초등학생에게는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나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 친구들끼리 "너무 기대돼서 설렌다."라고 했던 대화가 아직도 뇌리에 스친다.

이날 영화를 너무나 재미있게 봤기에(실제로는 친구들끼리 뭔가를 했다는 것에 더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다), 그 후 우리는 새로운 '호소자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서너 번 더 코리아극장에 갔다. 운이 좋은 날엔 '우뢰매'와 '호소자'를 동시 상영으로 해 같은 날 한꺼번에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리아



1990년대 초 수원 지역 극장 포스터 게시대(수원박물관 제공)

극장의 폐관 소식이 들렸다. 이후 북문(장안문) 쪽에는 다시는 극장이 들어서지 않았다.

1989년,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버스를 이용해 혼자서도 본격적으로 남문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거나 친구들과 특별한 날에 모여서 여러 명이 같이 다니던 곳을 이제는 내 의지만으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춘기 시절 홍콩과 할리우드 영화에 매료됐던 나는 남문에 들를 때면 늘 중앙극장 주변을 서성였다.

당시에는 극장마다 커다란 영화 간판(들)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의 영화포스터 같은 사진 출력물이 아니라 화공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실제 그림이었다. 극장마다 그림의 완성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했는데, 중앙극

장과 같이 규모가 큰 극장은 그림의 완성도가 높았던 반면, 변두리의 작은 극장들은 배우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림이 조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잘 그렸건 못 그렸건 간에 그 시절 영화 간판을 보는 데는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

나는 때때로 '중앙극장'과, 그 자매극장이었던 '로얄극장'에 가서 영화는 보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영화 간판만 쳐다보고 있기도 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영화를 보지 않아도 영화의 내용이 상상되면서 나만의 새로운 영화 줄거리가 나오는 듯했다. 아마도 이때 즈음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다.

1992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생마다 담임 선생님께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나는 '장래희망'란에 '영화감독'이라고 당차게 적었다. 주변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영화감독이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영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적었던 것 같다.

'누구도 권유하지도 않은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을 왜 장래희망으로 썼을까?' 지금에 와 이유를 차근차근 따져 보니 장래희망을 그렇게 썼던 데에는 집에 있던 'VHS 비디오 플레이어'와 '중앙극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당시로서는 1학년 전체 학생 중에 '영화감독'이라는 장래희망을 적었던 사람이 나 혼자였기에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깊던 몇몇 선생님들의 관심을 얻어 특별 조언을 듣기도 했다.

"영화 '스플래시'에 나오는 인어이야기를 한강을 무대로 펼치면 어떨까?"
"영화 '다이하드'처럼 63빌딩을 무대로 한 액션 · 테러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 참고서를 보다 말고 혼자 했던 위와 같은 상상들을 불혹을 넘긴 지금에도 나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영화 쪽은 아니지만 인근 영역에서 했던 많은 작업들이 그때의 상상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결국 그 시절 극장 앞에서 설레고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오랜만에 남문을 찾아 가장 먼저 과거 중앙극장 있던 곳으로 향했다. 때때로 통닭골목 등을 지나치기도 하지만 중앙극장을 정면에서 맞이한 건 거의 20년 만에 가까이 된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다양한 단어들이 마음속에서 치솟았다.

고향, 옛 애인, 스승 등등

중앙극장은 실제로 내게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기도, 잊고 있던 옛 애인이기도, 나를 성장시켜 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코리아극장은 내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한 소꿉놀이 친구 같은 존재였다.

걷고 있노라면 왠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던 거리. 그 거리의 중심이었던 한 극장.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하며 꿈을 키웠던 나. 이 셋의 관계는 내가 살아 꿈을 꾸는 한 언제나 지속될 듯하다.

서현정

ㅅㅎㅈ

이모와 수원왕갈비

나의 인생 음식

누구나 추억과 향수에 젖게 되는 인생 음식이 하나씩 있게 마련이다. 나에게는 수원왕갈비가 바로 그것이다. 잘 숙성된 양념갈비를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혀끝으로 전해지는 풍부한 육즙과 진한 육향이 더해진 양념의 조화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천형(天刑)을 타고난 나에게 왕갈비는 버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는 동력이요, 유일한 위안거리다. 특히 부모님처럼 나를 키워 준 이모와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따스한 고향, 그 자체와도 같다.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낳아 준 엄마는 미혼모였는데, 나를 내세워 친부와 정식으로 결혼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지자 무책임하게도 나를 언니인 이모에게 맡기고 떠나 버렸다.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핏덩어리가 측은했던 이모는 나를 몇 달만 키우다가 엄마를 설득해 다시 돌려보낼 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아예 사라져 버리는 통에 처지가 난감하게 돼 버렸다. 당장 고아원으로 보내자니 죄를 짓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키우자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얼마 후 고아원에 보낼 결심까지 했건만, 그 사이 내게 너무 정이 들어 버렸는지 결국 나는 이모의 손아래 자라게 됐다.

이모는 일찌감치 이모부와 사별하고 수원 곡반정동에 있는 갈빗집에서 주방 찬모로 일하면서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이모가 식당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찬모의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단골들도 많았다. 특히 이모표 특제소스와 결합돼 입에서 사르르 녹는 양념갈비는 단골들 사이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꼽혔다. 반쯤은 농담이 섞인 말이었겠지만 수원 최고의 갈비 요리라는 평을 듣곤 했다.

한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유년기를 보낸 나에게 노도와 같은 사춘기는 필연처럼 찾아왔다. 그래서인가 이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지냈건만, 모나고 되바라졌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자랐다.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모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모든 얘기가 전부 잔소리처럼 들려왔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나에겐 꼬치꼬치 지적하던 것을 이모의 친딸인 사촌언니에게는 그냥 웃어넘기는 일이 많았다. 당시 나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매사에 반듯하고 모범생이었던 사촌언니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이 그런 피해의식을 낳았던 것 같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인지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했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이모의 손에 자라난 내 운명을 저주했고, 또래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예쁜 구두 한 켤레 사 신을 수 없었던 가난한 가정환경에 절망했다. 뽀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에 공부까지 잘하는 사촌언니를 시샘했으며, 다가서려 노력해도 좀처럼 나에게 곁을 주지 않는 반 친구들을 보면서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주는, 소위 논다고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배웠다. 몇 번쯤 가출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사촌언니가 친구들 주소까지 샅샅이 뒤져 쫓아오는 바람에 몇 번이나 집으로 다시 끌려오곤 했다.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삶

그렇다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싫었던 건 아니었다. 당시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건 이모의 정성과 손맛이 담긴 다양한 음식들이었다. 특히 이모가 만들어 주신 양념갈비를 제일 좋아했다. 집 인근에 전국 3대 우시장 중 한 곳인 수원우시장이 있어 재료로 쓸 소갈비를 구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이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의미 있는 날만 되면 소갈비를 사와 마법 같은 손맛을 더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사라져도 모를 오묘한 맛의 양념갈비를 내어주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기색을 보이거나 심드렁해 있으면 이모는 어김없이 양념갈비를 맛깔나게 만들어서 상에 올려 주시곤 했다. 이모표 수원왕갈비는 기름기가 적당하게 붙어 있는 소의 갈비 부위에 간장이 아닌 소금을 기본으로 한 양념에 재워 굽는 것이 특징이었다. 무엇보다 갈빗대와 갈빗살이 대략 15㎝에 달해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했다. 그 음식들은 마치 홍역을 앓듯 아픈 사춘기를 겪던 나에게 따뜻한 위안과 위로를 안겨 주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다가 이모에게 잡혀 돌아온 적이 있었다. 심하게 혼이 날 줄 알았던 나에게 이모는 아무 말 없이 양념갈비를 구워 한상 차려서 내어주셨다. 자리에 앉자마자 양념갈비를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을 때 느꼈던 그 맛과 감동이란 …. 이십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도 잊히지 않고 혀끝에 또렷이 남아 있다. 허기와 식탐으로 허겁지겁 밥을 먹던 나에게 이모가 다정스레 말을 건넨다.

"우리 현정이. 양념갈비 좋아하지? 양념갈비는 말이야. 맛이 좋으라고 가미한 양념이 오히려 갈비 본연의 맛을 가리기도 해. 이걸 보고 바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단맛이 부족해서도, 넘쳐서도 안 되는 거야. 인간사 모든 일들도 다 그런 거란다. 이모는 우리 현

정이가 인위적으로 단맛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찾았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뿐이었다. 어쩌면 당시에는 듣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지 모르겠다.

나의 사춘기는 온갖 불만과 좌절, 질투와 반항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인생에 대한 불만은 결국 예고 없는 독립으로 이어지게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마치 야반도주라도 하듯 이모에게 편지 한 장만을 남겨 놓은 채 집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고교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서 사글세를 살면서 식당일을 시작했다. 그 사이 서울에 올라와 있던 고향친구들을 통해서 이모가 내 소재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아직은 이모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무렵 사촌언니도 서울에 올라와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연락해 보지 않았다. 나의 배배 꼬인 마음이 언니에 대한 알 수 없는 열등감과 거리감을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에 올라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한 번은 서울에 사는 고향친구의 집들이 잔치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다. 친구는 기분을 내고 싶다면서 모처럼 수원의 고향집에서 공수받은 양념갈비로 한상 차려내었다. 이모집을 떠나온 후로는 한 번도 먹어 본 적 없는 본고장의 양념갈비였다. 무엇에라도 이끌리듯 양념갈비 한 점을 입에 넣은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흐느낌이 소리 없이 터져 나왔다. 그 언젠가 가출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갈비를 한 점을 베어 물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맛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고향의 뭉클한 향이었고, 엄마의 따뜻한 품이었다. 그리운 나의 ‘이모엄마 …’

우리 세 가족이 한데 모여 이모의 정성 가득한 저녁 한 끼를 나눠 먹으며 오순도순 대화 꽃을 피웠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모가 양념갈비에 넣을 양념을 준비하고 나는 이모 앞에 앉아 군침을 삼키던 그 시절 ….

이모가 좋은 재료만을 넣어 만든 특제소스로 자연스럽고 깊은 감칠맛을 내는 양념갈비처럼 이모 또한 내 인생에 깊고 진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그날은 하루 종일 내 고향 수원과 이모가 생각났다. 행복했던 유년시절과 혼란스러웠던 사춘기 때의 기억들이 내 안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감정들을 복받쳐 끓어오르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과연 양념갈비처럼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어라 답을 할 수 없었다.

영정 앞에서 깨달은 이모의 사랑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서울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때쯤이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촌언니였다. 친구들을 수소문해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내 번호를 아는 친구들에게는 절대 이모네 가족에게 연락처를 주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왜 알려 줬을까?’ 궁금해 하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짓말과 같았던 이모의 부음(訃音). 한 푼 값어치 없던 내 세상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원의 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자, 이모는 영정 속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 활짝 웃고 있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해서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스스로에게 더 자신 있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

영정 속의 이모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괜찮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이모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며 참았던 오열을 토해냈다. 그리웠던 마음의 크기만큼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너무 멀리 돌아와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한스러웠다. 사촌언니가 그런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엄마가 너 많이 기다렸어 …. 가실 때도 네 걱정도 많이 하셨고. 엄마한테 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둘째딸이었거든. 어쨌든 이제라도 네 얼굴 봤으니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가실 거야. 너무 미안해하지 마."

"흑흑흑. 사랑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못했어. 밤낮 없이 속만 썩이고 말았잖아. 그래서 너무 미안해. 그래 놓고는 언니만 예뻐한다고, 난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어. 항상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했던 짓 생각하면 이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흑흑."

"아니야. 현정아. 엄마는 진짜 널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끼셨어. 어렸을 때 기억나? 엄마의 눈과 귀는 항상 너를 향해 있었던 거. 엄마는 내가 반에서 1등을 해도 그저 잘했다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 뭘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너한테처럼 하나하나 지적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너무 서운했어."

"그건 언니가 똑똑하고 뭐든 알아서 잘하니깐 그런 거였잖아."

"나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너랑 똑같았어. 아빠도 없고, 집도 가난했지. 그저 엄마한테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뿐이야. 그런데도 엄마의 시선은 항상 너를 향해 있었어. 기억나니? 언젠가 네가 반에서 20등 안에 들었을 때. 엄마가 그날 하루 종일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잖아. 네가 좋아하는 양념갈비까지 해 주면서 …. 그때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울면서 소리쳤거든. 왜 내가 친딸인데 너랑 나를 차별하냐고. 그런데 그때 한 마디 하시더라. 우리 딸은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고, 현정이는 가슴이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그때 알았어. 엄마가 너를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럼 나한테도 너는 진짜 친동생이 되는 거잖아.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더라. 친동생한테까지 질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너무도 어른스러운 언니의 말에, 그리고 나를 친자식과 똑같이 생각했었던 이모의 너른 사랑에 그만 주저앉아 목 놓아 울어 버리고 말았다.

이모의 상을 치르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고향집을 찾아갔다. 이모가 떠나고 없는 텅 빈 집안. 이모의 손때 가득한 물건들이 한동안 나를 울렸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는 내게 사촌언니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다. 통장 안에는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모가 매달 조금씩 넣어온 돈이 쌓여 있었다. 그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비 대기에도 빠듯했을 텐데,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지 …. 긴 세월이 말해 주듯 통장에는 제법 큰 목돈이 모여 있었다. 다시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통장과 함께 건네받은 편지엔 부모로서 20년을 함께 살면서 느낀 행복과 더 잘해 주지 못한 데 따른 미안함, 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투박하고 예민했던 나의 사춘기

아이들도 나를 닮아 양념갈비를 좋아한다. 이모에 대한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 내 글로 옮겨 담은 오늘,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양념갈비를 만들어 본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속에 어린 시절 내 모습이 겹쳐서 보인다. 행복감이 차오른다.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온다. 당시 이모의 마음도 이랬을까.

이모는 양념갈비는 좋은 고기와 적절한 양념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숙성시키고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굽는 방식에 따라 단맛도 달라지고 풍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모는 양념갈비를 만들고 굽는 일보다 더 예민했던 나의 10대를 그렇게 곁에 서서 정성과 사랑으로 보듬고 지켜 주었던 것이다. 양념갈비를 씹는 입 속에 눈물이 섞여 들어가 단맛을 더한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본다.



지금 내 삶은 잘 숙성되고 구워진 양념갈비처럼
맛깔나고 자연스럽게 익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모~ 제 삶은 지금 양념갈비처럼 잘 숙성되고 있나요?"

나지막이 읊조리니 저 하늘 너머에서
이모엄마가 해맑게 웃으시는 것 같다.

신연정
김정희
노윤영
박순옥
안수희

수원의 인문 씨앗!
독서 모임을 찾아서

수원의 독서 모임 역사를 기록하다

날개가 돋기 전 어린 잠자리는 성충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얼핏 닮기는 했지만, 물속에서 살아야 하니 꼬리 아가미를 달고, 종에 따라 등에는 촘촘한 가시가 돋았다. 그 모습으로 2년 가까이 살다 수십 번 허물을 벗고서야 근사한 날개를 가진 성충이 된다. 물속에서 하늘까지 삶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허물을 벗어 제 모양을 바꾸는 것은, 공룡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잠자리의 생존 비결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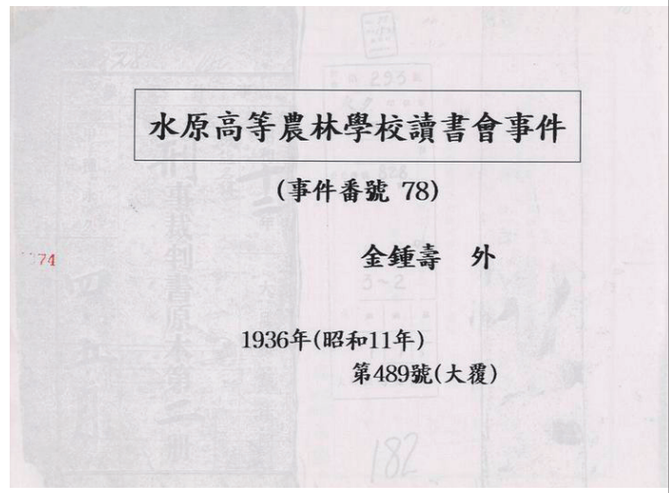
잠자리 생태를 닮은 것이 '독서 모임'이다. 책을 통해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나와 우리를 찾아가는 모임, 시작할 때는 몇 십 년 후의 모습을 감히 짐작할 수 없고, 날개가 돋기까지 물속을 유영하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도 비슷하다.

독서 모임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수원시평생학습관 읽기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다양한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자리, 그렇게 자신의 지평을 넓혀 가는 모습을 보며, 살아있는 인문 정신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수원을 인문도시라 한다면 거창한 도서관이나 박물관 건물보다, 이런 사람들의 독서 모임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것을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수원의 독서 모임 뿌리 찾기, 그 기록을 정리했다.

일단 수원에 있는 다양한 독서 모임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제강점기 '수원고등농림학교' 독서회부터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70년대 말 '수원양서협동조합' 자료를 살폈고, 경기교육중앙도서관에 33년의 역사를 가진 '덩쿨독서회'부터 태장마루도서관에 2년을 갓 넘긴 '철학동아리'까지 도서관에 둥지 튼 독서 모임을 찾았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독서 문화를 빚어낸 '해님달님(현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과 문학, 심리,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 18개의 읽기 모임이 공존하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주목했다. 최근에는 '독립책방'이라는 새로운 독서 생태계가 자리 잡는 중이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소소한 공간에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수원의 독립책방을 찾아 어떤 독서 모임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다섯 명의 공동필자인 우리는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으로 만났다. '나침반'은 저자와 독자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는 기획 강연을 24차례 열었고, 책 읽기와 독서 모임에 관심이 많다. 때로는 사회 비판과 저항의 상징이 되고, 때로는 온갖 지식의 충전소 역할을 하며,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독서 모임을 찾아,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꼼꼼히 기록했다. 우리의 기록을 통해 독서 모임이 인문도시 수원의 소중한 자산이자 씨앗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일제에 저항하다! 수원고등농림학교 독서회

1933년 일제강점기 수원고등농림학교(이하 수원고농)에는 사회주의 비밀결사인 독서회가 조직된다. 수원고농은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고종의 칙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로 경성에서 수원 서둔촌(현 서둔동)의 신축교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한다. 수원고농 독서회는 이용필(李容泌), 최홍기(崔弘基), 김광태(金光泰), 김준강(金浚綱) 등이 중심인물로,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모여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하고 국제정세에 대하여 토론했다. 독서회 활동을 통해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천황에 저항했다. 이론학습을 중심으로 하던 독서회는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러 결국 독서회는 해산한다. 이후 '공산주의자동맹'을 결성해 활동하던 중 일본경찰의 사찰과 감시에 회원 7명이 구속되며 조직은 와해된다. 1939년 결성된 '한글연구회'는 수원고농 독서회를 이어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했다.[1]


水原高等農林學校讀書會事件

(事件番號 78)

金鍾壽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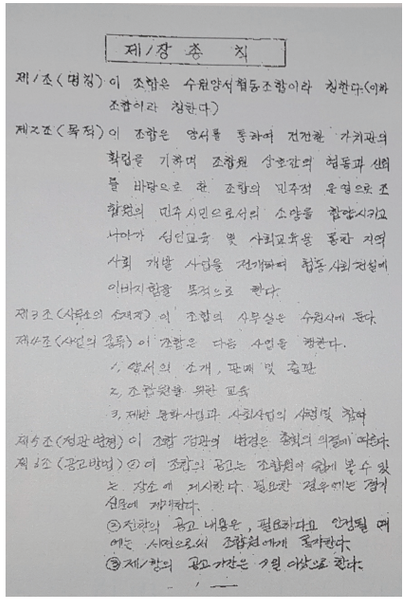
1936年(昭和11年)

第489號(大覆)

수원고등농림학교 독서회 사건 판결문(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제공)

민주화운동의 씨앗을 뿌리다! 수원양서협동조합

양서를 유통하기 위한 소비자협동조합인 양서협동조합은 1970년대 부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조합을 중심으로 펼친 양서운동은 수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9년 서울농대 졸업생인 고정석과 한경호를 중심으로 가톨릭농민회 출신 오익선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백도기 목사 등이 함께 수원양협을 결성한다. 창립 당시 조합원은 50~60명 정도였고 이후 100여 명을 넘기도 했다. 당시 수원에는 아주대학교와 서울대 농대에서 학생운동은 있었지만,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극히 미약하였다. 수원양협은 사무실 겸 직영서점인 '수원 양서의 집'을 수원역 앞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열고 도서 판매와 대출 등 기본활동부터 양협 조합원과 저자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수원의 양심적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수원양서협동조합이라 칭한다.(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은 영서를 통하여 전건전 가치관의 확립을 기하며 조합원 상호간의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으로 조합원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성인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전개함으로 협동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조합의 사무실은 수원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생서의 소개, 판매 및 출판
2. 조합원을 위한 교육
3. 기타 문화사업과 사회사업의 시행 및 참여

제5조(정관 변경) 이 조합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이 조합의 공고는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신문에 게재한다.

② 전항의 공고 내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써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수원양서협동조합 정관 초안(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제공)

지식인과 대학생, 시민들의 모임터 구실을 하던 수원양협은 군사독재 정권의 집중적인 사찰과 감시 대상이 됐고 결국 1980년 여름 해산한다. 수원양협 조합원들은 1980년대 이후 수원의 시민 활동가로 성장해 지역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했다.[2)]

활동기간 2년이 채 되지 않는 수원양협에 대한 자료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2017년 수원박물관에서 발행한 『수원의 민주화운동』(수원근현대사증언자료집)에 수원양협 한경호 전 조합장의 구술이 남아 있다.

"수원역 가는 뒷길에 서점을 얻어 냈는데 보증금이 그때 100만 원이었다. 그 당시 5급 공무원 월급이 9만 원 할 때였다 …. 군사독재정권 치하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민주교육을 받고 올라온 청년세대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변혁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운동이었고, 짧은 기간 존속했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모든 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운동의 불모지였던 수원지역에서 그 씨앗을 싹 틔웠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경호 전 조합장은 강원도 횡성 영락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계간지 『농촌과 목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8년 7월 19일 횡성 영락교회로 전화를 걸어 수원양협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안부를 물었다. 실무자였던 서울대 농대 후배 고정석은 고향인 광주로 가서 이후 소식이 끊어졌고, 노동운동을 했던 유완식은 고인이 됐다고 한다. 현 한민교회 김대희 장로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이사 김대권을 풋풋한 학생 회원으로 기억한다. 사진 자료를 찾기 어렵다 했더니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워낙 시국이 엄혹해 사진을 찍고 할 여유가 없었다 한다. 양협 자료를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몇 차례 이사하며 잃어버려 안타깝다고. 토론할 때 막걸리를 마시며 의견이 다르면 다투기도 많이 다퉜고,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라 문건 만들 때는 일일이 손으로 썼다고 한다. 요즘은 어떤 책을 보느냐는 물음에 북한 관련 책을 보고 있다 한다. 『조난자들』(주승현/생각의힘)과 『선을 넘어 생각한다』(박한식, 강국진/부키)를 추천한다. 양협을 하던 때는 어려워도 사람 냄새가 났다. 지금은 인문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물신을 숭배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다며 한경호 목사는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잊지 않았다.

면담자 |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 신연정

면담일 | 2013년 7월 19일, 전화 면담

구술자 | 한경호(수원양서협동조합 전조합장, 현 횡성영락교회 목사)

책 읽기 33년! 경기교육중앙도서관 '덩쿨독서회'

"넝쿨이 아니고 넝쿨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왜 덩쿨이냐고 표준어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덩쿨이라고 불렀으니까 넝쿨인 거예요"

1970년 경기도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한 경기교육중앙도서관(경기도교육청운영)에는 덩쿨독서회가 있다. 1986년 만들어져 지금은 나이가 33





1990년대 회원들과 함께 춘천 이외수문학관에서(덩쿨독서회 제공)

살인 독서회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회원이 40명이 넘을 정도였다. 도서관에서는 막 생겨난 덩쿨독서회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현재는 1988년 초기부터 함께 한 회원을 포함 12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중 다수가 과천, 강남, 향남 등으로 이사를 했으나 월 2회 독서회 활동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서로의 집안 사정이나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33년의 긴 세월 동안 매주 2회씩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해 왔으니 왜 안 그럴까.

독서회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경기교육중앙도서관은 버스에 책을 싣고 아파트 단지와 주택을 순회했다. 결혼 후 수원에 정착한 새댁이었던 회원들은 순회버스에서 대여해 주는 책을 열심히 읽었다. 방학이면 도서관에서 학부모 대상 강좌도 개설했는데 당시는 한글 맞춤법 개정시기였고 도서관장이 개정된 맞춤법에 대해 직접 강의도 했다. 도서관은 완벽히 덩쿨독서회의 회원들을 사로잡았다. 최고참 회원인 조재명은 "내게 큰돈이 생긴다면 마음속으로 도서관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상상했던 도서관이 바로 경기교육중앙도서관이었다."고 회상한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기교육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장애인 봉사를 통한 소외 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덩쿨독서회는 도서관과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담당했던 김홍남 과장의 지원이 각별했다. 문학관 탐방도 도서관 측에서 마련해 준 프로그램이었다. 이외수 작가도 만나고 김삿갓문학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프로그램이 독서회의 활동에 활력을 더해 주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이끌어 가는 담당자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다. 삼십 년 넘게 독서회 활동을 이어 가는 동력은 아무래도 책을 사랑해서이다. 다수의 모임을 참여해 보아도 책을 읽고 만나는 이 모임만한 곳이 없다고. 책을 선정할 때는 고전, 철학, 미술, 추리소설, 심리학 등 분야별로 추천하는 회원이 정해져 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책을 선정하고 중간에 방학도 한다. 책으로 통하는 벗들이 있으니 다른 모임이 많아도 이곳을 빠지지 않는다. 독서회에 대한 바람을 물었다.



2018년 7월 독서 모임(덩쿨독서회 제공) 33년 한결같이 책읽기가 이어졌다.

"최고령 70대부터 60대까지 독서회 구성원이 나이가 드니 이제 사고가 굳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정하는 책들이 아닌 다양한 책과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싶어요. 새로이 신규 회원이 들어왔다가도 젊은 사람들은 돈벌이가 생기면 그만두거든요. 정말 아쉽고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모임이 오래되다 보니 배타적인 분위기도 느끼는데 회원들 마음은 전혀 안 그래요. 독서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면 담 자 |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 김정희, 노윤영, 박순옥, 신연정, 안수희

면 담 일 | 2018년 7월 16일

면담장소 | 경기교육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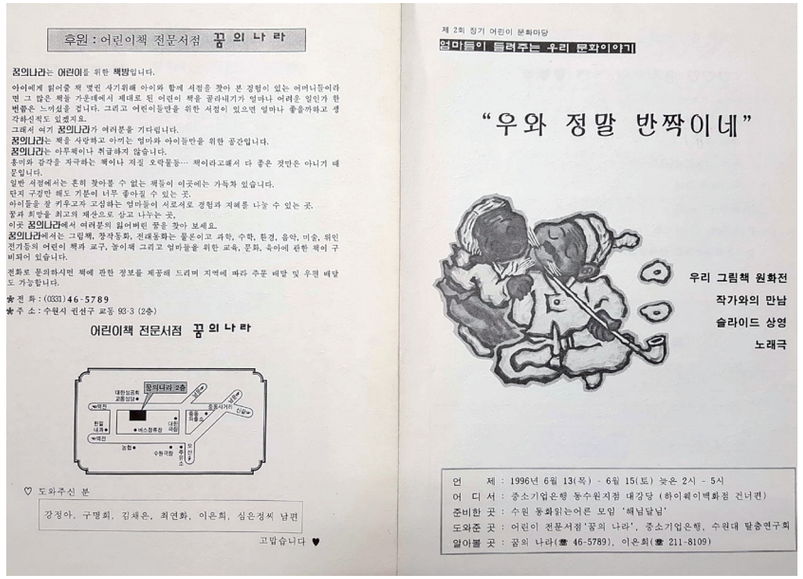
구 술 자 | 조재명(덩쿨독서회 대모), 김혜숙 (덩쿨독서회 회장)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돈을 받고 하는 활동도 아니고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25년 가까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화읽는어른을 거쳐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목적은 아이에게 좋은 책을 찾아주려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내가 좋아서 남게 된 거죠"

서울양서협동조합의 한 갈래였던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어도연)는 1980년 5월 독립단체로 탈바꿈한다. 교사를 중심으로 어린이 문학을 읽던 것에서 부모까지 활동을 연결해 보자는 뜻으로 전국에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 생긴다. 수원에는 1994년 12월 '해님달님'이란 이름으로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 결성된다.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골라 권하고 꾸준히 책 읽어 주기 활동을 하며 어린이 교육문화운동을 한다. 공식 명칭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남부지부 수원지회로 현재까지 25년 동안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25년 전 '해님달님'의 주요 활동무대는 수원역 어린이 책 전문서점 '꿈의 나라'이다. 어도연수원지회 2기 최정숙 회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애들도 어리고 나를 찾고 싶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꿈의 나라'랑 해님달님 알아서 너무 좋았죠. 책방에서 공부하던 거, 책 사서 와서 설레었던 거 생생하게 기억하죠. 수원역 쪽에 꿈의 나라가 있었고 한


후원 : 어린이책 전문서점 꿈 의 나 라

꿈의나라는 어린이을 위한 책방입니다.

아이에게 읽어줄 책 몇권 사기위해 아이와 함께 서점을 찾아 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라면 그 많은 책을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어린이 책을 골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쯤은 느껴실을 것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만을 위한 서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하신적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꿈의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꿈의나라는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꿈의나라는 아무책이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흥미와 감각을 자극하는 책이나 저질 오락물등... 책이라고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책들이 이곳에는 가득차 있습니다.
단지 구경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질 수 있는 곳.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고심하는 엄마들이 서로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곳.
꿈과 희망을 최고의 재산으로 삼고 나가는 곳.
이곳 꿈의나라에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 보세요.
꿈의나라에서는 그림책, 창작동화, 전래동화는 물론이고 과학, 수학, 탐정, 음악, 미술, 위인전기등의 어린이 책과 교구, 놀이책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교육, 문화, 육아에 관한 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지역에 따라 주문 배달 및 우편 배달도 가능합니다.

★전 화 : (0331) 46-5789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교동 93-3 (2층)

어린이책 전문서점 꿈 의 나 라

♡ 도와주신 분

강정아, 구명희, 김채은, 최연화, 이은희, 심은정씨 남편

고맙습니다 ♥

제 2회 정기 어린이 문화마당

엄마들이 들려주는 우리 문학이야기

"우와 정말 반짝이네"

우리 그림책 원화전
작가와의 만남
슬라이드 상영
노래극

언 제 : 1996년 6월 13(목) - 6월 15(토) 낮은 2시 - 5시
어 디 서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 대강당 (하이페이백화점 건너편)
준비한 곳 : 수원 동화읽는어른 모임 '해님달님'
도와준 곳 : 어린이 전문서점'꿈의 나라', 중소기업은행, 수원대 탈춤연구회
알아볼 곳 : 꿈의 나라(☎ 46-5789), 이은희(☎ 211-8109)

1996년 해님달님 제2회 정기 어린이 문화마당 홍보지(어도연 수원지회 최정숙 회원 제공)
어린이책 전문서점 '꿈의 나라' 약도가 있다.

겨레서점이었나, 서점들이 거기 많았어요. 경기서적과 민들레영토도 있었고. 오복서점 남문 쪽 지금은 지하로 들어갔던 데 중고서점도 제법 있었고. 중동사거리 쪽엔 성(城)이라는 극단도 있었고 소소한 문화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남문하고 수원역 사이에."

25살이 된 어도연 수원지회는 현재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해님달님 작은 도서관을 터전 삼아 그림책과 동시, 동화, 옛이야기와 만화 모둠을 꾸리고 독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내용과 형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가을 문화 행사와 작가와의 만남, 일 년에 한 번 회보 만들기,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책 읽어 주기 봉사도 꾸준히 한다. 최정숙 회원은 해님달님 작은 도서관에서 매달 만화책 읽기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최근엔 웹툰으로 연재된 맹기완의 '야



2000년 5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어도연 수원지회 최정숙 회원 제공)

밤의 공대생 만화'를 읽었다. 젊은 세대의 문화인 웹툰을 읽으며 딸 아이 세대, 청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

"어도연에서는 이대로 잘 적응해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느 순간 그만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편안하게 여기 활동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꼰대는 되지 말자. 생각을 많이 하죠."

오래된 독서 모임에서 신구 회원 사이 소통은 중요한 숙제이다. 최정숙 회원 또한 고민이 깊다. 우리가 처음 활동 시작했을 때 정체성만 잃지 않는다면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이라는 슬로건이 담고 있는 정체성만 잃지 않는다면 시대에 따라 뭐든 변화하고 거기에 또 내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책과 함께 굽이굽이 넘어온 25년, 지금 최정숙 회원에게 책 읽기와 독서 모임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칼 융의 책을 독서 모임에서 3년째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 읽는 게 목표예요. 3년 동안 다 읽기로 했는데 5년 걸리겠어. 듣고 다 빠져나가요. 그래도 뭔가 남겠지. 책 읽기는 콩나물 키우는 거랑 같다고 누가 그러던데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하지만 하룻밤 새 콩나물은 쑥쑥 크잖아."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어도연 활동이 나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바뀌었다. 콩나물시루에 물처럼 책 내용은 다 빠져나가더라도 이것만은 남는다. 독서 모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공기와 나를 잘 아는 따뜻한 사람 말이다. 독서 모임은 이런 맛에 하는 거다.

면 담 자 |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 노윤영, 신연정

면 담 일 | 2018년 7월 25일

면담장소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앞 카페 뜰

구 술 자 | 최정숙((사)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2기 회원)

앎에서 실천으로! 희망샘 인문학산책

"지금까지 인문학산책이 올 수 있었던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밥이었어요."
"함께 하는 밥상이야말로 살아있는 인문학이죠."

'희망샘 인문학산책'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3층에 위치해 있는 희망샘도서관 인문학기획단이다. 2009년 인문학 입문을 시작으로 2018년 '목요일의 페미니즘'까지 10년째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절로 마음과 발과 손이 모임 공간으로 향한다는 사람들이다. 매일 먹는 밥과 같은 모임, 건너뛰면 배고프고 끊으면 몸이 상하는 그런 곳. 10년이란 시간이 스며든 결과다. 함께하는 밥상에 일상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진다고 한다. 나이, 성별 제한 없는 12명 정도의 기획단은 인문학은 놀이터라고 말한다. 인문학은 놀이터라니 이미 공부가 놀이가 된 경지에 이른 분들이라는 느낌이다.

희망샘도서관의 '희망샘 인문학산책'(희망샘 인문학산책 제공)



"사람들 보고 밥 먹고 시간 보내면서 놀다 가요. 더불어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뭘 하러 오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보다 서로의 일상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서로를 동지라 부르는 이유를 따로 묻지 않아도 이만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민하는 과정이 끈끈하고, 좋은 '앎'에 착한 '실천'이 뒤따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나와 사회, 그 관계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생활에서 실천하려' 한다. 쌍용차 파업 모금, 밀양 연대, 수원대 노조 파업, 촛불집회 참여도 실천의 일환이다. 공부로 끝나지 않고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사회를 바꿔 가는 일도 함께하려 노력한다. 희망샘 인문학산책 기획단에게서는 실천의 기운이 느껴진다. 밥, 친구 그리고 실천의 끈끈한 연대를 이들에게서 발견한다.

인문학산책이 기획한 강좌

2009년 〈나를 찾아가는 인문학산책〉
2010년 〈내 안의 아시아〉
2011년 〈생명 살림 공동체〉
2012년 〈시민, 시민을 만나다〉, 〈시민, 시민으로 살아가다〉
2013년 〈불안사회를 넘어설 우리의 선택〉
2014년 〈내 일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가만히 … 있을 수는 없다〉
2015년 〈법은 누구의 편인가〉, 〈시민의 국가〉
2016년 〈행복한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사용설명서〉
2017년 〈광장을 말한다〉, 〈우린,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2018년 〈목요일의 페미니즘〉

면 담 자 |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 신연정, 안수희

면 담 일 | 2017년 12월 7일

면담장소 | 희망샘도서관

구 술 자 | 김선영, 김정한, 박종석, 윤혜화, 이상명, 전서영 등(인문학산책 회원)

수원시평생학습관 읽기 모임

우만동에 있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은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학교다.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이곳에 2013년 여름부터 독서 모임이 생겼다. 제일 오래된 독서 모임은 '들길'이다. '서동은 교수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좌' 후 수강생들이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학습관에서 '누구나 학교'를 열고 있는 한상남 선생님이 초창기 멤버다. 그는 들길이 지속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 서동은 교수님의 멘토 역할을 꼽는다. 서동은 교수는 4년 가까이 들길의 친구 같은 멘토로 함께했다. 들길만의 책 읽기 방식이 있는지 물었다.

"책 1권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슬로우 리딩을 하면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요."

느릿느릿 들길을 걷듯 책 읽기도 천천히 간다. 밴드나 SNS를 활용해 질문을 미리 받고 모임 날 토론을 한다. 문학작품을 읽고 나들이를 1년에 4번 정도 가는데, 2018년 8월 모임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안산도서관에서 모임을 한 후 세월호 관련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 다른 들길 회원은 첫 모임을 이렇게 회상한다.



2018 읽기 모임 네트워크 파티 '동네 book소리'(수원시평생학습관 제공)

"2013년은 뜻깊은 한 해였어요. 독서 모임 참여 여부를 묻는 명단에 정성껏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지요. 첫 모임에서 읽은 책은 『피로 사회』였는데 독서 경험도 없고 철학에 무지했던 저에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긍정을 통해 자기를 착취한다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들길 회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묻고 답하는 행위를 하며 인간과 삶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관계란 사람 마음에 길을 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같은 해 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후속 모임으로 '정다운 우리'가 '들길'의 뒤를 이어 시작됐다. 인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이 모임은 1년 공부계획을 미리 세워 수요일마다 학습관에서 모임을 진행하며 매년 문집을 만든

다. 또 다른 독서 모임에 '글항아리 안다미로'도 있다. 고영직 작가의 강의 후 글쓰기를 계속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격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모이고 구성원들도 다양하다. 구성원 중 원년 멤버 4명은 학습관 글쓰기 강좌 가운데 하나인 '내 인생의 글쓰기'를 들었던 분들이 모임의 주축이다. 회원인 닉네임 '느티나무'는 블로그에 글항아리의 역사를 기록해 둔다. 학습관의 오랜 독서 모임하면 '장독'을 뺄 수 없다. 홍기빈 경제학자의 강의가 끝나고 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시작된 모임이다. 이후 분야를 넓혀 최근에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완독했다.

2015년 학습관의 시민인문학교 종강 후에는 더욱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읽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원이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인 모임들이 생기면서 모임은 9개로 늘어난다. '소셜 드림 프로젝트', '시집 통째로 읽기', '인문학 독서 모임 , '눈길', '열린 극장' 등이 생겼다.

그해 12월에는 읽기 모임 네트워크 파티 '동네 book소리'가 열렸다. 독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모임별 소개와 1년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모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모임별 성격과 방향을 알 수 있었다. 2016년 독서토론지도자 양성과정 후 만든 '오독오독'의 이명선 회원은 책은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라 한다. 현재 학습관의 읽기 모임은 18개다. 학습관에서 독서 모임이 활성화된 이유는 읽기 모임 담당자 김재민 연구원의 역할도 컸다. 도요새 책방(현고고장)을 모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지금껏 읽기 모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면 담 자 |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 김정희

면 담 일 | 2013년 7월

면담장소 | 전화 면담

구 술 자 | 한상남(들길 회장), 김재민(수원시평생학습관 읽기모임 담당자)

태장마루도서관 철학동아리, 처락(處樂)

"우리 동아리 이름이 처락(處樂)이예요. 철학 공부 하는 시간이 즐겁고 이곳이 즐거워서 지었어요. 철학은 처락이죠."

수원시 도서관에는 인권, 여행, 인문학, 과학, 미술 등 주제에 맞춰 강의와 동아리 모임이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 태장마루도서관은 '철학 특화' 도서관이다. 그래서 관련 강의가 타 도서관에 비해 자주 열린다.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동양 철학 강의가 열렸다. 반응이 좋아 후속 모임으로 동아리가 결성됐다. 김해영 교수의 열린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고 평균 15명 정도가 나온다. 연령은 30대에서 60대까지다.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이며 포클레인 기사, IT종사자, 전직 수학 강사, 주부 및 교직원 등 직업군이 다양하다. 도서관의 동아리 모임은 여성이 많은 편이데, 이곳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누구나 들

태장마루도서관 철학동아리 '처락'(처락 제공)



어울 수 있는 동아리다. 한 달에 한 번은 외부 강사 특강이 있다. 특강 후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태장마루도서관 관장은 '철학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동아리 열성 회원이기도 한 이봉화 사서가 모임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담당 업무의 연장이 아닌 동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멘토 역할을 하며 모임을 이끄는 김 교수, 철학을 일상에서 배워 가는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 직원. 이 튼튼한 삼각형 안에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 활동 후 가장 큰 변화를 물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점점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여기 오면 위로가 돼요. 내 마음이 여유가 생겼고 가족들을 대하는 것도 편해졌어요. 아내와 사이도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집 분위기도 따뜻해졌죠.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게 돼요"

사람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어려운 글자들이 책에서 나와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어제와 조금 다른 오늘이 있기에 그들은 다음 모임을 기다린다. 그들에게 삶은 철학이고 철학은 삶이다.

태장마루도서관 철학동아리가 공부한 책(처락 제공)



면 담 자 |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 노윤영

면 담 일 | 2017년 12월 1일

면담장소 | 태장마루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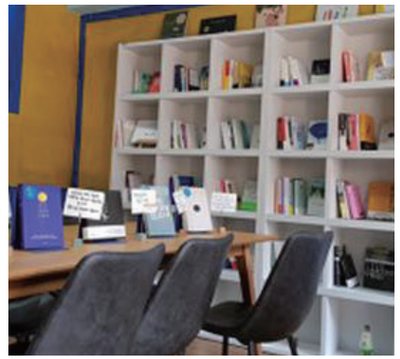
구 술 자 | 박영선, 이봉화, 김해영, 정은영 ('처락' 회원)

'소확행' 독립책방에 독서 모임 깃들다!

현재(2018년) 수원에는 여러 독립책방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형서점의 대형기획들에 지친 소비자들과 시대적 현상인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독립책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독립책방은 운영자가 좋아하는 책을 판매하거나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며 대형서점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북토크, 독서모임, 책을 매개로 한 이벤트 등 책방별로 독창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려고 한다. 서적 판매만으로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리지블루스(리지블루스 제공)







리지블루스 김명선 대표(리지블루스 제공)

그 중 2017년 12월 열어 다수의 독서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독립책방 리지블루스 김명선 대표를 만나 봤다. 리지블루스만의 특징은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과 심리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독특한 콘텐츠를 SNS로 홍보하니 수원뿐만 아니라 멀리 대전에서까지 리지블루스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독서 모임이 제일 어려울 때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 안 될 때라고 한다. 독서 모임 진행은 학창시절 동아리 운영도 해 봤고 회사에서 교육진행도 해 봐서 이런 소규모 모임의 진행은 어렵지 않다. 다만 여러 독서 모임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 각 모임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관리 일이 버겁다.

"앞으로 공간을 대여하는 형식의 모임도 진행해 보고 싶어요. 많은 독서모임의 진행을 혼자 하려니 각각의 모임 관련 서적을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요. 또 심리학 수다 모임도 해 보려고요. 인터뷰를 활용한 에세이 쓰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터뷰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글 쓰는 독서 모임을 콘텐츠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과물로 자기 책 만들기까지 하면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리지블루스의 특화 콘텐츠인 상담은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어울리는 책을 추천해 준다. 두 번째 만남에 추천한 책을 읽어 오면 책의 내용을 같이 이야기 한다. 문을 연지 6개월 남짓이지만 대전에서 오로지 상담을 위해서만 오는 분도 있었고 26번이나 상담을 하고 매우 만족 해 하는 단골손님도 있다고 한다.

운영자는 내담자에게 항상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책을 추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골목책방인 브로콜리 숲은 행궁동에 위치해 화성 행궁을 찾는 여행자들과 SNS를 보고 오는 분들의 발걸음이 많다. 특히 SNS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인터뷰 당일도 안산에서 택시를 타고 왔다는 20대 셋을 만날 정도로 SNS에서는 이미 유명한 명소다. 브로콜리 숲은 2017년 9월 디자인 일을 하던 오랜 친구 둘이 도심에서 바쁘게 살던 삶을 뒤로하고 여유를 찾고 싶은 맘으로 문을 열었다. 브로콜리 숲 역시 북토크, 독서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거의 공간 대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작게는 세 명에서 많게는 열 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다. 그 중 수원맘 모임은 동네 카페를 돌아다니며 독서 모임을 하다가 브로콜리 숲이 문을 열자 책방으로 찾아왔다. 그 후 독서 모임을 책방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 책방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용자는 주로 30~40대 여성이다. 행궁동 주민도 많이 찾는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책방이 나혜석의 탄생지 옆에 있어서 이번 달부터는 나혜석을 주제로 한 기획을 준비 중이다. 그 중 나혜석 독서 모임은 인터뷰 당일 첫모임이 있다고 한다. 책방이 작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할 때는 책방 문을 닫는다. 방문자들은 미리 책방의 문 여는 시간을 알아보고 가야 한다. 여행 중 우연히 찾아 들어와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손님이 반갑다는 책방지기에게 독립책방이 오래 유지되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 물었다.



브로콜리 숲 이경희, 박정민 공동대표(골목책방 브로콜리 숲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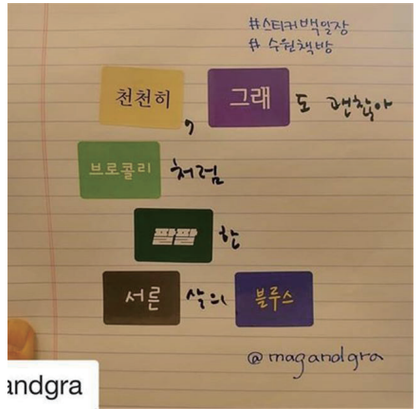




나혜석 생가 인근에 자리해 나혜석을 주제로 한 서가와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골목책방 브로콜리 숲)

"완전한 도서 정가제가 실행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작가님 모시고 싶고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책방을 인터뷰하니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책방에 호기심이 생긴다. 대형서점이나 참고서 위주의 책방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성과 포근함 같은 것. 다른 말로 여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 찬찬히 책을 고르는 시간을 주는 동네 작은 책방은 각자의 다양함에 빠져들게 한다. 사색과 여유가 있는 작은 책방에서 생겨나는 독서 모임과 그들의 무수한 이야기들이 그 나름의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다. 대형화 되어 모두가 같은 모양을 하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 다름을 추구하는 독립책방들이 경영의 어려움에서 안정돼 다양성을 유지하는 사회가 된다면 한층 창의력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독특한 지역 문화가 살아있는 수원이 된다면 나는 더욱 수원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수원 독립책방 스티커 백일장(리지블루스 제공)

수원의 독립책방 : 6곳

마그앤그래	동수원로177번길 90(수원 버스터미널 근처)
서른책방	영통구 영통로174번길 79(망포역 근처)
리지블루스	영통구 매탄로160번길 15(매탄초 근처)
천천히 스미는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52-9(구 노르웨이의 숲)
88AND1	팔달구 매산로 129-7
브로콜리 숲	팔달구 화서문로 32번길 21-10(2층)

면 담 자 |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원 김정희, 노윤영, 박순옥, 신연정, 안수희

면 담 일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7월 20일 금요일

면담장소 | 매탄동 리지블루스, 행궁동 브로콜리 숲

구 술 자 | 김명선(리지블루스 대표), 이경희, 박정민(브로콜리 숲 공동대표)

우리들의 이야기

7월 23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 고고장에서 공동 집필자 5명(김정희, 노윤영, 박순옥, 신연정, 안수희)이 모여 수원학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한 소감을 나눴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과 새로 알게 된 점을 말했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에는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신연정 *대표 집필자와 머리말을 맡았다. 수원고농 독서회사건과 수원양협 및 수원 어린이도서연구회수원지회 해님달님의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제강점기의 수원 독서회와 민주주의 싹을 틔운 수원 양협을 알게 되어 보람 있었다. 수원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더 생겼다. 하지만, 사료와 구술자 찾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횡성에 있는 한경호 목사와 전화 연결이 되어 기뻤다. 목사님은 사진 및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기록이 중요하다.*

김정희 *수원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의 책모임을 조사했다. 학습관에는 책모임이 18개가 있다. 6월에 학습관 책모임 파티 동네 북소리가 열렸다. 다양한 분야의 책모임이 많다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공모 준비하면서 책모임에 가입하고 싶어졌다. 배움이 실천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순옥 *독립 서점인 리지블루스와 브로콜리 숲을 방문했다. 인터뷰를 위해 서점에 간 건 처음이다. 작은 서점 운영의 어려운 점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이었다. 예쁜 외관의 책방을 유지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품이 든다는 걸 알았다. 브로콜리 숲은 독서 모임에 공간을 대여하고 리지블루스 주인은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두 곳 모두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 갔다 온 후 독립서점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서점 소식을 챙겨 볼 것 같다.*

안수희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책 모임인 '덩쿨독서회'와 10년째 인문학 강좌를 기획 운영 중인 희망샘도서관을 방문했다. 현재도 신입 회원 모집 중인 33년 된 덩쿨독서회 회원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반면에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아 아쉬웠다. '희망샘도서관 인문학 기획단'의 배움에서 실천으로 연결된 그들의 연대는 독서 모임의 진화된 모습이다. 오래된 모임의 공통점은 책 사랑과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다.*

노윤영 *태장마루도서관 '처락'을 인터뷰하고 마무리 진행을 맡았다. 이번 공모전 준비하면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다들 책을 사랑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수원의 역사다.*



수원시 도서관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서 모임에 있어 다음 세대와 연결을 위한 기록의 중요성

둘째, 잘 운영되는 도서관과 기관 독서 모임의 공통점은 담당 직원의 열정과 독서 모임을 열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셋째, 희망샘도서관 인문학산책의 경우 책 읽는 모임에서 앎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진화. 기획 강연을 열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책을 넘어 실천의 장이 된 독서 모임의 진화 모델이라 할 수 있음

넷째, 주도적인 삶을 디자인하는 수원 작은 책방들의 시도

다섯째,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수원 독서 모임의 오래된 역사와 수원 시민으로서 자긍심

인문학 도시 수원에는 많은 도서관과 독서 모임이 있다. 책을 매개로 모인 사람들이 많은 도시이다. 수원에는 화성행궁이 있다. 책을 사랑했으며 기록을 중요하게 여긴 정조대왕이 떠오른다. 그때의 기록 『화성성역의궤』로 수원화성을 복원했듯이, 우리의 이번 기록이 수원의 오랜 독서 모임을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는 좌표가 되면 좋겠다. 독서 모임을 씨앗 삼아 인문도시 수원의 문화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1 박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와 학생운동」, 『수원시사 8 :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 차성환, 「잃어버린 진실 양서협동조합 운동의 재조명 2」, 『기억과 전망』 2004년 겨울호.

이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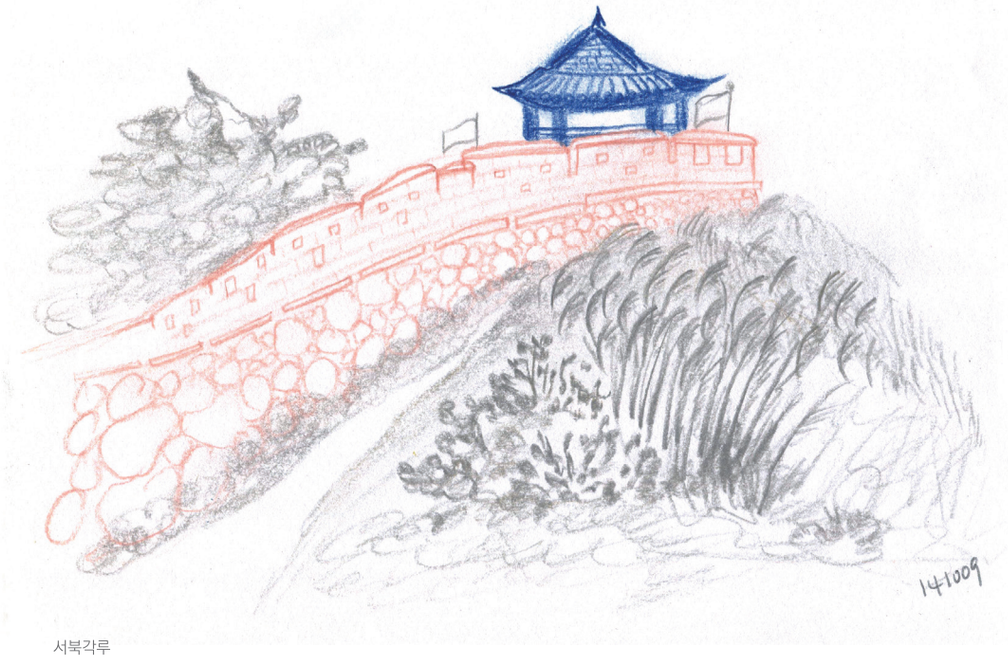
나의 그림 연대기

중학생 때부터 나는 그림으로 먹고사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을 원하셨던 부모님의 반대로 회사에 다니다 어느 날 덜컥 벌어도 내 삶을 살겠다며 본격 프리랜서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 아직 한참 헤매고 있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리리라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진짜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었던 순간은 2014년 한글날, 혈혈단신 그림재료를 챙겨 수원화성을 그리러 나간 날이었다. 당시 '이다의 길드로잉'이라는 그림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길에서 그림 그리는 것에 재미를 느껴 혼자서도 한 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막상 화성에 도착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용기가 안 났다. 주변에 같이 그림을 그리는 수강생이 없어서 인지, 중간 중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인지,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림을 흘끔거리는 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림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엉망진창인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그리고 집에 가야겠다 싶어 선택한 풍경이 '서북각루'였다. 앞으로는 억새풀이 부드럽게 일렁이고 뒤로는 햇살이 맑게 내리쬐는 풍경이 너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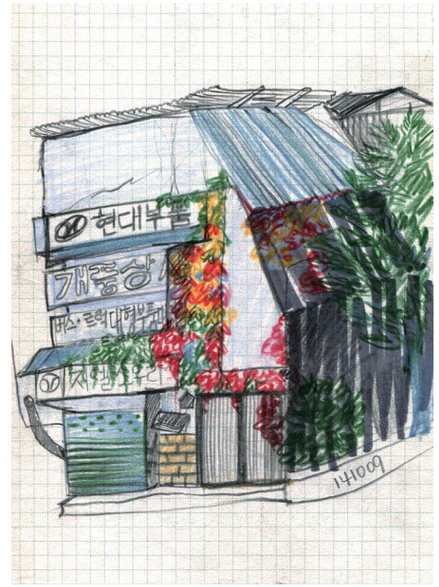


서북각루

아름다웠다.

이어폰을 꽂고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한 장을 완성하고 나니, 왠지 그냥 집에 가기가 아쉬워졌다. 그래서 성곽 길 주변을 걸었다. 수원에 오래 살았음에도 행궁동은 처음 가 봤는데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예뻤다. 수원에 이렇게 개성 있는 건물들이 많았던가? 그날 나는 노란색 청국장 가게와 가파른 슬레이트 지붕이 인상적인 복닥복닥한 건물을 그리고 신이 나서 돌아왔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림 그리러 행궁동으로 놀러 갔다. '서북각루' 다음으로 좋아하는 풍경은 '화홍문'인데, 나는 화홍문의 그 수문이 어찌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날씨가 끝내 주는 어느 날에는 버드나무 잎이 하늘거리는 그 풍경 속에 녹아 있던 내가 마치 청춘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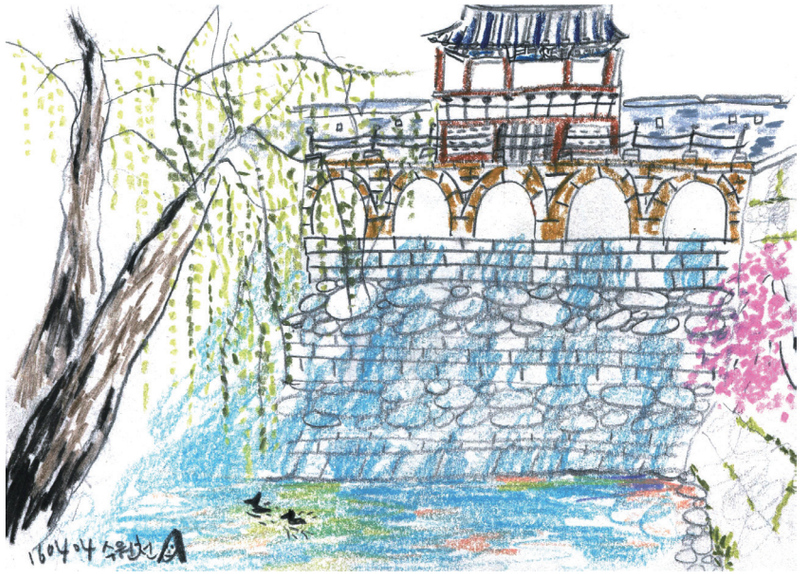
가파른 슬레이트 지붕이 인상적인 행궁동 건물

행궁동 노란색 청국장 가게



던 것이 생각난다. 화홍문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림을 그렸던 것도, 사진가들이 그림 그리는 내 모습을 촤라락 찍어 댔던 것도, 그리고 바위에 개미가 많아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것까지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 그때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원역에 있는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반쯤 지나자 슬슬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보고 싶어 수원역 양꼬치 거리에 있는 공동작업실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 작업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 얼마나 설레던지 작업실 가는 길이 또렷이 생각난다. 버스에서 내려 세무서사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가로수가 어찌나 푸른지, 작업실에서 처음 그린 그림이 출근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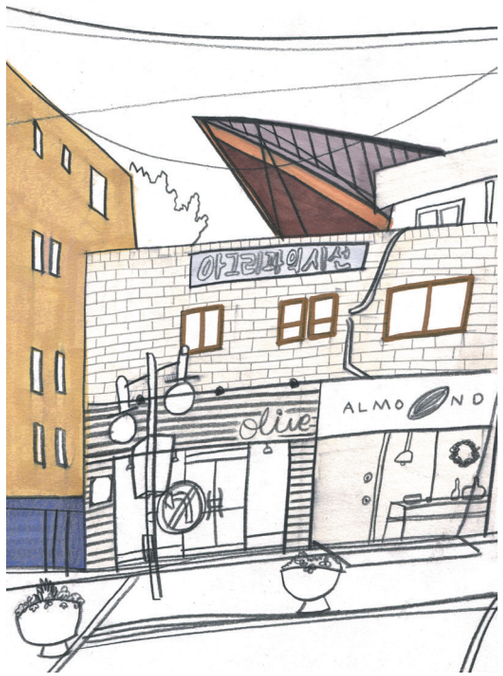
화홍문



작업실 가는 길 가로수

위치가 위치인지라 작업실에 가만히 있으면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많이 들려서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책방에서 1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오전 일찍 나와 열두시 반까지 그림을 그리고 나가면 딱 좋았다. 일하러 가는 길에 양꼬치 굽는 소리랑 향신료 냄새가 어찌나 맛있게 나는지 …

작업실과 책방의 이중생활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까, 갑작스런 건물주의 퇴거 요청으로 작업실을 교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책방과 거리가 멀어져서 처음엔 내키지 않았는데, 작업실 근처를 둘러보니 인프라가 너무나 훌륭했다. 아니, 그전에 나는 그 동네의 조용한 분위기에 반하고 말았다. 작업실 가는 길에 보이는 오래된 화실 간판도 마음에 들었고, 그 뒤로 보이는 수원교회의 뾰족한 지붕도 좋았다.





교동 성공회 수원교회 앞 화실과 부국원 건물

교회 맞은편에는 '부국원'이라는 문화재가 있었는데, 조용한 동네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뭔가 비범하게 느껴졌다. 교동은 동네 분위기부터 예술가의 멋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5분 거리에 화방과 도서관, 영화관, 버스 정류장에 한식, 양식 맛집, 그리고 코앞에 인쇄거리가 있었다. 특히 화방은 서울의 유명 화방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주로 마카로 그림을 그리는 나는 서울보다 저렴한 마카 가격을 보고 횡재한 기분으로 마카를 쓸어 담았다.

작업실을 교동으로 옮기면서, 창작그림책을 준비하는 15년 지기 친구도 같이 작업실에 입주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놀러 가는 기분으로 작업실

에서 만나 맘껏 그림 그리고, 수다 떨고, 밥 먹고 공방거리를 지나 화성행궁까지 산책하며 평소엔 못 했던 속이야기도 하곤 했다. 책방을 관두고 대학 친구와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업실에서 처음 밤도 새 봤다. 한참 슬럼프에 빠져 그림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전시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때였다. 대학 친구는 조형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림에 너무 자신 없어 하자 내 그림으로 미니어처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끼는 성곽 길의 느티나무 그림을 건네줬다. 친구는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형작가 '아랑'과 그림 작가 '단호리'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그 작품을 전시회 메인 작품으로 걸었다. 전시 이름도 패기 넘치게 '아랑X단호리 뜨기직전(展)'이라고 지었다. 전시는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진행되었다. 오랜 벗이자 작업실 동료인 내 친구가 그림 설치를 도

내가 그린 느티나무 그림과 친구가 만든 미니어처(아랑)





와주겠다고 그 새벽에 나와 함께 서울로 가 주었다. 전시 오픈 시간이 되자 첫 전시를 축하한다며 마카롱이랑 쿠키를 잔뜩 안겨 주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찔끔 났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싫어하는 건 아닐지, 아니 아예 관심도 없는 건 아닐지 너무 두려웠는데 예상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진을 찍고, 초콜릿을 사주며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바쁘신 분이지만 꼭 와 주셨으면 했던 길드로잉 선생님까지 오셔서 응원해 주셨다. 그림 그리는 나를 마뜩찮아 하셨던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칭찬도 해 주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고 내 그림을 응원해 주는 것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힘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도 내 그림을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 들자 울컥 목이 메었다. 그림에 확신이 없어서 두려웠다. 그래서 슬럼프가 왔었나 보다.

전시를 무사히 마치고, 작업실 친구와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림 그리기 싫은 날이면 행리단길 카페 도장 깨기를 하거나 화성행궁에서 화성어차랑 자전거택시를 타며 놀았다. 화성어차는 버스 노선이랑 코스가 비슷해서 뭔가 마을버스 탄 기분이 들었는데, 자전거택시는 자전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택시도 아닌 것이 승차감이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벚꽃이 한창일 때 벚꽃코스로 탔는데 자전거택시 기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셔서 재미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성곽에 꽂힌 깃발 색으로 동서남북을 알 수 있다는 점과, 정조께서 도토리묵을 좋아하셔서 정조동상 앞에 도토리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였는데 누가 제안한 건지 몰라도 정말 귀엽고 센스 있다고 생각했다. 맞다, 경기도청으로 마실 나가 벚꽃놀이를 했던 것도 생각난다. 샌드위치를 사서 경기도청 길에 있는 그네에 앉아 한 량처럼 먹고 수다도 떨고, 그림도 그렸었지.

참, 그리고 수원아이파크미술관의 도서관도 자주 갔다. 거기엔 예술 관련 서적이 빼곡히 있는데 최신간도 많고, 외국서적, 사진서적도 엄청 많다. 수원



경기도청 길

시 도서관의 어느 예술서적 코너와 견주어도 양과 질 모두를 압도한다. 게다가 트렌디한 잡지도 꽤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카페처럼 우아한 공간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와서 지금도 종종 놀러 가곤 한다. 대여가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면 미술관 옥상으로 꼭 올라가 본다. 거기서 탁 트인 화성행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 연 날리는 사람,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떠는 사람들 보는 것도 재미있고 팔달산을 색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올해 6월에 교동 작업실 계약이 끝나서, 우리는 행궁동으로 이사를 했다. 행궁동. 이름부터 너무 예쁜 행궁동. 내가 처음으로 그림의 맛을 본 곳이 아니던가. 괜히 4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생각해 보니 행궁동이 많이 변했다. 이 근처에 점집이 많았는데, 점점 행

리단길 카페가 생겨나고 있다. 누가 그러는데, 점집이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한다. 신 모시는 사람들이라 터가 좋아야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작업실 이사 이후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그림이 소개되기도 했고, 공모전에 입상하여 내 그림이 그려진 에코백도 받았다.

작업실 이사 기간에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파일에 정리했다. 2014년에 그린 행궁동 그림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때의 나는 행궁동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보니 이 동네를 그새 행궁동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쩌다 보니 행궁동의 과거가 내 작은 그림에 남겨졌다. 갑자기 내 그림이 더 특별해지는 기분이 든다.

최근 집 앞의 회사에서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퇴근하고 작업실에 오면 6시. 작업실 출근길에 보이는 서북각루가 애틋하게 다가온다. 한껏 그림을 그리고 몸이 뻐근해지면 장안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마실 나온 사

행궁동 카페







수원화성의 밤

람들과 아름드리나무, 그리고 조명을 받아 더 아름다운 동북공심돈과 성곽길을 보노라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퇴근길 버스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면서 짙푸른 밤하늘을 바라본다. 주황색 조명을 잔뜩 받은 동북공심돈과 그 앞의 커다란 나무의 실루엣이 고요하고 신비롭다. 바로 앞으로는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정조 어느 시대의 밤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 마치 뒤얽힌 시공간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풍경을 일상으로 맞이하고 있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다.

요즘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때가 없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 하나하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날이 조금만 더 선선해지면 나는 아마 정신없이 동네를 쏘다니며 그림을 그려대겠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앞으로 그려질 내 그림이 너무 기대된다.

박현우

수원의 아름다운 공원, 그곳을 따라 이어지는 추억들

수원에는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공원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수원시민과 함께해 온 공원도 있고, 한때는 다른 장소였지만 이제는 공원으로 재탄생한 곳도 있다. 이 중 특별한 추억이 담긴 곳과 그 주변에 담겨 있는 사연에 대해 적어 본다.

서호공원

정조의 뜻이 담긴 축만제에서 서호로 이어지기까지

서호는 1799년(정조23)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로, 정조가 축만제라 이름 붙였다.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1990년대 이후 개방되었고, 1996년에 서호 주변에 서호공원이 조성되었다. 마침 다음해 1997년부터는 서호공원 인근에 주공아파트와 한진, 현대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민들이 하나 둘씩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여가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다. 우리 가족도 이 무렵에 이곳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였고, 나는 당시 아파트 근처에서 막 개교한 숙지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서호공원으로 자주 나들이를 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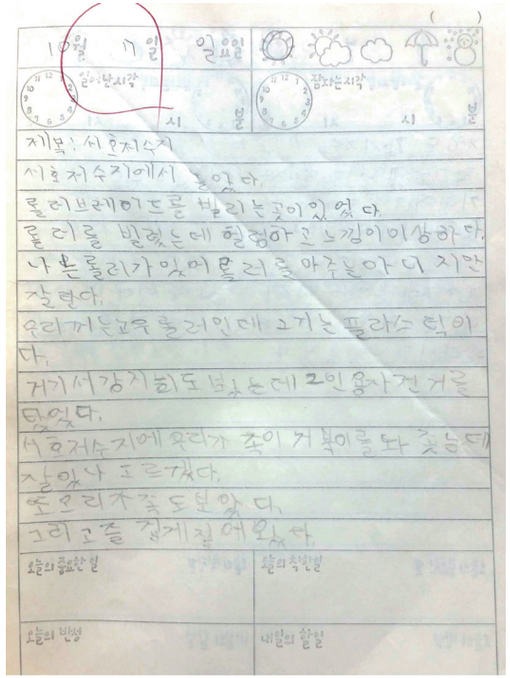
서호 주변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무렵에



예전엔 논밭이었던 서호꽃뫼공원에 있는 자리에서 동생과 함께

서호공원과 함께한 많은 추억들

어렸을 적 처음 찾아간 서호는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유년시절 나에겐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곳이었다. 오리들이 눈앞에서 둥실둥실 떠다니고 저수지 중앙에 위치한 인공섬에서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나에게는 집 앞에 있는 체험학습장인 셈이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서호공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곳에는 롤러스케이트와 2인용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들이 크게 있었고, 핫도그와, 슬러시 같은 먹을거리를 파는 포장마차도 길게 벌어 있었다.



서호공원에 놀러 간 날 썼던 일기

서호공원 입구를 지나면 지금은 서호꽃뫼공원이라는 또 다른 공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때 이곳은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다. 이곳을 거쳐 서호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논밭 사이의 일자로 된 길을 쭉 따라서 가야 했다. 겨울이면 이 논밭 맞은편에서 얼음을 얼려 놓고 얼음썰매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찾아올 만큼 인기 만점이었다. 나도 이곳에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썰매를 들고 열심히 탔던 기억이 있는데, 신나게 썰매를 탄 후 옆에 있는 간이시설에서 컵라면을 먹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다.

장안공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마주하고 있는 장안공원

1979년 수원화성을 복원하면서 만들어진 장안공원은 장안문에서 화서문으로 이어지는 성곽 옆에 자리하고 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만큼 수원시민에게 한결같이 함께해 준 곳이기도 하다.

나는 갓난 애기 시절부터 걸음마를 막 뗐을 때,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까지 가족들과 함께 장안공원에 자주 놀러 갔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이후 이곳의 모습은 내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도 조금씩 변화하였다.

2001년에는 수원화성 관람의 편의성을 위해 지금의 화성어차의 전신인 화성열차가 개통하였는데, 그 화성열차의 전용도로가 장안공원을 가로지르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공원 안에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가 생기는 게 낯설게 보였다. 하지만 화성열차가 막 새로 생긴 후 수원에 놀러 온 친구에게 처음 태워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 공원과 어우러진 성곽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변화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94년 장안공원



1991년 장안공원



1992년 장안공원



1993년 장안공원



1994년 장안공원

그 외에도 어렸을 적엔 장안공원에 있는 서북공심돈과 화서문 사이에 잔디밭과 벤치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넓은 광장으로 바뀌어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과 관광객을 태우고 달리는 자전거택시가 잠시 머무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놀이공간이었던 장안공원

"학교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곳에 와서 친구들과 놀았었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신풍초등학교가 행궁동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 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내 고등학교 동창 정다운 군은 장안공원을 놀이터라고 추억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장안공원을 같이 걸어보며, 장안공원에서 있었던 그의 추억에 대해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동네에서 얼마나 살았던 거야?"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21년 동안 신풍동에서 살았어. 신풍동이 행궁동이라는 행정동으로 통합된 게 2007년쯤이었고, 내가 지금 사는 정자동으로 이사 간 게 2010년이니까 8년 정도 지났지."
"그럼 장안공원은 동네에서도 가까우니까 자주 놀러 왔겠네?"
"맞아. 예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렸으니까."

그는 어렸을 때의 장안공원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었다.

"장안공원은 학교에서도 가깝다 보니 친구들과 여기 와서 자전거도 많이 탔어. 가장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 우리 반 담임 선생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곳으로 반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다 같이 모여서 놀기도 했었어."

또한 그가 대학교에 간 후에는 자기가 이곳의 비공식 홍보대사라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대학교에 막 진학했을 때 당시에는 미니홈피에 사진 올리는 게 유행이었는데, 내가 장안공원에서 찍은 화성 야경들을 많이 올렸었거든,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학교 동기들은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 그래서 내가 화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었지. 그리고 교양시간에 이곳에서의 추억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흥미롭게 들어주셨어."

이후 그의 모교는 바로 옆에 있는 화성행궁의 우화관을 복원하게 되면서 광교신도시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 역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장안공원을 찾아올 일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찾아와 화성과 어우러진 장안공원의 풍경사진을 담는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장안공원은 여가생활의 장소일뿐더러 동시에 유년시절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남아 있다.

장안문에서 있었던 시낭송 행사

장안공원의 끝으로 가면 장안문이 반기고 있다. 장안문은 마치 장안공원과 한 세트와 같은 곳이어서 장안공원에 놀러오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필수코스이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수원화성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면 꼭 장안문을 먼저 보여 주곤 했다. 장안문은 화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문이기도 하고, 사당역에서 오는 7770번 같은 광역버스가 수원으로 올 때 장안공원을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놀러 오는 친구들도 이곳



장안문 앞에서 열린 시낭송회

까지 오는 길이 편리하다고 좋아했다. 무엇보다 장안문의 웅장한 규모와 경관은 서울에 있는 성문들에 견주어도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곳으로 손색없다.

장안문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시를 쓰시는 취미가 있으셔서 시모임에서 활동을 하셨다. 내가 6살이었을 때, 시모임에서 주최한 시낭송 행사가 이곳 장안문 안에서 개최되어서 부모님을 따라 같이 갔던 기억이 있다. 당시만 해도 장안문과 공원과의 성곽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장안문 내부도 개방해 놓지 않았었다. 나는 들어가 본 적 없던 장안문의 내부를 처음 구경하게 되어 마냥 신기하기도 하면서, 왜 이곳에 온지도 모르고 따라갔었기에 부모님이 마이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 멀뚱멀뚱 쳐다본 기억이 있다. 이후 부모님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 주신 후에야 시낭송 행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교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 그 이전에 자리하고 있었던 원천유원지

광교중앙역에서 내려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광교호수공원은 빽빽한 건물들이 가득 들어선 도심 속 삭막함을 없애 주는 고마운 곳이다. 나는 가끔 이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러 가는데, 대한민국 경관 대상을 수상한 명소인 만큼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경치는 낮에 봐도, 밤에 봐도 아름답다.

이곳은 한때 수원에 유일한 유원지였던 원천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다. 오리배가 지나다니던 곳에서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경치를 바라보는 휴식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은 나를 비롯해 수원시민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이다.

원천유원지



어머니께서 추억하시는 여천의 모습

어머니는 광교호수공원이 위치한 곳 주변이, 예전에만 해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불과했다고 말씀하셨다. 호수공원 옆에는 연결된 여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지금은 잘 정비된 산책로가 되었지만 어머니께서 어렸을 적에는 이곳이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이었



원천유원지에 있던 회전목마

다고 한다. 그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보면 물뱀이 나오기도 할 만큼 깨끗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경기대에서부터 이의교 밑에 있는 여천의 개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지금의 광교카페거리와 광교호수공원이 위치한 곳까지 이어져 있는데, 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어디가 끝인지 호기심을 갖고 한없이 걸어가 보셨다는 추억도 얘기해 주셨다.

원천유원지에서의 마지막 추억

나는 어렸을 적 가족과 함께 이곳에 나들이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다. 놀이공원 옆에는 사격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인형을 상품으로 타서 주신 적도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오리배를 탔던 추억도 있다.

특히 유원지 옆에는 파도풀장이 있었는데, 여름에는 유치원에서 소풍장소로 놀러 가기도 하였다.

광교호수공원이 생기기 전 원천유원지로 불리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찾아간 건 2000년대 초반, 원천유원지 근처에 있는 경양식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돈가스를 먹었던 날이었다. 2층엔 라이브카페가 있는 구조였고, 주변엔 찻집 같은 건물이 몇 개 보였을 뿐이어서 지금은 도시 외곽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드디어 유원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치원에서 원천 파도풀장에 소풍 간 날

마지막으로 본 그곳의 모습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원천유원지에 있는 놀이공원 안에는 솜사탕 등의 먹을거리와 포장마차같이 꾸며놓은 음식점도 그대로 있었고, 범퍼카나 디스코팡팡 같은 놀이기구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2008년경 광교신도시의 착공으로 원천유원지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한때 수원시민들에게 이곳은 아이들의 소풍장소,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다.

도심 속의 공원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휴식공간이 되어 왔으며, 광장을 뛰어 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변함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이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지나가는 길의 일부이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신이 추억하는 모습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기억 속으로 남겨야 할 만큼 변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그 추억은 분명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종철

ㅇㅈㅊ

나혜석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몇 가지 것들

나혜석과의 조우

나는 수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바로 옆에 둔 화서동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기에 화성과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하다. 정조에 의해 축성된 수원 화성은 백성을 두루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효가 깊기로 유명한 그의 정신이 잘 투영되어 있다. 수원을 효원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 역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화성 성곽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성곽의 안팎을 일상적으로 넘나들면서 수원 곳곳에 스며든 역사와 인문 정신을 체득할 수 있었다.

수원이 배출한 여러 역사 인물이 있겠으나, 근현대에 이르러 예술적, 문화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나혜석이다. 수원에는 현재 나혜석의 이름을 딴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해마다 그녀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혜석은 우선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이던 시절, 여러 언론에 소설과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표한 문학인이었으며, 억압받는 한국 여성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 여성주의자, 여성운동가이기도 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여행가로서의 나혜석의 모습도 있다. 즉 나혜석의 활동 영역과 그 성취는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그녀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처럼 젊은 시절 나혜석의 재능과 성취, 경력은 무척이나 화려하고 강렬한 데에 비해, 그녀의 말년은 너무나 쓸쓸하고 안타깝다. 생전에도 그녀는 수많은 비판과 편견들과 마주해야 했으며, 그로 인한 시련과 상처도 무척 깊었다.

내가 나혜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초반으로,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시절이었다. 나혜석의 그림과 글, 그리고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으며, 그녀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이 더해져서 커다란 관심과 애정이 솟구쳤다. 마침 그즈음부터 나혜석에 대한 재조명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컨대 수원시에서 나혜석 기념비를 세우는 등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고,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나혜석을 문화 인물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오늘날 나혜석은 여전히 뜨거운 인물이고, 아직 온전히 알려지지 못했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경탄과 동시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조명되어야 하고 새로 발견되어야 한다.

수원이 잉태한 예술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역시 수원화성이다. 한국 성곽의 아름다움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정조의 효심이 깃든 화성은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한다. 자, 그리고 수원(水原)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물이 많은 도시다. 우선 수원 시내를 관통하는 수원천이 있다. 수원천은 화성의 안쪽을 가로지르며 흐르면서 사람과 자연을 키워내고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 화홍문 등은 성곽과 물이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완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원에는 호수가 많다. 수원을 대표하는 산인 광교산에서 발원한 광교호수를 비롯하여 그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높은 서호, 원천호수, 일월저수지, 만석공원호수 등 곳곳에 호수가 많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곽과 산과 호수, 시내가 어우러지며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을 간직한 수원이니, 필연적으로 뛰어난 예술가를 잉태시키고 키워낼 만한 곳이라 하겠다. 바로 나혜석이 이에 응답한 인물이다. 수원은 뛰어난 화가이자 문인이며, 동시에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그리고 답답한 시절 억압받는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여성주의자인 나혜석을 배태했다. 나혜석이 태어난 곳은 화성의 화서문 바로 안쪽에 위치한 행궁동, 혹은 신풍동으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산 기슭으로, 근처에는 행궁이 있고 화서문이 있는 이곳은 인문의 향기가 짙고 멋진 풍경을 지닌 곳이다. 나혜석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웠을 것이다. 즉 수원은 그녀에게 많은 영감과 소재를 제공했을 것이다.

나혜석의 그림 중에 수원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 몇 점 있다. 수원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아름다운 호수 서호를 화폭에 담았고,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화홍문을 그리기도 했다. 또한 어느 호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원의 한 호숫가의 풍경을 멋지게 담은 그림도 있다. 나혜석은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그녀가 나고 자란 고향 수원이었을 것이다.

나혜석은 그 어렵던 시절, 더구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제한되던 그 시절에 도쿄 유학을 하고, 또 3년간 세계 곳곳을 여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당시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경험이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혜석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그에 더해 나혜석의 고향 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문적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나혜석의 내면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얼핏 나혜석의 세계관이 견고한 남성 중심사회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저항으로 일관한다고 생각하기 쉬

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나혜석의 내면을 채우는 여러 요소 중에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및 낭만주의, 자유연애 등과 휴머니즘, 심미주의 등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 원형에는 아름다운 고향 수원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82년생 김지영, 미투, 그리고 나혜석

최근 한 권의 소설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인데, 한 여성이 어릴 때부터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받은 차별과 억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요컨대 여전히 견고한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 문제, 변치 않는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고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 강하게 불고 있는 이른바 미투 운동의 열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런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의 상황과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추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100년 전 나혜석과 만나게 된다. 즉 나혜석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 선각자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여성주의 운동의 열기에 더해 올해 나혜석 사망 70주기가 맞물려 출판계와 전시계, 공연계에서 나혜석에 관한 다양한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나혜석이 당시의 전근대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강한 비판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글이 바로 『이혼고백서』이다. 때는 1934년, 남편과 이혼한 나혜석은 자신의 순탄치 않았던 결혼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겉과 속이 다른 남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습과 도덕을 통렬히 비판한다. 이 글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자, 그로부터 80여 년이 흘렀고, 나혜석의 외침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말이요.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인형의 집, 세상의 냉대 속에서 여성을 외치다

개인적으로 나혜석의 여러 글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글이 『인형의 가』이라는 시다. 주지하듯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기를 보내던 당대의 여러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를 겪던 아시아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사회 변혁, 여성 해방, 자아 각성은 아시아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던 나혜석에게도 "아내, 어머니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노라의 외침은 절절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동시기 중국에서도 입센의 작품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노신, 호적과 같

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입센의 작품을 소개, 언급하면서 중국 사회의 구태의연한 관습과 도덕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장애령, 소청 같은 당대의 여성 작가들도 노라를 여러 번 언급하며 변혁과 여성 스스로의 각성을 외쳤다.

변치 않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나혜석의 일생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시대적 맥락 위에서 나혜석의 시 『인형의 가』와 그녀의 주장이 다시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 논
장벽에서
견고히 갇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 주게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 다오
많은 어둠 횡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나혜석을 멋지게 추억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혜석은 아직 온전히 소개되지 못했다. 물론 최근 여성 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선각자로 지목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혜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다방면으로 펼쳐진 나혜석의 재능과 성취는 동시대 어느 나라 어느 누구와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나혜석은 시대와 불화했던 신여성 혹은 파격적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먼저 기억되는지 모르겠다. 나혜석이 남긴 뛰어난 성취와 시대정신은 이제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그 역할은 우리 후배들의 몫일 것이다.

나혜석의 고향인 수원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나혜석 문화제 등이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규모로 키워야 한다. 또한 좀 더 세분화하여 그림, 문학, 여성주의 등의 각 분야에서 나혜석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행사를 다각적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나아가 동시기에 활동했던 세계 속 여러 인물들과도 연계해서 함께 재조명되는 기회를 가지면 더욱 좋을 것 같다. 가령 동시기 중국에도 누드화를 그려 폐쇄적인 중국 사회와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항거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 반옥량이라는 화가가 있다. 나혜석도 많은 누드화를 그려 시대의 금기에 도전한 바 있다. 반옥량과 나혜석을 비교, 검토하면 주목할 만한 여러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듯 나혜석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부분은 너무나 많다. 차차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또한 꼭 수원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김미경

ㄱㅁㄱ

푸른지대에서 보낸 나의 푸른 시절, 신혼

결혼 후 평생 살게 된 수원

1978년 가을, 25살에 집안 어르신의 중매로 수원 남자를 만났다. 성남에 살며 수원 이모를 뵈려고 몇 번 와 본 것이 수원에 대한 내 기억의 전부였다. 서울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8살에 가족들과 함께 성남으로 이주해서 결혼 전까지 7년을 살았다. 어머니와 함께 수원에 사는 이모를 뵈러 갔던 수원은 서울에 비하면 도시라고 부르기 부족했고 성남보다 발전이 많이 된 도시 같았다.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를 타고 수원을 향했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소중했던 친구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항상 장녀라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놀러 다닐 형편이 안 되었다. 3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며 남동생 3명을 키웠다. 악착같이 살아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다. 그래서였는지 결혼적령기쯤 중매를 주선한 수원에 사는 이모님은 맞선에서 만날 남자의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가 이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며 번듯한 직장이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셨다.

서너 번의 만남 후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주도로 결혼 날짜가 정해졌고 첫 만남이 있었던 그해를 넘지 않기 위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후







1978년 결혼식

에 딸이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3번 만나고 결혼했어.”라고 말하니 딸이 ‘결혼’처럼 중요한 결정을 왜 그리 쉽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딸에게 “그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라고 말하며 웃었다. 매산동 인근에 모여 있는 시댁 식구들 집과 가까운 경기도청 입구에 위치한 원앙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나의 푸른 시절, 신혼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탑동에 있는 신혼집으로 향했다. 낯선 수원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신혼살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번듯하게 지어진 신혼집은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사업을 하시던 시아주버니가 지으신 집이었다. 결혼 후에 시댁형님들에게 들어 시어머니께서 결혼 준비를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탑동에 있는 집을 남편 명의로 해 주고 싶은데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에게 집을 줄 수 없다고 둘째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좋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혼사를 서두른 것이었다. 신혼집은 슬래브(slab) 주택(바닥이나 지붕을 한 장의 판처럼 콘크리트로 부어 만든 주택)이었고 대지 50평에 건평은 25평 정도의 크기였다.

둘째 시아주버니가 탑동에 소유하고 있는 복숭아밭에 6채의 주택을 지었고 그 중 하나를 남편에게 준 것이었다. 구운동 가는 길로 6개의 슬래브 주택을 나란히 세웠는데 이곳에 주택을 지으면서 골목과 주택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주변 이웃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골목의 소유주가 골목을 막아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여 밤낮으로 이웃들과 큰소리고 싸움이 있었다. 결국 남편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골목 땅을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



1977



1981



2018

복숭아밭에 나란히 6채가 지어진 푸른지대의 신혼집(1977년, 1981년, 2018년, 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81년 탑동 슬래브식 주택 안마당과 옥상(탑동 321-20번지)

푸른지대에서 자란 아이들

집 주변에는 포도밭, 딸기밭,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남편은 두 아이와 종종 그곳에 놀러 가 사진을 찍어 주곤 했다. 이곳은 '푸른지대'라고 불렸는데 1970년대에 아베크족(연인)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었다. 신혼살림을 하던 1980년대에는 수원에 원천유원지나 용인에 자연농원 같은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외곽의 놀이시설로 많이 빠져나가서 외지인들이 동네에 많이 방문하지는 않았다.

서울농대의 탑동 쪽 문으로 나오면 그 일대가 전부 소와 닭을 키우는 농장이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닭의 달걀이 모이면 농장 관리인은 이것을 모아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종종 달걀을 사러 농장에 방문했었다. 여름에는 농장의 가축들의 사료용으로 재배하던 옥수수가 여물면 주인들이 주민들에게 옥수수를 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여름이면 농장 주변의 잘 익은 옥수수를 따 와서 가족들과 여름별미로 먹었다.

여름에 포도송이를 따서 포장을 하다 떨어진 포도알을 모아서 킬로그램 단위로 싸게 팔면, 그것을 사와 아이들 간식으로 주고 남은 것은 포도잼을 담그거나 포도주를 담가 먹었다.

신혼의 단꿈과 고단한 시집살이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마자 신혼의 단꿈을 즐길 겨를도 없이 시댁 집안일을 돕느라 손에 물이 마를 틈이 없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가정집에 전화기가 흔치 않아서 연락이 쉽지 않았다. 신혼집에는 전화기가 없었지만, 시어머니 댁에는 전화기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손이 필요하면 남편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서 다음 날 집에 와서 일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남편에게 연락해서 말씀









푸른지대 파라솔과 소나무 숲

하셨다. 남편이 퇴근해서 시어머니 댁에 가야 한다는 말은 전해 주면 그날 밤은 잠이 편히 오지 않았다.

결혼 후 4년이 넘게 일주일에 2~3일은 방앗간을 하는 시댁의 집안일을 도와 드리러 시댁과 신혼집을 수시로 오가야 했다. 추운 겨울에도 탑동 신혼집에서 집안일을 마친 후 경기도청 인근에 있는 매산동 시댁에 가기 위해서 서울대 농과대학 정문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시댁의 일을 마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욕 잘하고 사나운 것으로 손에 꼽힌다며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그렇게 밤마다 눈물을 훔치며 두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매산동에서 탑동으로 건너왔다.

197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수원화성

겨울에는 화성, 여름에는 삼풍수영장

딸이 결혼하고 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푸른지대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그때와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때는 동네에 차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동네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았다. 또래의 동네 아이들끼리 밖에서 노는 것이 불안해 한 적이 없는데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삼풍수영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 보러 마트에 가지만, 40년 전에는 장 보러 전통시장을 가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러 매산시장이나 남문시장에 갔었다. 주로 매산시장은 반찬거리가 필요할 때 갔고 남문시장은 옷이나 신발 등의 여러 살림살이가 필요할 때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이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트리를 사러 갔다. 매산시장보다 남문시장은 훨씬 복잡해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다니거나 시장 입구 양장점에 아이를 맡겨 놓고 장을 보았다.

고단한 시집살이와 신혼살림을 꾸려 나가며 아이 둘을 키우다 보면 나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진다.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 밤이면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 소풍 가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주중에 직장에 시달려서 피곤해 쉬고 싶어 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주말이면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원천유원지나 화성으로 소풍을 갔다. 여름에는 이목동에 있는 삼풍가든 안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남편 친구의 아이들이나 조카들하고 물놀이를 했었다. 그 당시 수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였는지 삼풍수영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결혼 후 평생 살게 된 수원의 추억

지난 6월 말, 딸 내외와 함께 서울대 농과대학이 있던 곳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갔다. 숲이 울창한 농대 캠퍼스를 보니 푸른지대에 살면서도 대학 캠퍼스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40년이 지나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는 캠퍼스에 들어와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곳은 시간이 멈춰 있는 듯 느껴졌다.

행사를 마치고 탑동에 맛있는 고기집이 있다고 하여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 직접 와서 고기를 친절하게 구워 주시는 사장님께 말을 걸었다. 40년 전에 이 동네 살다가 오랜만에 이곳에 왔는데 참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사장님은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고 부모님이 에덴농원이라는 딸기농원을 했었다고 말했다.

에덴농원은 푸른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어본 유명한 농원이었다. 농원자리에서 고기집을 하다가 탑동 먹자골목으로 옮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 참으로 반가운 인연이었다. 딸도 에덴농원이 기억이 난다며 웃으며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40년이 지나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정겨운가!

40년 전 수원 남자와 결혼해서 수원에 정착하게 되어 탑동의 푸른지대에서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65가 되었다. 푸른 하늘



상상캠퍼스(옛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개최된 행사 포레포레

아래에서 딸 내외와 손녀가 손잡고 걷고 있는 풍경을 보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40년 전 푸른지대에서 살았던 당시 신혼의 푸른 꿈과 고단했던 삶을 기억하며 웃을 수도 있게 되었다.



생고기 전문점으로 바뀐 에덴농원(http://blog.naver.com/okkyujin/40104393771)

박지아

박지아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나는 수원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수원 토박이'가 아닌 것이다. 9살 때까지는 부산에서 살다가 아버지 직장을 따라 수원으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내 나이 21살까지 쭉 수원에서 살고 있다. 내 인생의 반은 부산에서, 나머지 반은 수원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제 수원에서 살게 된 지 12년차가 되어 가는데 수원에 특별한 애정이 생기게 된 것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근 2년 동안인 것 같다. 수원 내에서도 가정상의 문제로 이사를 4~5번 정도를 하면서 나름 수원의 곳곳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럼 내가 12년 동안 보아 온 수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낯선 수원, 육상부를 통해 정을 붙이다

처음 수원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영통구 매탄동에서 살았다. 부산에서 정들었던 친구들과 친척들을 떠나와서 수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원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부산이 훨씬 좋아.'라는 생각이 내 마음 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수원으로 이사가는 부모님이 미워서도 일부러 수원이 더 싫다고 되뇌이며 다녔다. 학교에서 혼자서 사투리를



산남초등학교(산남초등학교 제공)

쓰는 것도 싫었고 섬에 살며 바다에 놀러 다니던 꼬마가 바다에서 놀지 못하는 것도 꽤 큰 스트레스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수원이라는 곳에 정을 붙이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육상부를 하면서이다. 부산에서는 조그마한 학교를 다녀서 육상부라는 개념이 없었다. 운동을 좋아하던 내가 수원에 있는 '산남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육상부였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를 알아보시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육상부를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8시 40분까지 등교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일 육상 연습을 위해 7시까지 학교를 가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도 6시까지 남아서 육상 연습을 했다. 육상부를 하며 학교에 정을 붙이게 되었고 '산남초등학교'라는 글씨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수원시 육상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부산의 동삼초등학교가 아닌 수원의 산남초등학교가 나의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운이 좋게 수원시 육상대표로 뽑혀 '수원'이라는 글씨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수원이 내 도시이고 내가 수원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부산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잊어 가며 수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미동(미디어동아리), 수원으로 들어가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육상부를 그만두게 되었고 수원에 대한 특별한 마음도 거의 없어졌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수원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영통구 매탄동에서 팔달구 우만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의 창룡문 연무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화성 성곽 근처에 사는 것은 처음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매우 신기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수원 치킨골목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가족외식으로 치킨을 자주 먹으러 간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우만동의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별 감흥이 없어지던 찰나에 새로운 흥밋거리를 발견했다. 매탄동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우만동에 살면서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 운동을 하러 가다 보니 우연히 '수원청소년미디어동아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평소에 방송,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솔깃했었다. 우리 동아리부원끼리는 '수원청소년미디어동아리'를 줄여서 '미동(미디어동아리)'이라고 부르는데 운 좋게 미동 모집기간이라서 1차 서류, 2차 면접 과정을 통해 중학교 3학년 때에 미동12기로 뽑히게 되었다.

나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생활에 대해 요약해서 말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미동'이라고 말할 만큼 열정적으로 미동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다시 수원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 미동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뉴스제작, 디지털타임캡슐, 대한민국청소년영상대전과 같은 행사들이 있었다. 청소년 뉴스제작은 수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슈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브리핑하는 뉴스를 만드는 활동이었고 디지털타임캡슐에서는 재개발되거나 새롭게 바뀌기 전의 수원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서 타임캡슐처럼 남겨 두는 활동을 했다. 대한민국청소년영상대전은 수원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영상대전으로 수원지역 학생은 물론 전국에서 영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작품을 출품해서 시상하는

행사였다. 미동에서 했던 모든 활동은 하나같이 좋지 않은 활동이 없었고 모두 의미 있는 활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몇 가지의 활동이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의 하나는 처음으로 내가 연출을 맡았던 뉴스꼭지이다. '수원의 장인을 찾아서'라는 컨셉으로 뉴스의 한 꼭지를 내가 맡게 되었는데 '수원에는 어떤 장인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꼭지였다. 사전조사를 하다가 수원에는 한옥의 창호를 만드시는 창호장인 무형문화재 '김순기 장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순기 장인'을 인터뷰하고 싶어서 촬영 전에 허락을 받으려고 찾아갔지만 2번이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결국 계속 설득하고 부탁드려서 인터뷰를 받아내게 되었다. 장안문 근처에 '김순기 장인'의 작업실에 찾아가서 창호를 만드는 것도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복궁의 창호와 수원화성 근처의 목조 건축물들의 창호도 '김순기 장인'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원에 살고 있었지만 전부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수원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김순기 장인'이 작업하신 창호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곳에서 오프닝을 찍기로 했다. 수원에 살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수원의 장인을 찾아서'라는 뉴스꼭지를 연출한 이후로 내게 수원화성이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다. 버스를 타고 장안문을 지날 때면 괜히 김순기 장인의 작업실 쪽을 한번 쳐다보게 되고, 수원화성 내부를 볼 때도 창호를 보면 '이것도 김순기 장인이 만드신 걸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무심코 지나다닌 화성이 조금 더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이도록 해 주고 수원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계기였다.



김순기 장인

특별한 등굣길,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다니 …

고등학교는 화서문 근처에 위치한 영복여자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우만동에서 영복여자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려면 버스를 타야 했다. 버스를 타면 창룡문-장안문-화서문 총 3개의 화성의 문을 지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화성의 4대문 중 3개의 문을 지나며 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수원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영복여자고등학교의 여고생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내가 우만동에 살지 않았더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경험이고 남들은 해 볼 수 없는 경험이지만 그 당시에는 나의 등굣길이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이자 수험생들의 생활이 그렇듯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 버스 안에서는 잠을 자거나 단어를 외워야 했다. 내가 지금 창룡문을 지나고 있는지, 이제는 장안문을 지나고 있는지, 화서문에 도착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창룡문, 장안문, 화서문은 단지 정류장 이름일 뿐이었다. 주말에 체력을 기를 겸 산책을 다니던 화성성곽 길과 팔달산 산책로, 광교산도 나에겐 특별한 의미는 아니었다. 그냥 산책로였다.

그런데 '아, 내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등굣길을 가졌고, 특별한 곳에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했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수능 하루 전날이었다. 매일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하고 어두워졌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멍을 때리며 왔었다. 그런데 수능 하루 전날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학교가 일찍 끝나고 선생님들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어두운 밤이 아닌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밝은 대낮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바라본 바깥 풍경이 너무 예뻤다. 화서문로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성곽이 너무 예뻤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성곽을 쭉 봤는데 갑자기 화성이 달라 보였다. 화서문-장안문-화성행궁-창룡문연무대-창룡문 이 코스대로 버스가 달리며 보여 주는 풍경을 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등교했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에서야 알았구나.' 깨달았다.

수원의 매력을 알게 되다

다행스럽게 대학을 한 번에 붙어서 서울로 통학을 하게 되었다. 대학교를 서울로 가면서, 그리고 동생이 광교 쪽에 있는 이의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우리 집은 다시 한 번 팔달구 우만동에서 장안구 연무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연무동으로 이사를 가서 가장 좋았던 점은 서울로 가는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과 도보로 7분밖에 안 걸린다는 점이다. 수원에 사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꼈던 것이 서울로 통학하기에 교통이 편하다는 점이다. 다른 대학교 친구들은 너무 멀거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는데 나는 비교적 쉽게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한다.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좋은 것을 떠나서 매탄동, 우만동, 연무동 중에서 나는 연무동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다. 집 바로 뒤에는 산이 있어서 창문만 열면 산이 보이고 걸어서 5분만 내려가면 연무시장이 있어서 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집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산책가기에도 너무 편하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연무동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재미에 살고 있다.

대학교에 간 후, 나는 수원의 새로운 매력을 많이 알게 되고 수원에 더 애정이 생긴 것 같다. 대학교 교양수업 중에 집 근처 박물관을 견학하고 보고서를 쓰는 수업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 가 보게 되었다. 나는 그냥 수원화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조그마한 박물관일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수원 사람이니까 수원화성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화성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고 타도시인들이나 수원화성박물관을 견학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동북공심돈(수원시 포토벵크 제공)

다. 일단 박물관은 내 생각보다 꽤 컸고 화성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수원화성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 건축술, 의상, 화성의 연례행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박물관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심돈이었다. 공심돈은 고등학교 때 내가 등교하면서 매일 보던 건축물이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심돈 앞에 있는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었었다. 그런데 나는 그 건축물 모양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심돈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용도가 조선시대 때에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고 대포나 총을 쏘는 용도였다고 하는데 전형 상상치도 못한 용도여서 놀라웠다. 설명을 읽고 보니까 공심돈에 왜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 그 네모난 구멍으로 총이나 대포를 발사했겠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었다. 수원화성박물관을 견학하고 집에 돌아와서 쓰는 보고서에도 나는 다음과 똑같은 구절을 썼다. "내가 화성에 대해서 진짜 무식했구나, 타도시의 친구들이 놀러 와서 물어봐도 나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서에 써서 제출했다. 그런데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다. 수원의 맛집, 수원의 놀거리는 많이 아는데 화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오히려 수원에, 그리고 화성에 더 많은 애정이 갔다.

대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보다 여유가 많이 생겨서 수원의 여러 문화체험과 여러 곳을 다녀 볼 기회가 많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점점 수원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정이 가는 도시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중이다. 종각에서 치는 종소리도 들어보고 가을이 되면 화성행궁에서 연날리기도 해 보고 등불축제에도 가보고, '수원 방문의 해' 행사 때 조수미 님을 보러 다니면서 '나는 수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문화행사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포스터도 유심히 보면서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최대한 누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번 '수원시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것도 내가 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갈 번한 수원의 행사와 기회를 찾아다니며 수원이 살기 좋은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이다.

인생의 거의 반을 수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 보지 못한 수원의 곳이 많고 아직도 모르는 수원의 매력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수원의 매력을 찾아가며 나는 수원에서 살아갈 것이다. 나의 학창시절을 수원과 함께하며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행운이었음을, 잊지 못할 추억이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심보영

ㅅㅂㅇ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의 인생 언제나 봄이길

봄이 왔다

겨울 내내 입었던 무겁고 어두운 옷보다 오늘만큼은 좀 더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한다. 얇아진 옷만큼이나 봄바람도 살랑살랑 콧속으로 느껴지는걸 보니 봄이 왔음이 새삼 반갑다.

나는 언제부턴가 봄이라는 계절을 사랑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을 묵묵히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생명의 소생에 대한 신비로움과 감탄을 느끼게 된 그때부터, 봄은 나에게 희망의 새싹이 돋는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봄 햇살이 반기는 오늘의 출근길은 발걸음도 가벼운 것 같다.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수원시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나는 수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높아졌다.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와 혜택들, 그리고 매달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수원포럼이나 인문학 강의를 통해 느꼈던 큰 울림들은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큼 내게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다. 생태교통 도시 행궁동이 예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리에 자동차 경적소리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승용차 대신 말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신기한 광경들을 보면서 시민의 참여도 없이는 이루지 못할 세계적인 대성과라고 생각하며 감탄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

또한 야경에 비춰지는 웅장한 성곽의 모습들

은 내 주변 친구들에게 수원 관광지로 꼭 자랑하고 싶은 1순위가 되었다. 성곽을 산책하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난 그 길을 걷는 걸 참 좋아한다. 사계절이 바뀌면서 변해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나 예뻐 눈에 담을 때면 마치 멋진 풍경화 작품을 보는 것만 같다. 여러 매력 때문에 난 점점 행궁동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졌고, 성곽 주변에 예쁜 카페를 해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매일 수원의 인사동 거리인 행궁동 공방거리를 다니며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점포에 임대가 쉽게 나지는 않았다.

구운동과의 인연

그렇게 몇 달을 넘게 알아보던 중 나는 우연히 수원의 구운동과 인연이 되었다. 수원의 구운동 웃거리에는 작은 일방통행 골목이 있다. 아주 작은 이 골목에는 족발집, 신발집, 옷가게, 식당, 이불집등 여러 상가들이 나란히 붙어 있어 모두가 앞집이 되고 옆집이 되는 모두가 이웃사촌들이다. 멀리 사는 가족들보다 서로 이웃에 옹기종기 살면서 정이 들어가는 또 하나의 가족들이다. 나 또한 이 골목에 '언제나 봄'이라는 커피 볶는 사랑방을 꾸려 나가고 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머물다 가는 쉼터 같은 사랑방을 만들고 싶었던 것은 내 오랜 꿈이었다. 언젠가는 이뤄야지 했던 다짐이 현실이 되었고, 2주년이 된 오늘은 나에게 참 뜻 깊은 날이면서 의미가 있는 날이다.

비가 오면 다 함께 모여 수제비를 떠서 끓여 먹고, 각자 집에서 갖고 온 재료들을 송송 썰어 부침개도 해먹는다. 프라이팬을 가져오시는 신발 사장님, 야채와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가게 사장님, 전 부치는 담당인 옷가게 언니, 볶음밥을 유달리 잘하시는 이불 사장님, 장소 제공과 후식 커피를 담당하는 나는 이 골목의 가장 막내이자 골목대장을 맡고 있다. 각자 한 집씩 반찬을 싸 오고 여럿이 모이면 점심마다 잔칫집 밥상이 차려진다. 밥 담당을 맡고 있는 수제화 사장님은 이제 신발보다 냄비 밥을 더 잘하시는 듯하다. 처음엔 돌처럼 딱딱해서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젠 잡곡을 불리는 지혜까지 스스로 터득하시고 냄비 밥의 묘미 누룽지와 숭늉까지 만들어 주신다. 밥은 얼마나 찰지고 쫀득한지, 누룽지 숭늉은 또 얼마나 구수한지 우리는 이 맛에 중독이 되어 매일매일 같이 모여 점심을 함께한다. 찬밥이나 반찬이 남으면 양푼에 몽땅 넣어 참기름을 살짝 넣고 싹싹 비벼 숟가락 하나씩 들고 전투적으로 덤비기도 한다. 생일인 주인공이 있으면 만 원씩 걷어서 삼겹살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해 준다.

이렇게 밥을 먹으며, 함께 웃으며 우리는 식구가 되어 가고 있다. 손님들은 이런 광경에 더 놀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도시락 멤버가 되기도 한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응답하라 골목' 같다며 요즘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한다. 너무 보기 좋다고 이사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비큐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응답하라 골목에는 누가 더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느끼는 시샘도, 누구 집 앞을 차로 막고 있다고 싸우는 일이 전혀 없었다. 좁은 골목 상권이다 보니 주차시설이 불편해서 그냥 가시는 손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서로 그 마음을 알고 누구든 그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 크기에 서로 문 밖으로 나와서 주차하시라고 배려해 주신다. 영업하는 자기 가게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는 것을 반가워할 리 없는데 내가 봐도 정말 이 골목은 천사들만 계시는 게 분명하다.

구운동은 '고마운동'

그래서 난 '구운동'을 '고마운동'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인연에도 감사하고, 좋은 인연들과 매일을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하

루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이웃사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고마운동' 구운동 에 '언제나 봄'이라는 사랑방이 생겨서 이 골목에 봄이 왔다며 오히려 내게 고맙다고 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는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를 쓰게 되었다.

물론 늘 봄날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어둠과 빛은 공존 하듯이, 사람 사는 일상들이 늘 한결같이 좋고 웃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듯이, 꽃이 피는 봄이 있으면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도 있기 마련이듯이 ….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빠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난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돈으로 아빠 치료비를 보탰다. 그리고는 집안문제로 정들었던 사랑방을 내놓기로 결심을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한 달을 넘게 고민을 했지만 최선의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찾아왔다. 곱게 키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부모가 돼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말로는 형용이 안 될 만큼의 큰 정을 나눈 가족 같은 이분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이 점점 가슴이 메어지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많은 추억이 다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작지만 오랜 꿈으로 이룬 첫 가게였다. 선반 하나하나 다 나무를 잘라다 사포질을 하고 며칠을 페인트 작업을 하여 만들고, 어느 것 하나 내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려고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잘라 싱크대 선반을 만들기도 했다. 좋은 재료를 드리고 싶어서 유기농 수제 청으로 담그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나를 나무라던 이웃 사장님의 목소리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손이 커서 퍼주는 걸 좋아하는 내게 손님들이 남는 거 없다고 사양하시고 도망치듯 나가시는 이 정든 동네를, 이 가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에겐 추운 겨울처럼 가슴에 시린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가게를 보러 오신 분들은 가게에 정성이 보인다고 했다. 작지만 참 포근하다고 하셨다.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울컥 올라와 몇 번을 울기도 했다.

"저도 사실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게가 빨리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갔으면 좋겠단 생각도 드는 게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께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참 많이 울컥한 마음을 쓸어내렸다. 몇 번을 보러 오셨던 분이 내 진심이 느껴진다며 계약을 결정하셨고 우리의 이런 대화를 단골손님이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전부 듣게 되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식구나 다름없는 단골 고객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조용히 혼자 울고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서 둘이 부둥켜안고 소리 내서 펑펑 울어버렸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던 나는 그동안의 감정들이 이 순간에 폭발하듯 터져 나왔고, 혼자 조용히 떠나려 했던 미안함도 터져 버렸다. 이 계기로 우리 동네 분들은 다 알게 되셨다. 그리곤 나도 모르는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어떻게든 사랑방은 지킬 수 있게 해 주고 싶었던 감사한 마음들이었다. 아침마다 모여 커피와 간식으로 하루를 열며 파이팅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런 소소한 행복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되었다.

오고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사랑방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그리고 큰마음들을 모아 주셨다. 부담이 될까 봐 조용히 이사를 하는 당일 아침에도 트럭을 비워 놓고 대기 중이라며 갖고 오신다는 분, 서로 짐을 싸 주러 오시겠다는 분, 이사하면 정신없어서 밥도 못 챙겨 먹는다고 도시락까지 싸다 주시고 가게가 문을 닫아 되돌아가시는 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도 해 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시기도 했다. 우리 응답하라 골목의 이웃사촌들 덕분에 난 무사히 이사도 잘 마쳤고, 다시 사랑방을 이어 가게 되었다.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고마운 분들 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더 친절하게 더 베풀면서 보답을 할 것이다.

응답하라 골목에 언제나 봄이

그렇게 추운 겨울은 지나고 우리 골목에는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큰 목소리로 동네방네 인사를 하고 다니고 깔깔깔 웃고 다니느라 바빠졌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도, 나는 큰 봉사라고 생각한다.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들어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응원을 해 주는 것도 배품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아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말한다. 아니 똑똑한 분들일지도 모르겠다. "장사는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 퍼주면 몸만 고생이라고."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 부정하지는 않는다. 2천 원 커피 한 잔에 과자에 떡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며, 돈은 많이 남지 않더라도 사람이 남으면 된다는 게 내 신념이기 때문이다. 난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손님들 덕분에 다시 봄날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 난 퍼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었다. 아주 많이 감사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 !

하루에도 몇 십 번, 밤낮 없이 전투기 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아프고 대화 소리마저 안 들릴 때가 많다. 오래된 건물도 많아 조금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 소비하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좋은 상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수원은, 그리고 구운동은, 나에겐 소중한 스토리가 있는 '고마운동'이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있고, 서로에게 시샘보다는 응원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끈끈한 정과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고마운 구운동 이웃들 !

커피를 볶듯 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며, 냄비밥의 숭늉처럼 구수한 정으로 살아가는 고마운동 구운동에 오게 된 건 나에게 참 선물 같은 인연임이 틀림없다. 봄이 여름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겨울이 가을 가는 것을 막지 않듯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응답하라 골목에서 화창한 봄도 즐기며 또 시린 겨울도 지내고 우리가 나이에 익어 가듯이 낙엽이 익어 가는 모습도 보며 ,그렇게 지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 같다. 반가운 만남도, 뜻하지 않는 이별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이해하고 맞춰 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는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이웃' '나쁜 이웃'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나 먼저'가 아닌 '나부터'라는 마음이면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행복한 이웃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늘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

같은 층수에 살면서 얼굴도 모른 채 지내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보다는 원수가 되어 가는 요즘 난 이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된다. '나 먼저'가 아닌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이웃을 대하다 보면, 참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 고마운동 구운동 이웃 분들께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 많은 저를 매일 이곳에서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구운동 이웃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응답하라 골목에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언제나 봄날이기를 바라본다.

한아름

두팔벌려 한가득 안아도 모자란 수원

수원의 매력은 다채로움이죠.

햇살이 밝은 날, 광교 카페거리에서 만난 그녀가 던진 첫 마디였다. '정조대왕의 얼이 깃든 화성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이곳. 누구나 교과서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지역이다. 수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수원 토박이와 함께 인터뷰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수원은 고즈넉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많은 색(色)을 담은 곳 수원. 이 기사를 통해 당신들이 모르는 수원을 나누고 싶다.

광교 카페거리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원시 팔달구에 약 19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아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통해 수원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아요.

어렸을 때 수원으로 이사를 오신 거네요. 수원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처음 이삿짐을 내릴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담벼락 위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저와 제 동생을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부모님 뒤로 피했었는데, 두 시간 만에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살던 골목에는 20채 정도의 집이 들어차 있었어요. 알고 보니 모두 친하더라고요.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유희왕 카드 게임도 하고, 서로 집에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가끔은 골목에 돗자리를 큼직하게 깔아 놓고 저희만의 소풍을 즐기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도시 속에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았을 정도였거든요. 수원은 참 정다운 곳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다 수원에 살고 있나요? 꼭 드라마 '응답해라 1994'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대부분 다 이사 갔어요. 하지만 연락은 꾸준히 한답니다. 아직도 모임 장소는 수원이에요. 친구들은 떠났지만 뜻밖에 신기하게 가족들이 수원으로 모였어요. 친가, 외가 식구들이 대부분 10분 거리에 살고 계세요.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인 걸 아신 걸까요. 한 가족, 두 가족 모이더니 결국 다들 수원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자주 모였어요. 수원화성, 월드컵경기장, 종합운동경기장 등 안 가 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나가서 배드민턴 하고,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 터전이 수원이라서 참 좋았어요. 할 것도 많고 어디를 가나 밝았거든요.

가족이 한곳에 모여 산다는 게 부러워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광교 카페거리'죠? 혹시 이곳과 관련된 추억도 있으신가요?

광교는 수원에서도 유명한 휴식공간이에요. 특히 '광교 호수공원'은 자주 왔었던 것 같아요. 가족, 커플, 친구끼리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봄이 되면 튤립축제가 열려서 유명세를 치러요. 여름에는 광교 호수 공원에 마련된 캠핑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긴 수원의 한강 같은 곳이랍니다. 저한테는 한강보다 좋지만요. 사실 제가 인터뷰를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수원의 관광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왔어요. 다들 호수공원을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을 위한 잘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혹시 광교 호수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원천유원지'라는 놀이공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라졌을 거예요. 집에서 10분만 가면 됐었던 유원지라 가족끼리 참 자주 갔었어요. 유명한 테마파크보다는 작았지만 나름 공간도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 곳에는 디스코팡팡이 크게 있었고, 다른 쪽엔 오리 배를 타는 곳이 즐비했었죠. 어린 제가 탈 수 있는 기구라곤, 위아래로 움직이는 개구리점프가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작은 놀이기구였는데 그땐 왜 그렇게 무섭던지요. 제 동생은 타다가 무서워서 중간에 내리기도 했답니다. 아마 매달 두 번씩은 갔었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달콤한 핫도그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저를 설레게 했어요. 지금은 없어져서 참 아쉽지만, 추억 속에 잘 간직해 두고 있답니다.

작은 놀이공원이라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수원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원천 유원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매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곳에 김잔디라는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보충 수업시간에 원천 유원지 이야기가 나와서 신나게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죠. 제가 개구리점프 놀이기구를 타고 있을 때, 선생님은 남자친구와 오리 배를 타셨더라고요.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각각의 시간을 나누는 건 언제나 흥미로워요. 수원이라는 공감대가 선생님과 제 사이의 끈끈한 무언가가 되었죠. 가끔은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옛이야기를 풀어 주세요. 이 자리가 십 년 전에는 어떤 자리였느니, 개발이 얼마나 빨리 되었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요. 가만히 듣다 보면 신기해요. 기사님의 회상이 낯설게 느껴지다가도, 막상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거예요.

제 고장의 옛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럴 땐 '수원박물관'을 찾아간답니다. 수원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겪어 보진 못했지만 흑백 사진 속 수원이 그리울 때도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수원은 역사가 굉장한 도시잖아요. 자리를 옮겨서 그 첫발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화성으로 가보시죠!

수원 화성행궁

와, 서울에서나 볼 만한 궁이 수원에도 있네요?

조선시대 때의 궁궐이에요. 상대적으로 보존이 매우 잘 되고 있어서, 옛 궁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아주 어릴 때부터 왔었어요. 어머니가 역사에 관한 공부를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뛰어놀았어요. 정말 적은 금액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면,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 손에 스탬프 지도와 엽전을 쥐여 주셨어요. 스탬프 카드는 궁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도에 도장을 찍어오는 거였어요. 왕이 쓰던 어보 같은 느낌의 도장이었죠. 그걸 찍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이 큰 궁궐이 머리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어디가 누가 쓰던 건물인지 다 알아요. 엽전은 돈을 대신하는 단위였어요. 주말만 되면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 행사가 열렸어요. 부채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었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엽전이 필요했어요. 저와 동생은 딱 한 번씩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궁궐에서 배움이 곧 놀이처럼 다가온 게 가장 좋았어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수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해요.

아름 씨 아버님께서도 수원에 거주하셨던 건 몰랐네요. 신기한 일이에요. 화성행궁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집이랑 가까우니 자주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관광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우선, '지동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지만, 수원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저렴한 수산물, 고기, 채소, 다양한 간식거리까지 구경거리도 은근 많아요.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는데 별로 길지 않아서 30분이면 쭉 볼 수 있답니다. 다른 전통시장과 비교하면 매우 깨끗하고, 상인들도 친절하세요. 수원시에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색다른 게 있다면, 시장 입구에 상인들과 시민을 위한 행사가 열릴 때가 있어요. 5평도 안 되는 무대에서 시민들끼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정말 신이 나죠. 아! 지동시장 옆에 순대와 곱창전골이 유명한 시장이 따로 있어요. 소문난 맛집이 가득하니까 들려서 맛보세요. 진귀한 구경도 할 수 있답니다. 또 방문하여 화성 둘레길을 따라 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곽이라고도 하지요. 6학년 때 엄마랑 물통 하나씩 들고 낮부터 무작정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룡문에서 출발해서 서장대, 서노대, 서일치, 효원의 종, 팔달문, 화홍문, 남수문까지. 이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서면 딱 맞는 길을 3~4시간 이상 걷는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정리하면 참 좋아요. 또 한 곳씩 방문하면서 구조물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선선한 날씨에 꼭 걸어 보셨으면 해요.

와! 수원화성은 값진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데에 살면 하루하루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해 드린 것 이외에도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수원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매우 좋고요. 여행 오신다면 꼭 수원시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친구를 맺고 다양한 혜택 이용하셨

으면 좋겠어요.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지도박물관 등 수원에는 박물관도 정말 많은데,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도 많이 진행하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 풍부하고 다양성이 가득한 도시거든요.

박물관과 도서관이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특히나 박물관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것부터 주제를 가진 것까지 다양하더라고요. 혹시 문화 시설 말고도 수원에서 여가를 보낼 곳이 있을까요?

저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곳은 수원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쉼터이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구장 그리고 접하기 쉬운 운동장이었거든요. 여름만 되면 다들 돗자리를 하나씩 깔고 앉아서 맥주를 마셔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 앞 경치도 탁 트여 있고! 정말 명당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텐트를 쳐 놓고 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선선하고 좋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 보고 싶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특색 있는 축제를 열어요. 바로 수영장과 눈썰매장이랍니다. 수영장은 지금도 운영 중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작은 스케이트장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어느새 이렇게 커져 있네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개장하니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축구 경기가 열려요. 교통편이 좋은 편이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축구 팬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블루윙즈'입니다! 블루윙즈라는 이름답게 저희 옷이 파란색이에요. 경기 날만 되면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헬스장이 되기도 해요. 이건 비밀인데 제가 이곳에서 살을 무척 많이 뺐답니다. 많은 수의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건강달리기하기 좋게 길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 시민들은 건강관리에도 신경 쓸 수 있답니다.

꼭 경기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놀이터 같아요. 할 것도 정말 많고, 쾌적한 곳이겠어요. 아름 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어요.

벌써요? 아직 보여 드릴 곳이 많은걸요.

다음번에 꼭 다시 와서 2편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아름 씨에게 수원은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 수원은 '두 팔 벌려 한가득 안아도 모자란 곳'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야기하기에 앞서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제 이름은 순 한글 이름인데, 뜻이 '두 팔 벌려 한가득'이라고 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두 팔 벌려도 저를 못 안겠다고 놀리곤 하죠. 저는 여기서 생각을 가져왔어요. 수원은 끝없이 주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없고 잔잔한 지역부터 번화가까지 수원만의 매력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죠. 그래서 수원은 두 팔 벌려 한가득 안아도 모자라요. 제가 말씀 드린 것들은 정말 일부분에 속한답니다.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몇 백 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과 한 달 된 아파트가 조화로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지자체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지닌 색은 참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더 오래 함께 살면서 다 끌어안아 보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매력은 점점 늘어나겠죠? 참 기대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원입니다.

정말 공감이 돼요. 수원은 스펙트럼이 대단한 도시예요. 오늘 아름 씨에게 들은 장소들만 해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조화롭게 연결되고 있어요. 또 어느 명소든 수원의 얼이 담겨 있고요. 꼭 2편 만들고 싶네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도시 수원에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양성자

ㅇㅅㅈ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있는 통소바위 공원에서

빗줄기가 그어진 창문으로 방울방울 물방울이 맺혀 있다. 한바탕 세상을 휘젓고 지나간 소나기는 희뿌옇던 거리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미처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한 남은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마음이 울적할 때면 한 번씩 미사를 보러 들르는 '북수동성당'이다. 집에서 버스를 한 번만 타면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수동성당에 자주 오는 것은 아무래도 화성 때문일 게다. 화성을 돌면서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낀다. 수원화성은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끌려와 순교한 곳으로 2000년 대희년에 천주교 순교성지로 선포된 천주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미사를 마치고 팔부자거리를 거쳐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종각(與民閣)을 지나 통닭 골목길로 들어선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구수한 통닭냄새가 후각을 자극하며 유혹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한다. 옛 형옥이 있었다는 가구거리에서 지동교를 지나 남수문 위 성곽 길에 올라 동남각루에 이른다. 박해시대에 천주교인들을 성벽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성 밖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동남각루의 나무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천주교인들의 목을 쳤다. 몸뚱이는 성 밖으로 집어던지고 목은 남암문에 걸어 놓았다. 기록에 의하면 동남각루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참수형으

로 순교하였다고 한다. 잠시 성호경을 그으며 그들의 명복을 빌어 본다.

나무창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언제부턴가 아들과 나 사이에 생겨 버린 두터운 창문이 생각났다. 아들이 대학 졸업을 미루고자 했을 때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입금하던 날 부모로서의 할 일은 다 끝날 줄 알았다. 아들이 취업을 해서 주는 용돈을 받으며 남들처럼 자식자랑하며 여행이나 다닐 줄 알았다. 잘 난 것만 보고 살아온 내 자만을 하느님께서 벌하시는 것일까. 미웠다. 그냥 미웠다.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의 뒷바라지 했건만 아들은 어미의 희망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아들과 나 사이에는 창문 하나가 생겼다. 바라볼 수는 있으면서도 크게 소리치거나 열지 않으면 결코 서로 들을 수 없는 두터운 창문이 생겨 버린 것이다. 그렇게 아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몇 번의 실패 이후 기약 없는 세월이 흐르면서 창문의 두께는 점점 두터워져 갔다.

아들 생각에 손에 들고 있던 묵주가 점점 빨리 돌아가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진다. 봉화대를 보니 북수동성당 로사리오의 길에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봉화대, 굴뚝 형의 봉주가 세워져 있던 모습이 기억난다. 대포발사를 위해 만들었다는 동포루를 지나 한참을 묵주기도를 하며 걸어갔지만 아들 생각에 마음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했다. 한국전쟁 때 비행기폭격으로 파괴되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다는 창룡문에 이르렀다. 촉촉한 비를 맞은 초록의 잔디는 생기를 머금은 듯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등 뒤로 땀이 흘렀다. 연무대 쪽으로 내려와 집으로 향하는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버스정류장 사거리 마주보이는 곳에 야트막한 산으로 향하는 나무계단이 있었다. 문득 저기는 어딜까 하는 생각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횡단보도를 건너 나무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산책로를 따라 약수터를 지나 작은 정자에 이르렀을 때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를 보자 멋쩍어 하시며 황급히 담뱃불을 껐다.

집 앞 도서관으로 책을 빌리러 갔던 날, 도서관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는 무리들 속에서 아들을 보았다. 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철썩 같이 믿고 있었던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녀석이 담배 피운다고 나무랄 일도 아니었지만 그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피우지 않았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자꾸만 사라져 가는 희망이 야속해 어디든 돌파구를 찾고 싶었을까? 그날 나는 아픈 가슴 쓸어내리며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 거스르지 않고 잘 듣던 모범생이 어느 틈엔가 부르기조차 싫은 백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들은 내 가슴에 대못 하나 깊숙이 박아 놓고 그 대못에 찔린 나는 빼지도 못하고 그 저린 아픔에 오래도록 울었다.

취업, 그것을 위한 스펙은 다양하되 쓸모가 없어져 갔고 학점은 좋았지만 한두 번의 실패에서 점점 무의미해졌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애써 모른 척 또 피하고 만다. 제 용돈은 스스로 벌겠다며 밤샘 택배작업을 하고 주말마다 파김치가 되어 젊음의 윤기마저 말라 간다. 학원비 받아가기가 미안했던지 슬그머니 학원을 그만두고 도서관 속으로 숨어들었다. 답답한 지하 열람실로 스며든 아들은 이른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왔다. 될 수 있으면 가족과 부딪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은 타들어 갔다. 어쩌다 집에 있는 날이면 아예 방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설익은 밥처럼 겉돌며 서로 눈치만 살피다 집안은 온통 암울하고 답답함으로 물들어 갔다.

할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퉁소바위공원'이라고 말씀하신다. 아주 먼 옛날, 금슬은 좋으나 자식이 없던 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자식을 갖기 위한 치성을 드리기로 하고 부인은 조원동 바위에서

남편은 연무동 바위에서 각자 백일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퉁소를 불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병이 난 부인은 남편의 퉁소 소리에도 화답하지 못하게 되었다. 남편은 걱정이 되었지만 백일기도가 다 끝난 후에야 아내를 찾아갔다. 아내는 벌써 세상을 떠난 뒤였으며 남편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따라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바람이 불면 부부가 퉁소를 불던 바위에서 퉁소소리 같은 울림이 들린다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도 함께 들려줬다. 가을이면 이곳에서 퉁소바위축제와 솟대를 세우고 제까지 올린다고 한다. 후손들의 위로를 부부는 기꺼이 받아들이며 즐거워하실 거라며 할아버지는 선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의 끝을 맺는다.

퉁소바위 부부는 자식 하나를 얻기를 그렇게 소원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고 나는 그 금쪽같은 자식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속세의 잣대로 아이를 평가하고 힘들게 했던가? 잘났던 못났던 내 자식이 아닌가, 지금 이 시간의 고통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아니었던가. 내일은 수없이 다가올 것이고 언젠가는 성공하는 내일도 있으리라. 내 발걸음을 이 공원으로 이끌었던 것도 주님이셨을까 묵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벚나무 잎사귀들이 운치 있게 내려앉은 퉁소바위 팔각정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 맞은편으로는 비가 오고 난 후의 청명함 때문인지 동북공심돈이 손에 닿을 듯 마주보였다. 동장대와 창룡문, 멀리 팔달산의 서장대까지 보인다. 할아비퉁소바위를 본다.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북중학교 뒤에 있는 할미퉁소바위를 바라본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식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불렀을 퉁소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하다. 나는 성호경을 깊게 그으며 두 분을 위해 잠시 기도를 했다. 집에 가면 아들과 나 사이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아들을 보듬어 안아 보리라.

퉁소바위 전망대를 되돌아서 나오다가 정자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보았다. 밑동에서부터 굵은 가지가 갈라져 나와 두 덩이로 이루어진 모습이 마치 부부가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위로 길고 짧은 가지들이 뻗어 나



할아비퉁소바위에서 할미퉁소바위를 바라보다.

가 셀 수 없는 많은 잎들이 매달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퉁소부부의 모습 같다는 느낌은 왜였을까?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이 나무로 환생하여 가지들을 사방으로 뻗어 자식 같은 잎사귀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낸 모습처럼 느껴졌다. 비가 그쳤다. 공원 입구에 서 있는 할아비와 할머니의 형상이 애틋했다. 퉁소바위공원을 떠나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지만 공원의 수호신처럼 서 있던 그 느티나무가 오래도록 내 시야에서 아른거리고 있었다.

최광현

ㅊㄱㅎ

여행길 위에서

"으악! 이걸 어째!! 다 깨졌네."

산산조각 난 나의 휴대폰. 그리고 깨진 휴대폰 액정을 바라보는 내 심정 또한 산산이 조각나 가고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교사가 된 이후 처음 맞는 여름 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선배 교사들과 교무실에 모여 이야기를 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선배들 대부분 나름대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여행계획 하나 정도는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즐거운 듯 여행계획을 주고받는 선배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들이 참으로 부러워졌다.

'나도 가방 하나 들고 여행을 떠나 볼까?' 어릴 적부터 나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에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는 것은 참 매력적이고 낭만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창 시절엔 학업을 핑계 삼아, 성인이 되어서는 군대나 임용시험을 핑계로 어딘가로 훌쩍 떠나거나 다른 곳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게 되었다.

'내가 지금 여행 다닐 땐가.'
'여행은 이번 과제만 끝나고 가자.'
'여행은 이번 시험만 붙고 가자.'

이렇게 바쁘고 여유 없던 지난 일상들 때문에 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여행을 떠날 때 느꼈던 그 두근거림과 즐거운 추억을 말이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고 좋은 시기인데, 이번엔 나도 어디론가 떠나자!'

그날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까지 난 본격적으로 여행계획을 완벽히 짜는 일에 몰두하며 며칠 밤을 꼬박 샜던 것 같다. 먼저 여행지를 선정해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왕이면 갑갑한 가슴을 풀어 줄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면 좋겠는데…'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끝에 결정된 여행지. 그 곳은 바로 수원이었다. 한국에 아름다운 곳은 많고 나름 그 특색과 매력이 각각 달라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내가 수원을 여행지로 선정한 이유는 선배 교사의 이 한 마디 때문이었다.

"수원이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던데, 수원화성 앞 억새꽃이 또 대단하지!"

선배의 말을 듣고 찾아보니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갈대와 억새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가 바로 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드라마를 보다가 수원화성 앞에 그득한 갈대와 억새를 보고는 어떻게 저리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탄을 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줄곧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선배의 한 마디에 되살아났고, 난 수원을 나 혼자 떠나는 첫 배낭 여행지로 낙점했다. 다른 관광코스 없이 그 경관만으로도 수원까지 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행의 완성은 계획이다. 비록 혼자 다니는 배낭여행은 처음이지만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만큼은 잔뼈가 굵은 나였고, 성격도 워낙 꼼꼼한 터라 첫 배낭여행을 위한 계획과 준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수원의 관광지와 관광지 간 이동경로를 검색한 나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최고의 여행 계획을 수립했다.

'좋아!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일만 남았어!' 그렇게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부푼 마음을 안고 기차에 몸을 실은 나. 비록 고생은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여행을 하고 싶었기에, 자가용을 두고 기차를 이용했던 것이다.

'와! 어릴 때 그 느낌이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 정말 좋다!' 기차에 몸을 뉘이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떠나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났다. 달라진 것은 기억 속의 그 꼬맹이가 이제 혼자서도 여행을 다닐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때와 같았다. 난 점점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하루도 채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 버렸다. 다 저녁에 수원에 도착해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들어서는 순간,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린 휴대폰이 방바닥에 부딪히며 액정이 깨져버린 것이다. '야단났네. 모든 여행 계획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데' 이날 이후 묵을 숙소와 식사장소는 물론 여행일정까지. 나의 여행을 완성시켜 줄 그 모든 계획들은 바로 휴대폰 문서함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난 휴대폰 액정이 깨졌을 때 나의 첫 배낭여행도 함께 산산조각 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의 상심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동안의 여행 준비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것은 둘째 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여행할 일이 너무나도 두려워졌기 때문이었다. 망망대해 속에 나 혼자 떨어진 기분이랄까.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기에 난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나마 머릿속에 남아 있는 여행코스를 종이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난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둘째 날 아침을 맞이했다.

나의 첫 여행코스는 바로 꿈에도 그리던 이 여행의 주 코스! 바로 수원화



수원화성의 억새(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성이었다. 다양한 사극의 촬영지인 이 수원화성은 정조가 나오는 사극이나 영화에서는 언제나 주요 무대로 등장하며, 수원화성 앞 아름다운 억새와 갈대는 그 자체만으로 그림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드라마에서도 배경으로 많이 활용되어 드라마를 한층 우아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러나 깨진 휴대폰 액정의 여파는 첫 여행코스인 수원화성부터 날 당황하게 만들었다. 흔히들 갈대와 억새는 가을과 겨울이 절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때문에 깨진 휴대폰을 보면서도 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안하며 아픈 가슴을 달랬다. '그래. 지금은 한창 여름이라 억새, 갈대가 그렇게 예쁘진 않을 거야. 휴대폰으로 사진은 못 찍지만 괜찮아. 이번엔 눈으로 즐기고, 겨울방학 때 다시 한 번 오자!'

그런데 나의 예상과는 달리 여름의 갈대와 억새는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듬뿍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푸른 갈대와 억새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풍경은 겨울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아, 이걸 사진으로 못 남기네. 아 어쩌지?' 난 그 광경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바람에 찰랑 찰랑 흔들리는 갈대와 억새들을 보고 있자니 나 혼자 애가 타서 견딜 수 없었다. 난 급히 근처의 편의점이나 가게를 찾았다. 혹시라도 일회용 카메라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것이다. 하지만 일회용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상점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 별 수 없네. 포기해야 하나?' 그렇게 단념하고 경치를 즐기기로 마음먹은 그때. 나에게 한 쌍의 커플이 말을 걸었다.

"저기 죄송한데. 저희 사진 좀 찍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휴대폰 이리 주세요."

그렇게 쥐고 싶었던 휴대폰. 그 휴대폰이 이런 방식으로 내 손에 들어올지는 미처 몰랐다. 물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었지만 말이다. 난 그 커플의 사진을 멋있게 찍어 주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사진을 찍어 준 것이 고마웠는지 남자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제가 휴대폰을 안 들고 와서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헤어지려는 찰나.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아! 저기, 죄송한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꼭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진 한 장만 그쪽 휴대폰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찍은 사진은 문자로 좀…"

"아!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염치불구하고 꺼낸 부탁에 흔쾌히 허락해 주는 남자 분. 난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 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발송했다. 나중에 액정을 고치면 볼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말이다.

그리고 여름 억새를 배경으로 찍은 그때 그 한 장의 사진은 액자에 인화되어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다. 만약 그때의 그 풍경을 마음껏 카메라에 담았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 사진이 이렇게 아름답게 와 닿을까. 오히려 단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 있기에 수원화성에서의 그 추억이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 같다. 휴대폰이 깨지는 바람에 너무나 아쉬울 뻔했던 첫 일정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작은 배려로 오히려 최고의 추억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수원화성 위에도 올라가 경치를 즐긴 나. 너무나 열심히 돌아다녔던 탓일까. 아침도 먹지 못한 나는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어디에서든 끼니를 때워야 했다. 사실 난 매 식사를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에서 먹기 위해 식당들의 위치와 가는 방법, 메뉴까지 모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다. 물론 그 계획들은 휴대폰 액정과 함께 산산조각 나 버리긴 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휴대폰 없이 처음 여행하는 낯선 수원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 식당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때문에 화성에서 빠져나온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이름 모를 한 양념갈비 식당에 적당히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다. 계획을 세울 당시 수원의 유명한 음식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때 나온 대표 음식에는 다양한 요리가 있었지만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수원의 대표 음식은 양념갈비!'는 문구뿐이었고, 그것이 내가 양념갈비 식당에 들어온 이유였다. 비록 혼자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는 것이 다소 어색했지만, 사장님은 혼자서 온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친절히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하지만 치밀한 계획을 중시하던 내가 계획과 다른 식당에, 즉흥적인 음식 선정이라니. 자꾸만 반복되는 이러한 즉흥적인 결정은 음식에 대한 나의 기대감을 점차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다만 수원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자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음식을 기다렸다.

"고기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온 양념갈비. 사실 주문한 양념갈비를 받아 고기를 구우면서도 '수원까지 와서 양념갈비를 먹어야 되나? 고기 집은 어디든 있는데.'라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다. 여행지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 구운 고기를 입에 넣은 나는 그동안 내가 먹었던 양념갈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맛을 느꼈다.

'어? 와, 이거 맛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입에 넣는 순간 양념갈비의 쫀쫀한 식감과 달콤한 맛은 여행에 지치고 피곤했던 나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내가 여태 방문했던 여느 양념갈비, 아니 고기 집보다 새로웠고 맛있었다. 오히려 여태 많이 먹어 봤던 음식이었기에 그 맛이 뇌리에 생생히 기억되었던 것 같다. 새로운 경험에 난 절로 신이 났다. '아, 이게 즉흥 여행의 맛이구나!'

나는 그동안 여행의 완성은 계획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지만, 수원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여행 계획이라는 것은 자유를 느끼기 위한 하나의 지침일 뿐 여행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나는 그동안 반대로 내가 짜 놓은 계획을 지키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 그동안 현실 속에서 이리 저리 치이며 치열하게 살아온 내가 이번

여행으로 느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유였다. 그런데 자유를 위해 찾은 여행에서조차 난 구속되고 있었다. 휴대폰이 깨졌을 때 내가 느꼈던 두려움은 낯선 도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계획과 준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나는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근처 관광지와 가볼 만한 곳을 물었고 직원은 지도에 표시를 해 가며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다. 그리고는 관광지와 버스노선 등을 표시한 그 지도를 나에게 주었다. 수원 여행에서 만난 또 한 명의 사람에게 또 다시 작은 배려를 받게 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여행은 그 지역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자꾸만 수정되고 발전해가는 살아 움직이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난 그렇게 난생 처음 휴대폰이 아닌 지도를 찾아가며 더듬더듬 남은 일정을 진행해 갔다. 그 기간에 휴대폰 검색이 되지 않아 분명 답답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4박 5일의 수원 여행 동안 내가 만끽한 감정은 바로 자유로움이었다. 아마도 내가 계획한 스케줄대로 움직였다면 난 수원 여행에서 느낄 수 있었던 즐거움과 이 지역 사람들의 인심 등 진정한 수원을 절대 알지 못했을 것이며, 단지 그 껍데기만을 보고 돌아왔을지 모르겠다.

계획의 속박 없이, 휴대폰의 구속 없이 아날로그 지도와 두 다리로 이어간 나의 첫 여행에서 난 이 두 다리만 있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편리함만 얻으려 하면 오히려 그 편리함에 구속된다는 인생의 경계를 깨달았다.

겨울 방학에도 난 수원에 여행을 가고자 한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다. 진정한 여행은 철저한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걸.

과연 다음 여행에서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며,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화성에서 바람에 흩날리고 있을 겨울 억새가 벌써부터 보고 싶다.



수원화성 안내판

나경윤

나의 달콤한 도시, 수원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30년을 서울에서만 살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서울 소재 학교를 다닌 나는 아내와 결혼 후 경기도 수원에서 가정을 꾸렸고, 일가친척은 물론 지인 한 명 없는 곳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수원은 작은 공원과 근린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거리는 활기차면서도 혼잡하지 않아 생활도시로서의 매력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과 지식정보도서관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고, 광교산, 팔달산, 칠보산, 숙지산이 도심지 안 가까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아이들 양육은 가장 큰 문제였다. 아침마다 15개월 터울의 아이들 둘을 들쳐업고 집을 나와 내던지듯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일은 매일 반복해도 적응이 되지 않는 고역이었다.

2010년 여름은 무척 더웠고, 그 해에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30대 중반이었던 나와 아내는 다른 맞벌이 가정처럼 7살, 5살 된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일에 치여 살던 때였다. 아내는 자주 몸에 멍이 들고,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병원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정기 건강검진 기일이 되어 병원을 찾았고, 아내는 혈소판감소증이 의심되니, 큰 병원

을 찾아보라는 처방을 받았다. 그제야 다급한 생각이 들었고, 구급차를 불러 아내를 태우고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진료 수속을 했다. 아내는 응급실에서 골수검사와 분자유전검사를 받았다.

다음 날 새벽, 응급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로와 초조함으로 파김치가 된 나에게 당직 수련의가 표정 없는 얼굴과 신중한 말투로 확진된 병명을 알려 주었다.

"우려했던 대로, 백혈병 확진이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예약이 3개 월 간 밀려 있으니, 무균실이 갖춰진 다른 병원을 빨리 알아 보셔야겠습니다."

"....."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액암에 대한 원망이나 좌절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서울 본가에 맡기고, 수원의 전문병원에서 1년 가까운 투병과 간병생활을 전쟁처럼 치렀다.

항암제가 너무 독해 모세혈관을 녹일 수 있다는 이유로 쇠골뼈 아래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심장 가까이 삽입된 관을 통해 투여되는 항암제는 아내에게 식사는커녕 쓸개즙까지 다 게워내도록 만들었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백혈병의 특성상 혈소판 수혈을 자주 받아야 했다. 수혈 후에는 숙주반응 때문에 입안이 헐고, 피부발진과 고열이 쇠약해진 아내의 온몸을 난타했다.

손바닥만한 무균실 병상에서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는 중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내는, 어느 날 아침 머리맡에 수북이 쌓인 머리칼 앞에서는 결국 무너졌다. 항암 후유증으로 절반만 남은 머리카락을 삭발하며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떨궜다.

격리된 암병동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위안하던 분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거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마음을 추슬러야 했다.

다행히 아내의 병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M3' 유형이어서 화학 요법을 통한 관해유도 치료와 관해 후 치료가 효과를 보았다. 3개월 집중적인 치료와 3개월의 간헐적 치유를 받은 후 아내와 나는 종합병원 10층 암병동에서 걸어 나왔다.

3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아내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면서 혼자 꾸준히 등산을 하는 등 주치의가 처방한 식단과 투병수칙을 묵묵히 지켰다. 주치의는 "살려면 매일 등산하라."는 엄포를 동반한 처방을 했고, 그때부터 아내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 등산을 시작했다. 매일 혼자 광교산을 오르기 시작하더니,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앙상한 다리에 근육이 붙고, 낯빛에 활기가 돌았다. 아내가 스스로 열심히 투병생활을 해 준 덕에 난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꾸준한 치료와 등산 재활로 모범적인 투병생활을 한 아내와 달리, 나는 직장문화에 빠르게 젖어들었다. 낮에는 일 잘하고 밤에는 술 열심히 마시는 직원으로 사무실에서 인정받았지만, 가정과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이 '딱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결국 나 스스로가 변해야 했다.

'재미와 의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 아내와 의논 끝에 시작한 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등산이었다. 수년간 '생존등산'을 해 온 아내와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과 함께 주말마다 집 인근의 광교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족등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키워 주었고, 함께 같은 활동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애착과 유대를 올려 주었다. 스마트폰과 예능 프로그램만 보며 세상을 가볍게 '시청'만 하던 아이들이 산 속의 나무와, 꽃이며 곤충을 깊게 들여다보며 '견문'을 넓혔다.

우리 가족은 광교산을 수십 차례 다닌 후, 수원의 또 다른 산을 찾았다. 능



광교산 등반

선이 완만하고 부드러워 아이들과 환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일곱 가지 보물을 간직한 칠보산. 정조대왕의 효성과 선정(善政)의 상징인 화성행궁과 서장대, 서노대, 서포루, 화양루 등을 거느리고 수원 한복판에 우뚝 솟은 팔달산. 도심 속에서 가볍게 트래킹하기 알맞은 숙지산과 여기산 등. 수원의 여러 산들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힐링하였고, 온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수원미술관, 수원광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을 찾아 역사도시 수원의 발자취와 여러 작품 감상을 통해 몸의 건강뿐 아니라 투병과 간병에 지친 마음의 건강도 다잡을 수 있었다. 가족이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순간과 완벽한 날들을 경험했다. 가족과 함께하니, 현재는 선물(Present is Present)이 되었다. 아내는 혈액암 발병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복직하여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인근의 산에 오르며 정상인 이상의 건강을 과시하고 있다.

나와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족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찾아 현재를 최대한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이는 직장 동료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동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수많은 행복으로 수놓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가족의 사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순 없겠지만, 가족구성원의 건강이 행복의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 연유로,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가 미리 써 놓았다는 묘비명을 살짝 변용하여 이 글의 마지막을 대신하고자 한다.

"내 그대를 찬양했더니 그대는 그보다 백배나 많은 것을 내게 갚아 주었도다. 고맙다, 나의 도시이여!"

강은비

행궁동의 네 가지 매력

요즘 서울과 수원을 갈 때 버스 대신 기차를 탄다. 이 방법은 누군가 나에게 추천을 해 주었는데, 오늘 세 번째 기차에 오른다. 가만히 기차에 앉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풍경을 보니 기차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진다. 기차가 철도를 밟을 때 나는 소음과 때때로의 진동을 파란 시트의 의자에서 가만히 느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벗어남으로써 느껴지는 평온함인가. 풍경 또한 미묘하게 다르다. 레일 옆은 지역과의 경계를 위해 아주 얇은 녹지가 형성되어 있다. 도시의 풍경에 나무가 얇게 드리우고 거친 녹색 등이 하늘과 바닥에 붙는다. 가끔 만나는 또 다른 기차는 또 다른 행선지를 가지고 있겠지.

오늘 나의 행선지는 나의 도시 수원이다. 화성 행궁이 누군가에게는 문화유적지이고 소풍지이고 관광지이겠지만 어린 시절이 깃든 이곳이 나에게는 단지 하나의 생활이 되었던 곳이다. 작은 골목 하나하나까지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곳. 어린 시절 학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밟았던 골목,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소풍을 오며 친구들과 하늘을 바라보던 골목, 연애하며 발길이 닿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던 골목, 그리고 지금의 골목 그 골목들로 엮인 곳이 오늘의 내 기억의 행궁동이다. 행궁동은 어디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르다. 팔달문이 있는 곳을 통해 들어온다면 복잡하게 삶이 얽힌 시장을 만나며 들어오

게 되고. 장안문이 있는 곳을 통해 들어온다면 행궁의 기다란 성벽과 초록 대지의 공원을 바라보며 들어오게 된다. 오늘 나는 팔달문을 통해 행궁동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어질 발자취는 행궁을 관람하고 장안문을 지나 다시 시장을 통해 팔달문으로 돌아오는 순서이다.

첫 번째 매력, 행궁

부산한 주말임을 알리듯 행사가 진행되는 행궁 앞 광장에 사람들이 북적댄다. 광장을 지나며 만나는 행궁의 인상들은 청명한 하늘과 긴 산과 그 산위에 얹어진 정자 그리고 엄청나게 큰 금색의 불상이다. 그런 윗 풍경들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내 시야에 나뭇가지가 걸쳐진다. 행궁의 마당이다. 행궁의 마당 격이라고 느껴지는 이곳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보호수는 이곳의 역사를 말해 주는 괴이함과 웅장함이 동시에 있다.

화성행궁은 서울에 위치한 종묘나 경복궁보다는 아담하다. 행궁은 붉은 기운을 뿜으며 자리하고 있다. 붉은 기운이라 느낀 것은 작은 궁의 벽에 깊게 칠해진 적색의 단청과 옛 포졸의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기운 때문인 듯하다. 내가 행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화령전이다. 화성행궁 옆에 있는 화령전은 선왕을 추모하던 곳으로 궁에서 가장 담백하게 지어진 곳이다. 화성행궁에서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당시 정조대왕은 화령전을 검소하며 품격 있게 지으라 했다고 한다. 단청과 같은 칠이 없이 목재의 색을 그대로 담은 고목으로 만들어진 서까래와 기둥, 깊은 검은 빛을 품은 전벽돌 그리고 그 사이 사이의 회벽들은 고즈넉하다. 마당의 작은 소나무와 푸른 뒤뜰은 정조의 선왕을 향한 마음이 깃든 것 같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화령전 앞으로 나와 북문으로 향한다.



화령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두 번째 매력, 골목

장안문으로 향하는 길이 예전의 기억과 많이 달라져 있다. 바닥에 깔린 블록이나 가로등이 신경을 많이 쓴 듯 태가 난다. 걸을 기분이 나는 정갈함이다. 길목을 따라 조성된 상점들은 아기자기한 공방과 찻집들이다. 운이 좋게도 오늘은 지역민들이나 이 지역 공방 사람들이 모여서 플리마켓을 하는 날이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머리를 묶어 주는 엄마들이, 친구와 도란도란 말을 하며 가볍게 앉아 있는 인심 좋아 보이는 분들이 상인들이다.

이런 기분 좋은 북적임과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날 동시에 덮치면서 마을이라는 단어가 분위기로 느껴진다. 이 작은 여행의 동반자인 나의 할아버지는 이런 작은 소품들이 신기하다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시더니 작은 석고 방향제 하나를 사셨다. '나도 이런 골목이 있는 마을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행궁동 골목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성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세 번째 매력, 장안문을 향하는 성벽

마을의 골목을 속속들이 구경하고 나면 그 끝에 드디어 성벽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성벽 옆에는 세네 명이서 조용히 산책할 수 있을 정도의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시간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이 거대한 돌은 그

옛날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 멀리 심어진 소나무는 언제부터 저 자리를 지켰는지 알 수 없다. 이 시간들이 궁금해 이 돌들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기까지 했다. 이 돌들은 바로 뒷산이 될 정도의 거리가 되는 숙지산에서 채취했다고 한다. 진정한 지역성이 아닌가. 놀라움이 들었다. 이 육중한 석재와 정직한 전벽돌이 둥글게 말려진 성곽. 이 성곽에 뚫린 총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역할이 아니다.

나는 이 총구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성벽 반대편의 풍경을 바라본다. 자동차와 사각 건물로 뒤덮인 장안동이 담겨 있다. 얼굴을 떼어내 고개를 돌리면 여기는 다시 조선시대의 조용함이 남아 있는 행궁길이다. '이런 이중적인 시간의 흔적이 겹쳐지는 게 이 행궁동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행궁동에서는 시간의 흔적이 덕지덕지 붙은 이곳은 낡은 것이 더 매력적이다. 장안문의 윗부분에 오르면 이 행궁동의 매력을 사방으로 느낄 수 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사방이 기가 막히게 뻥 뚫린 이곳에서 한숨 쉬어 간다. 복잡한 도시의 머리 아픔이 사라진다.

행궁동의 네 번째 매력, 시장

행궁동의 매력 중 마지막 매력을 꼽는다면 시장이다. 그 역사를 보면 첫 번째 매력으로 꼽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의 매력으로 꼽고 싶은 것은 시장이라는 자체의 산발적인 느낌과 여정의 마지막 코스로 적합한 장소인 듯해서이다. 행궁동의 역사를 보면, 시장은 빼어 두고 볼 수가 없다.

행궁동에는 종로청과물시장, 문구시장,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여럿 있다. 성 안에 있는 문구시장과 청과물시장은 이것이 시장인지 모르고 간다면 단순히 상점 몇 개가 붙어 있는 정도의 규모이다. 이를 아쉬워해서인지 역사를 알려 주기 위해서인지 이에 대해 설명하는 벽화가 그



영동시장(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길을 따라 그려 있다. 하지만 그 그림으로 관광객들이 이 시장을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현대화보다는 무언가 느린 그 문구점과 방앗간들은 마냥 신기하다. 문구점에서는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딱지가 그대로이고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불량식품이 한켠에 자리한다. 방앗간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참기름 내음이 퍼진다. 이렇게 작아진 시장과는 달리 그래도 가장 중심에 자리 잡으며 그 크기를 유지하는 지동시장과 영동시장은 별의 별것들이 다 위치해 있다. 한약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약재와 말린 건어물집, 청과상, 반찬집, 전집 등등. 주황빛 조명 아래에 음식들은 때깔이 반지

르르하다. 행궁동을 한 바퀴 돌고 시장에서 전을 먹으니 하루가 수원 화성행궁이라는 고전적 테마에 맞게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누군가가 수원에 사는 게 무엇이 좋으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네 가지 매력이 있는 행궁동이 가깝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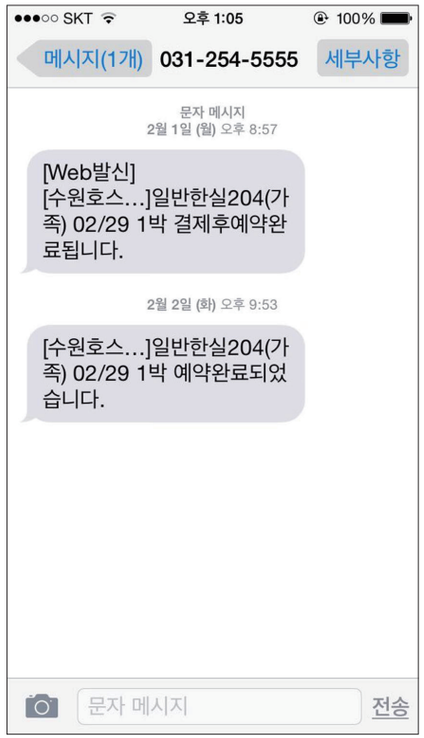
김유영

수원해,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대부분 노른자 아래에서 만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이란 권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노른자와 경기도를 테두리로 한 흰자로 나뉘는, 그러니까 중앙집권체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도 노른자위였으므로 우리는 노른자위 위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흰자위 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삼십 분 정도 늦게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사연은 간단했다. 퇴근시간이라 고속도로가 밀렸다는 것. 노른자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한 마디씩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일찍 출발해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등등. 친구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았다. 나는 친구의 그런 심정에 큰 신경을 쓰진 않았다. 자주 있는 일이었고 또 별거 아닌 일이었기에. 그러나 친구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친구는 말했다. “너희도 내가 사는 곳에 한 번 와 보는 게 어때?” 자신의 도시에도 와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 모두가 일시에 말이 없어졌다. 나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처음엔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우리 집이 어디쯤인 줄 알고 하는 소리지 지금?” 친구는 “당연히 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너희는 우리 집이 어디쯤인지 알고 있어?”

생각해 보니 그랬다. 나는 계란 노른자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을 벗어나는 것을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유난을 떨며 "너무 멀어서 싫다."고 말하고 있었다. 계란 노른자위 아래는 계란 노른자위 위에 사는 나보다 흰자위 왼편에 사는 친구가 훨씬 먼 거리일 텐데도 말이다. 돌이켜보면 친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가끔 이야기를 했었다. 새로 생긴 맛집에 들렀을 때 "이거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면서 "저기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이잖아!" 하고. 나는 그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친구가 지금까지 나를 보러 와 준 거리만큼 내가 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수원호스텔 예약 완료

우리는 유난스럽지만 소소한 사람들이었다. 기왕이면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여행일로 만들기로 하였다. 매년 매월 매일 있는 그런 소소한 날이 아니라 유난스럽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을 여행 날로 잡았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이 날을 가리켰다. 수원에 살고 있는 친구조차 "이날이 좋겠다."며 "내가 사는 곳인데 여길 여행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해 봤거든. 아무렴 특별해야지." 하며 깔깔 웃었다. 우리의 목적은 간단했다. "내 친구가 사는 수원"에 가보는 것. 친구는 "수원에는 화성행궁이 유명해." 하며 미리 관광명소까지 알려 주었다. 우리



수원의 관문, 수원역

는 당연하게 숙소 역시 화성행궁 옆에 있는 '수원호스텔'로 잡았다. 기왕 가는 거 온돌이 있는 큰 방으로 호사롭게 자 보자며 가족실을 예약했다.

대망의 2월 29일. 수원역에 도착해 마중 나온 친구를 만났다. 색다를 것은 없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멀리 왔을 뿐이고 우리는 여전했다. 만나자마자 '뭐부터 먹지.'를 생각했다. 친구는 일단 숙소를 좀 봐 두자고 했다. 수원 화성행궁 근처 버스정류장에 내려 '수원 통닭골목'을 지났다. 오각을 자극하는 닭의





인계동 빙수집과 수원호스텔

냄새가 자꾸만 코를 간질거렸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메뉴는 통닭이라는 것을. 도착한 수원호스텔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단돈 5만 원에 이런 호사를 부려도 되나, 이렇게 넓은 줄 알았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오라고 하자라며 장난까지 쳤다.

뒤늦게 일을 마치고 온 친구가 숙소에 도착했다. 우리는 통닭거리로 나섰다. 저녁 메뉴는 예상대로였고 우리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수원의 번화가까지 나섰다. 흰자위인 인계동은 우리가 만나던 노른자인 강남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온갖 간식이며 빙수, 심지어 심야영화까지 보며 새로운 장소에 대한 추억을 쌓았다. 수원호스텔로 돌아와 서로 준비했던 편지를 교환했다. 선물도 각자 준비했는데 좋은 선물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별에 별

게임들을 다 생각해냈다. 제비뽑기를 비롯해 사다리 타기, 빙고 맞추기 등등 할 수 있는 게임은 다 하다가 결국 새벽 한 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 수 있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늦잠을 잤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숙면에 빠졌던 것 같다. 그날 우리는 아무도 코를 골지 않았고, 그 어떤 작은 뒤척임조차 만들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을 깨웠다. "화성열차 탈시간이야." 하며. 우리는 숙소를 정리하고 수원화성행궁으로 향했다. 사실 향했다는 표현도 너무 거창했다. 숙소가 바로 화성행궁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몽사몽간에 우리는 화성열차 정거장까지 급하게 올라갔다. 5분만 있으면 화성열차가 도착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3월 1일, 공휴일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다들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우리만큼 상기된 표정은 아니었다. 우리는 놀이공원에 온 아이들처럼, 경주마 위에 탑승한 기수처럼 화성열차를 타며 흥분했다. 열차에 내려 우리는 화성행궁을 안을 탐방했다. 질퍽한 흙을 피해 요리조리 돌을 밟아 가며 이동하기도 하고 영화에 나왔던 '복내당'을 찾기 위해 갔던 길을 또 가기도 했다.



수원 화성행궁

지진희를 이상형으로 삼았던 친구는 '대장금' 패널에 그려진 이영애 앞에 서며 지진희와 자기만 나오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마저도 소녀들처럼 까르르 웃으며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보일까 하고 구도를 구상했다.

정조의 지시로 만들어진 화성행궁은 담백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문 속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스탬프를 찍으면서 우리는 옛 선인들이 이곳에 얼마나



팔달산에서 내려다보는 수원 구시가지



화성행궁에서 투호 던지기

큰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친구는 다시 말했다. “나도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본 거 처음이야.”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결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화성행궁 입구로 다시 나왔을 때 우리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전통 문화기행처럼 왔으니 전통차라도 한 잔 마시자며 ‘투호’를 하기로 했다. 제일 꼴등한 사람이 찻값을 내는 시스템이었는데 결국 나는 그날 엄청난 값의 간식비를 부담해야 했다. 우리가 투호를 하면서 꺄르륵대는 모습을 보던 한 가족이 대결을 신청해 왔다. 우리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투호에는 일가견이 없는 내 덕에 패배하고 말았다. 그날 꼬마아이는 수원에서 승리의 기쁨을 처음 맛보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추차와 정조대왕 쿠키를 아작아작 씹어 먹으며 우리는 유난스런 윤달에 있었던 우리의 수원 여행의 소감을 한 마디씩 하기로 하였다. 친구는 필름 카메라를 꺼내들어 화성행궁길의 이모저모를 담으며 느꼈던 감상



복내당 현판

을 말했다. “말로만 들었지 왜 와 볼 생각을 못 했을까?”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했다. “정조는 정약용을 좋아했대.” 친구들은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그냥 나는 “같은 정씨라서 그랬나?” 하며 “복내당에 다녀왔으니까 복 많이 받자.” 했다.

수원에 사는 친구는 그날 우리를 배웅하며 “행복했다.”고 했다. 그리고 “너희가 수원에 와서 좋았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붙들고 찡한 가슴을 한참을 붙들고 있었다. 수원은 확실히 가깝지만 먼 곳이었다. 그러나 나의 친구가 사는 곳이었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갸륵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들여, 그리고 묻혀 있고 잊고 지내던 인재들을 등용해 그들의 솜씨로 만든 곳이었다. 나는 우리 역시 그런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란 노른자와 흰자위에서 오고가는 사이이다. 바쁜 일상 속이지만 우리는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젖는다. 그리고 이따금씩 4년마다 돌아올 윤달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던 화성열차를, 투호의 강렬했던 쾌감을 … .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수원해는 그렇게 꾸준히 기억될 것이다.

박호원

시끌벅적, 열한 살 우리들의 여행

수원화성으로 가던 날 아침, 하늘이 맑았다. 나는 가방에 책과 공책 대신 엄마가 싸 주신 김밥과 필기도구를 챙겼다. 학교로 가면서 파란 하늘을 쳐다보는데 전날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화성으로 문화탐방을 가게 되면, 수원화성을 건설하게 된 정조대왕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정조대왕은 왜 수원화성을 건설하셨을까?' 성벽을 쌓아서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을까? 그렇다면 왜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이 아니라, 수원에다가 화성을 쌓은 것일까? 갑자기 나는 여러 가지가 궁금해졌다. 그러자 수원화성으로 빨리 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까지 달리기 시작했다.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이마에 땀이 몽글몽글 솟았지만, 수원화성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더운 줄도 몰랐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반 친구들과 함께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수원화성으로 가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정조대왕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 시끌벅적 신나게 놀 생각만 했지,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선생님은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정조대왕이 열한 살에 겪은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다.



2016년 주말체험여행



화성행궁 구경

수원화성에 도착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화성행궁이었다. 행궁은 왕이 궁궐 밖을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무는 궁궐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정조대왕이 앉았던 자리에도 앉아 보았다. 어떤 친구들은 정조대왕의 흉내를 내기도 했고, 어떤 친구들은 쑥스러운 듯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나기도 했다.

행궁의 가운데에는 봉수당이 있었다. 봉수당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였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연 곳이다. 나는 봉수당에서 조선시대의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 건물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고개를 들어 기와를 쳐다보았더니, 파란 하늘과 닿아 있는 기와 무늬들이 아름다웠다. 처마에 그려진 여러 가지 그림들은 판타지 동화에 나오는 세상 같았다.

무예 24기 시범



"정조대왕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열한 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똑같이 열한 살이던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다. 선생님은 사도세자가 당쟁에 희생이 되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당쟁과 같은 싸움에 휘말려 돌아가신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다.

버스 안에 있던 열한 살의 우리들은 모두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조용해졌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 최고의 자리였던 수원에,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무덤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 주변에다가 수원화성을 쌓은 것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고 만든 신도시가 화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화성행궁 앞마당에서는 무예시범 공연도 있었다. 여러 명의 무사들이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대형 목검을 휘두를 때에는 훌륭한 무술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 또 두 명의 무사가 진검으로 겨루기를 할 때에는 뛰어난 무술 솜씨를 보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무술시범을 보는 내내 우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계속해서 박수를 쳤다. 얼마만큼의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무술 실력이 뛰어날까? 나는 무예시범 공연을 보는 내내 감탄을 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정조대왕은 직접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무술시범을 보게 되니, 무술시범이 공연 같지가 않고 진짜 군사들의 훈련처럼 느껴졌다. 또 그런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강한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정조대왕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다.

무예시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었다. 화성행궁 구경을 하는 동안 배가 고픈 줄도 몰랐는데, 점심시간이라는 말을 듣자 배가 고파졌다. 도시락을 꺼내서 엄마께서 정성껏 싸 주신 김밥을 먹는데, 엄마 생각이 났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나에게도 전해졌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준비해 주신 엄마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새벽부터 우리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시는 아빠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두 번째 장소인 수원화성박물관으로 갔다. 박물관에는 화성 축성실과 화성 문화실이 있었는데, 우리는 화성 축성실부터 줄지어 차례대로 관람했다.

화성 축성실에서는 화성이 축성되던 때의 모형들이 있었다. 또 기중기와 여러 기구들을 이용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원화성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다. 화성 축성실에서 옛 거리와 건물들을 실제 모형으로 볼 수 있어서 생생한 체험을 했다.

화성 문화실에서는 전시물만 구경을 하지 않고, 수원화성 OX퀴즈도 풀어 보았다. 나와 친구들은 퀴즈를 풀고 나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놀랐다. 우리는 수원화성에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문제들을 너무나 잘 맞추었기 때문이다. 화성에 대한 퀴즈와 정조대왕에 대한 역사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수원화성과 행궁 모형

세 번째로 우리는 수원화성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장안문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성벽을 따라 죽 걸어 보기도 했다. 한낮이 되어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걷는 게 힘들지가 않았다. 나와 친구들은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지어진 문과 성벽을 보는 게 즐겁기만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성열차를 타며 수원화성 여행을 마무리했다. 화성열차의 황금색 용머리를 보는데, 정조대왕이 수원 행차를 하실 때 입으셨다던 황금갑옷이 떠올랐다. 나는 황금 용머리를 손으로 살짝 대본 다음 빨간색 열차 칸에 올랐다. 열차를 올라타고 화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 주었다.



화성열차 타기

열차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수원화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이번에는 신나게 노느라 시끌벅적한 게 아니었다. 열한 살 우리들은 수원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끌벅적 신이 난 것이었다.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우수하다. 나는 그렇게 수원화성을 직접 보고 나서, 정조대왕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우선 나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알 수 있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는 수원에다가 아버지를 모셔와 아름다운 화성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조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 수 있었다. 과학적이고도 튼튼한 화성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튼튼한 성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재료들을 가지고 왔을 정도로 말이다.

시끌벅적했던 열한 살 우리들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시간이 되자 나는 무척이나 아쉬웠다. 정조대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아름답고 우수한 수원화성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수원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결심했다. 이번에는 열한 살 학교 친구들과 수원화성을 방문했지만, 다음에는 부모님, 동생과 함께 수원화성을 와야겠다고 말이다.

튼튼하게 지어진 수원화성



전미라

ㅈㅁㄹ

수원의 맛

지금도 수원에 갈 때면 늘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있다. 1970년대부터 한두 개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이젠 수원의 대표적인 먹거리 타운이 되어 버린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이란 곳이다. 보통 사람들이 수원 하면 화성, 광교, 팔달문 등 다양한 역사적 공간을 으레 떠올리는 것에 반해, 나는 식객이라면 한 번쯤 수원에서 가 봐야 할 곳으로 지동시장 순대타운을 꼽는다.

수원을 대표하는 곳으로 왜 하필이면 수많은 관광지를 두고, 지동시장 순대타운을 꼽느냐 묻는다면 먼저 일차적으로 이곳 '특유의 맛'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 시장 음식들이 하나같이 값비싼 재료를 섞었거나, 퓨전식 조리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맛을 내보이는 것은 아니다. 서민의 음식답게 도톰하니 소가 넣어진 순대를 이용한 순댓국, 순대볶음, 순대튀김 등은 어찌 보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음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 때문에 간혹 가다 지동시장의 유명세에 힘입어 순대타운을 방문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순대의 모습에 실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동시장의 순대를 동네 어귀에서나 파는 일반적인 순대 맛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질경이며 씹히는 순대의 질감을 맛보는 순간,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에 대해 가졌던 그동안의 오해는 일순간 말끔하게 지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먹어 왔던 순대는 타이

어같이 질기디 질기기만 했다는 것을, 몇 가닥 안 되는 양념으로 채워진 협소한 음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40여 개의 순대 가게가 즐비한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순대 냄새를 따라 식탁에 앉아 보면, 어느새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뚝배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감을 자극하는 순대들을 코와 눈으로 먼저 맛보고 나면, 곧 이어 순댓국 안 매콤한 양념장과 수북하게 올려진 들깨가루를 골고루 섞어 입 안 한 가득 머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맛을 채 생각하기도 전에, 혀끝을 자극하는 순대의 고소함과 시원한 국물 맛이 입 안에 고루 퍼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추가로 칼칼한 순댓국 한 숟갈에 쌉싸름한 소주 한 잔을 곁들인다면, 하루의 고됨이 말끔하게 풀어진다는 건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이처럼 다른 순댓집들과는 견줄 수도 없는 깊은 맛 때문에, 이곳 순대타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다. 몇 십 년 동안 굳건하게 이 시장 골목을 순대 하나만으로 지켜낸 것에는, 이곳 특유의 순대 맛이 한몫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아울러 이곳 순대타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막힌 맛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맛'이다. 여기 지동시장에는 사실 예전부터 순대타운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시장 골목이었고, 간판은커녕 지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다 쓰러져 가는 천막에 음식점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고된 노동에 지친 시장 상인들이 얄팍한 주머니 사정에 맞춰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시장 내 형성된 순대집이 눈에 띄게 되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곳 음식점에 들어서면, 시원한 순댓국과 시큼털털한 깍두기 한 접시,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곤함을 훌훌 털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때부터 값싸고 양 많은 순댓국 맛에 빠져든 상인들 사이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지금의 순대타운이 형성되었다. 그래서일까. 이곳 지동시장 순대타운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수많



지동시장 순대곱창타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은 사람들의 허기와 빈 마음을 달래 주었던 곳답게, 다른 순댓집들과 달리 깊은 사람의 맛이 있다.

나 역시 이곳 순대타운에서 사람의 맛을 느낀 손님 중에 한 사람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외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에 오곤 했다.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나를 차마 길러낼 여력이 없던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수원에 살고 있던 때였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곳 지동시장 순대타운에 나를 데리고 오셨다. 매 끼니 따뜻한 밥을 챙겨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늘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접시에 놓여 있던 순대 한 점마저도 내게 주시며, 배 터질 만큼 순대를 사 주셨던 기억이 난다.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이곳 지동시장의 순



정이 느껴지는 지동시장 순대타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대라 말한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아도 부모님과 떨어져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던 그 시절에, 주름진 외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섰던 지동시장의 순대 가게만큼,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해 줬던 곳은 없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을 잊지 못하고, 이곳을 찾아오게 된다. 물론 얼핏 외관만 보기엔 이가 맞지 않아 삐그덕거리는 가게의 문과, 낡은 식탁, 닳아 버린 메뉴판 때문에 신식 건물의 화려한 순댓집들에 더 눈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은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배부르게 달래 줄 수 있는, 사람의 맛이 깃든 곳이란 점에서 자꾸 발길이 끌려지게 된다. 아마도 좁은 시장 골목에 촘촘하게 세워진 순댓집 간판마다 적힌 40년, 30년이란 세월이, 단순한 숫자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달래 온 깊은 연륜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처럼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은 오랜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깊은 순대의 '맛'과 인간미 넘치는 정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 골목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지동시장 외에도 현재 수원에는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그 중 지동만하더라도 수원천을 따라 지동, 미나리광, 못골이란 3개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상공업을 중시한 정조의 사상이 깃든 지역답게, 수원은 지동시장 외에도 수많은 전통시장들이 활력을 갖고 있는 곳인 셈이다. 그러나 수많은 전통시장들 사이에서도 지동시장이 단연 눈에 띄는 이유는 순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서민 음식인 순대이지만, 투박하게 썰린 순대 한 접시를 먹다 보면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배불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쉴 새 없이 순대 접시를 향해 젓가락질을 하다 보면, 세상에 대한 슬픔을 나누기도 할 것이며,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수원의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이곳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에 들러 꼭 따뜻한 순대 한 점 먹어 보라 권하게 된다. 목구멍에 밀어지는 따뜻한 순대 한 점만으로, 왜 사람들이 이곳 지동시장을 떠날 수 없는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천성만

ㅊㅅㅁ

수원화성 탐험 및 수원 먹거리 체험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장안문에서 안내책자를 받고 경로를 정하였는데 순서는 장안문부터 시작하여 화서문, 서장대(화성장대), 정조대왕동상, 화령전, 화성행궁의 신풍루, 여민각 화홍문, 동장대(연무대), 창룡문, 팔달문입니다. 4대문의 성곽 주위에 지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우선 장안문부터 설명하면 장안문은 화성 4대문의 북문으로 수원화성의 정문이고 1794년(정조 18) 2월 28일 공사를 시작해 9월 5일에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 도구로 약 6개월 만에 장안문을 완공했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붕의 구조가 복잡한데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또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장안문을 포함한 수원의 모든 4대문과 성곽 또는 성곽마다 지워진 주위의 건물을 보고 고생한 조상들의 땀과 노력의 손길이 묻어나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안이라는 말은 수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백성들의 안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안문



화서문

다음으로는 장안문에서 화서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서문으로 이동하는 성곽길을 가다가 오른쪽을 보면 북서적대라는 성곽에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북서적대는 성문과 웅성에 접근하는 적을 막기 위해 성문의 좌우에 설치한 방어시설입니다. 안에는 대포가 놓여 있습니다.

북동적대도 있는데 그쪽에도 대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서적대, 북포루를 지나면 서북공심돈과 바로 옆 화서문이 보입니다. 공심돈은 군사가 안으로 들어가 적을 살필 수 있게 만든 망루입니다.

공심돈 옆에는 바로 화서문이 있습니다. 화서문도 4대문 중의 하나로 서문입니다. 1795년(정조 19) 7월 21일 공사를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1월 8일에 마쳤고, 화성 서쪽의 남양만과 서해안 방면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팔달문처럼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보물 제403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진 것을 뉴스로 본 적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서문을 포함한 팔달문은 화재가 나지 않고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한 서장대(화성장대)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화서문 옆의 서북각루와 서일치 사이에 서장대로 가는 성곽길 왼쪽 밑에 모형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건축물을 짓던 방법과 과정을 보여 줍니다. 서울의 4대문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어졌다고 합니다.



선조들이 건축물을 짓는 과정

정약용 선생님이 설계한 화성 축성 도구들도 모형으로 제작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술과 도구로 건물을 지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성을 건축하는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수원화성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서장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서장대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바닥은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서일치, 서포루, 서이치 건물이 있고 이 셋의 건물을 지나 서장대(화성장대)에 도착하였습니다. 땀이 조금 나고 힘들지만 운동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등산이나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서장대의 뒤에는 서노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서노대는 쇠뇌를 쓰던 방어시설로 산 정상부에 서장대와 같이 위치합니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서 성 주변을 살피면서 군사를 지휘하는 곳이고 사방 100리(39.27㎞)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수원화성의 군사지휘본부라고



서장대 뒤쪽, 그 뒤에는 서노대가 있다

합니다. 옛날에는 지휘부였지만 지금은 경치 관람 장소로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서장대의 앞에서 경치를 봤는데 화성행궁 전경과 화령전 일부 전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보입니다만.

자! 이제 다음으로 수원화성을 설립하신 정조대왕의 동상을 보러 갈 차례입니다. 화성행궁 방면으로 가는 샛길을 따라가다 보면 계단이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열차가 다니는 큰 길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성신사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정조대왕동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옆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열차가 다니는 길을 따라가다 오른쪽을 보면 정조대왕동상이 보입니다. 수원에서 오래 살면서 처음으로 이 동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몰라서 송구하옵니다!



서장대에서 본 화성행궁과 수원 전경

그리고 동상 뒤에는 벽화가 있는데 정조대왕 행차 모습을 담은 벽화가 있습니다. 화성행궁에서는 정조대왕의 거둥행사를 토요일마다 하는데 주말에 시간이 되면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극드라마 대장금'과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한 화성행궁 신풍루로 이동하겠습니다. 정조대왕동상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화령전을 거쳐 가게 됩니다. 화령전을 사진에 담으려고 하였는데, 아쉽지만 공사 중이라 입구 밖에서만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방문하고 싶습니다.

화성행궁에 가기 전에 신풍초등학교 담벼락에 걸린 수원화성의 4대문과 각 건물에 대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화성행궁 옆에 있는 신풍초등학교는 화성행궁 확장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수원 광교로 이전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조대왕의 행차를 담은 벽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면 수원화성을 실컷 탐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 옆에 화성행궁이 있는데 마감시간이라 행궁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신풍루 앞까지만 갔습니다. 대신 서장대에서 촬영한 경치 사진으로 만족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화성행궁 안을 자세히 볼 것입니다.

화성행궁 삼거리 맞은편에 있는 여민각에서 매향교로 가다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화홍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동시장, 팔달문시장과 통닭거리가 있습니다. 매향교를 건너면 바로 수원화성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선 화홍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홍문은 지나다니면서 야경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밤이 아니어서 마지막에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화홍문에서 성곽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옆에 동북각루(방화수류정, 1794년(정조



화성행궁 입구 전경(야경)



동장대



봉돈

18) 10월 19일 완공,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자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음)가 있는데, 그 주위에 설치된 북암문, 동북포루, 동암문 등의 시설을 본 후 성곽길을 따라가 보면 동장대(연무대)가 보입니다. 동장대는 1795년(정조 19) 7월 15일 공사를 시작하여 8월 25일 완공된 무예 수련 공간으로 연무대라고도 하였습니다. 지형은 높지 않지만 사방이 트여 있고 등성이 솟아 있어서 화성의 동쪽에서 성 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동장대 맞은편에 창룡문(화성의 4대문 중 동문으로 1795년(정조 19) 5월 8일 완공, 창룡은 곧 청룡으로 풍수지리상 좌청룡이며 동쪽을 의미)이 보입니다.

이제 여행의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창룡문에서 팔달문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물로는 봉돈을



수원의 마스코트 팔달문

꼽을 수 있습니다. 봉돈은 적의 침입과 같은 비상상태를 알리는 통신시설의 역할을 하는데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벽돌을 쌓고 그 위에 5개의 화두를 쌓았으며, 성벽에 총안(몸을 숨긴 채로 총을 쏘기 위하여 성벽, 보루 따위에 뚫어 놓은 구멍)을 두어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어려서 책으로 봤을 때는 화두에서 포가 미사일처럼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봉돈이라는 건물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이포루, 동삼치, 동남각루를 거쳐 마지막으로 남수문에서 다리를 건너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큰길이 보입니다. 큰길의 왼쪽을 보면 바로 수원의 마스코트인 팔달문(남문, 1964년 9월 3일 보물 제402호로 지정, 1794년(정조 18) 세움)이 보입니다.





지동시장의 순대

팔달문 주위에는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못골종합시장 등이 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는데 허기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원에서 잘 알려진 순댓국밥집이 있는 지동시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바로 순대곱창타운이 보입니다. 여기서 순댓국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집은 순댓국밥이 나오기 전에 기본반찬하고 새우젓이 나오는데 새우젓이 많이 나와서 자기 취향에 맞게 숟가락으로 퍼서 간을 맞춰 풀어서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통닭거리를 갔는데, 나중에 가족들하고 시간 되면 방문하여 먹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화성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희

ㅇㅁㅎ

수원화성을 담다!
낮과 밤으로 이끄는 성곽길

“이번 출사는 어디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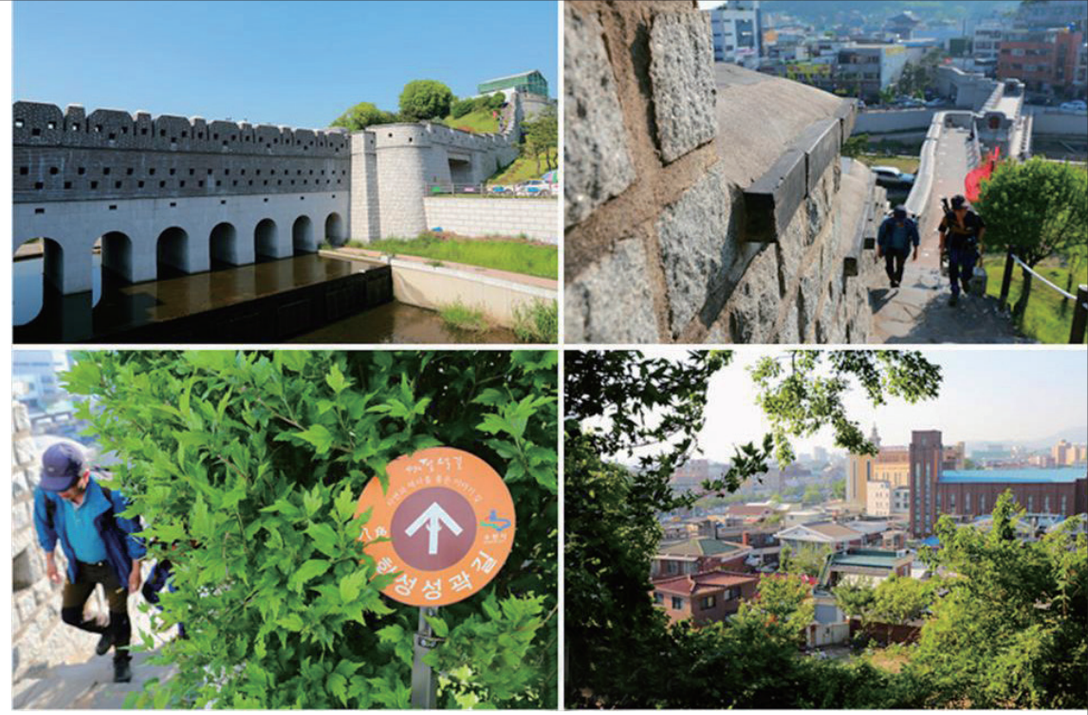
주말이면 으레 지인들과 오가는 인사치레 같은 말입니다. 온라인에서 인연이 되어 오프라인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원에서 성곽길도 걷고 일몰과 함께 야경도 담아보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그 많은 여행지 중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회상해 봅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일 거란 생각에 아직 한 번도 와 보지 않았다는 지인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낮과 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이곳으로 이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해질녘까지 시간도 충분하니 성곽길을 걸을 때는 괜히 걸음을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걸음의 시작은 남수문에서 시작해서 동남각루, 동이포루, 동포루, 동일포루, 창룡문, 동북공심돈, 동장대, 동북포루, 방화수류정(동북각루)까지 이어지고 느릿한 걸음은 방화수류정에서 지는 해를 만나게 해 주었어요.



용연에 비친 용두각(방화수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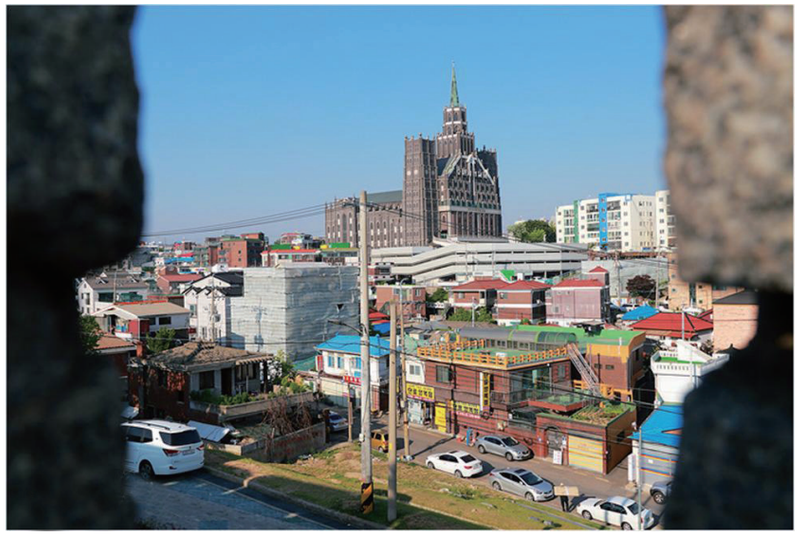
수원화성의 다양한 모습

수원화성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인 사조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신기계를 사용해서 만든 당대 동서양의 과학과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죠. 그래서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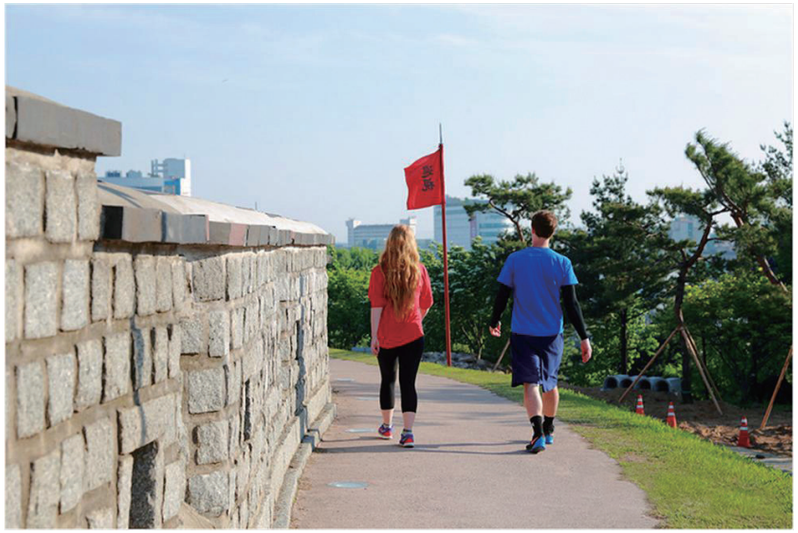
군사적인 방어기능과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조의 원대한 구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계획적인 신도시, 상업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화성이기도 합니다.

약 6㎞에 달하는 화성을 온전히 걸어도 좋은데요. 전 구간이건 일부이건 그게 뭐 그리 문제가 되겠어요. 이 푸른 5월의 바람과 싱그러움이 있으니 이 길 위에 있는 것만도 참 행복하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첫 방문이라는 함께한 지인은 걸음이 자꾸만 느려지고 있었는데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겠지요. 도심의 북적임이 싫어서 도심 여행지는 일부러 찾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을 조금은 깨트려 놓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불하게 이어지는 성곽길은 일상에서 뾰족해졌던 마음을 다듬어 주려는 듯이 시선도 걸음도 둥글둥글 부드럽게 만들어 줘 참 편한 걸음입니다. 툭 튀어나온 '치'도 둥근 성곽의 일부인 것을, 포용력까지 깨닫게 하는 길이에요.

따가운 햇살 기분 좋게 받으며 만나는 동북포루. 포루는 성곽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치성 위에 지은 목조건물인데요. 군사들이 망을 보면서 대기



성곽에서 바라본 지동제일교회





창룡문



동장대 주변 푸른 잔디

하던 곳입니다. 과거의 방어를 위한 망루가 현재엔 도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주변의 풍경을 시원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람과 성곽길을 따라가면 단정한 창룡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동북공심돈을 지나서 왼편을 보면 동장대 주변으로 푸른 잔디가 펼쳐집니다. 성안 초록잔디를 보면 아이들처럼 마구 뛰어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요. 옛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지금은 활쏘기, 말 타기 등 도시민들의 걸음을 유혹하는 체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북포루 쪽으로 걸음하면 성곽길 옆으로 솔숲을 만나는데요. 혹여 8월 중순께에 그 길을 지난다면 무심코 지날 수가 없을 겁니다. 보랏빛 맥문동꽃이 활짝 피어 솔숲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출사지로도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근처 사는 분들이라면 새벽안개가 자욱한 날 찾아도 멋진 장면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방화수류정과 용연 그리고 도시의 빌딩



그렇게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과거의 흔적을 밟아 가는 시간, 어느덧 해는 기울어 황금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많은 날이 더 붉은 노을을 만들어낸다고 했던가요. 이날도 푸른 하늘에 대기의 존재감을 알려 주려는 듯이 조금씩 붉어지는 서산이 우리의 걸음도 따라 넘어갑니다. 그래도 붉게 물들어 서산으로 넘어가는 하루해를 보면 지친 어깨의 힘겨운 뒷모습이 아니라 하루의 열정을 다 쏟아내지 못한 여운을 가득 담고 가는 듯합니다.

그 순간을 놓칠세라 어디가 촬영포인트인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나름의 위치에서 애를 써봤는데요. 삼각대도 없이 허둥지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재밌던지 서로의 모습에 웃음보를 터트리면서 저녁을 맞았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이웃님이 삼각대를 빌려 주겠다 나서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지는 해가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기에 민폐를 끼칠 수가 없으니

방화수류정의 고운 기와지붕 옆으로 붉은 기운 가득한 하늘



주어진 조건에 만족을 하면서 지는 해를 부여잡았습니다. 이날의 시간을 계기로 삼각대를 구입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지요.^^

해가 지나 싶으면 어느새 붉은 기운 삼키고 서산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에, 그렇게 잠깐의 허무함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자연 앞에서 가지는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도 오늘은 방화수류정의 고운 기와지붕 옆으로 붉은 기운 가득한 하늘을 본 것으로 만족합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야경명소인 방화수류정의 야경



이제는 수원의 대표적인 야경명소인 방화수류정의 야경을 담아 보려고 걸음을 떼어 봅니다. 하늘을 닮은 둥그런 수면과 언덕 위 에둘러 싼 조명 들어온 성곽길, 도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야경을 담아 보기란 그리 흔한 장소가 아니지요. 그래서 나름 사진을 찍는다 하는 분들은 아마도 다들 한 번은 이곳을 찾지 않았을까 합니다. 서장대에서 바라보는 행궁 쪽 야경도, 제일교회 노을빛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의 야경도 만났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감탄하는 곳은 단연 성곽길과 함께하는 방화수류정 주변의 야경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 찾았을 때 수원 시민분이 5월이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때 다시 한 번 와 보라고 권하셨는데요. 아마도 연못 주변의 철쭉을 함

방화수류정의 야경



께 즐기라는 의미였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낮보다 아름다운 5월의 밤도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 주네요.

어둠속에서 한줄기 빛이라도 선명하게 담아 보고자 바위를 삼각대 삼아서 노력한 이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거 같습니다. 결과물이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눈으로, 그리고 맘껏 들이킨 이 밤공기로 수원의 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출사여행지로 앞으로도 매번 떠올리는 여행지가 될 거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 적을 막고 성 내 백성을 보호하던 경계의 성곽은 현재에 와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의 통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걷다 도포자락 휘날리는 누군가를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수원화성의 낮과 밤을 함께한 시간은 좋은 인연과 함께했기에 더 아름답게 다가 왔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수원의 곳곳을 담고자 하는 용기(勇氣)가 있다면, 그 속살까지 다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에 커다란 용기(容器)라도 꽉꽉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다양한 표정,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곳이란 걸 걸음 하는 곳마다 일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길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나선 출사여행으로 나선 길이었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인연이 맺어 준 좋은 사람들과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성곽길을 한번 걸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아름답게 담은 여행지의 모습도 소중하지만, 오롯이 느끼고 마음으로 담는 여행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곽길을 걸어 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히 밤풍경도 놓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여행 경로

남수문에서 시작해서 방화수류정까지 성곽길

찾아 가는 길

수원역 매산시장 앞에서 버스 35번, 11번, 13번
→ 팔달문정류장 하차

가볼 만한 곳

수원화성박물관 / 행궁(무예24기) / 지동시장 / 통닭거리 / 노을빛전망대 / 행궁동벽화골목 등

이은주

ㅇㅇㅈ

수원 가볼 만한 곳, 수원화성 한 바퀴 살레살레 돌아보리라

작정하고 나선 건 아니지만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 역사문화유산으로 조선 성곽 건축의 꽃이라 부르는 수원화성 둘레길 코스를 한 바퀴 돌아볼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구름 따라 걷는 즐거움은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날씨 좋은 걸 보니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봅니다. 운수 좋은 날, 수원화성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합니다.

든든한 초병처럼 서북각루가 서 있고 성으로서의 기능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둥싱둥실 둥그런 옹성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장안문도 멋스럽고 북암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길도 예쁘고 화서문도 수원화성에서 아름답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입니다. 살레살레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살레살레 걸을 만한 곳이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한 바퀴인 걸~. 보물 제403호이자 수원시 마크로 형상화된 아름다운 수원화성 화서문에서 출발합니다.



약 5.7㎞에 달하는 수원화성 둘레길



화서문

화서문-장안문-방화수류정-동북공심돈-창룡문-수원제일교회 노을전
망대-지동시장-팔달문-서장대-화성행궁

정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심의 결정체이기도 한 수원화성은 건축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 건축 모양의 독특함 그리고 다양성 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곳입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1등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지요.



화서문에서 바라본 북포루

화서문 문루 위로 올라 북포루 쪽을 바라보다가 그 풍경이 하도 예뻐서 액자에 담았습니다. 북포루 길을 걷노라면 선조들의 지혜와 삶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모퉁이 돌아 북서포루를 지날 때 느티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새끼 꼬다가 낮술이라도 기울였을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려집니다.



장안문 옹성

수원 화성의 북문에 해당하는 장안문

홍예문 위에 2층 누각을 세우고 다시 그 앞으로 둥근 옹성을 쌓은 장안문입니다. 남대문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남대문에 없는 옹성과 적대 등 방어시설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옹성으로 방어벽을 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바라본 장안문

수원화성 장안문은 2층 누각으로 웅장함이 있습니다.

걸어 걸어 도착한 화홍문은 TV나 매체 등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원화성의 북수문으로 수원천 범람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화홍문입니다. 수원8경 중의 하나로 꼽히는 화홍관창. 7개의 수문으로 물이 넘칠 때 만드는 무지개는 화홍문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데 언제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화홍문



보물 제1709호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 풍경은 고요하고 고즈넉합니다. 오똑하니 올라앉아 사위를 지키는 모습에서 늠름한 장군의 위용이 느껴지는데 풍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방화수류정입니다. 방화수류정은 정교하면서도 뛰어난 건축의 형태로 주변 경관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높은 벽랑 위에 있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 평지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그래도 빼어나게 아름다웠을 것 같은 정교한 구조입니다.

방화수류정





암문

암문은 군사시설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던 비밀의 문입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밀사를 몰래 내보기도 하고 양식을 들여오기도 했던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방화수류정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일품입니다. 활짝 핀 꽃이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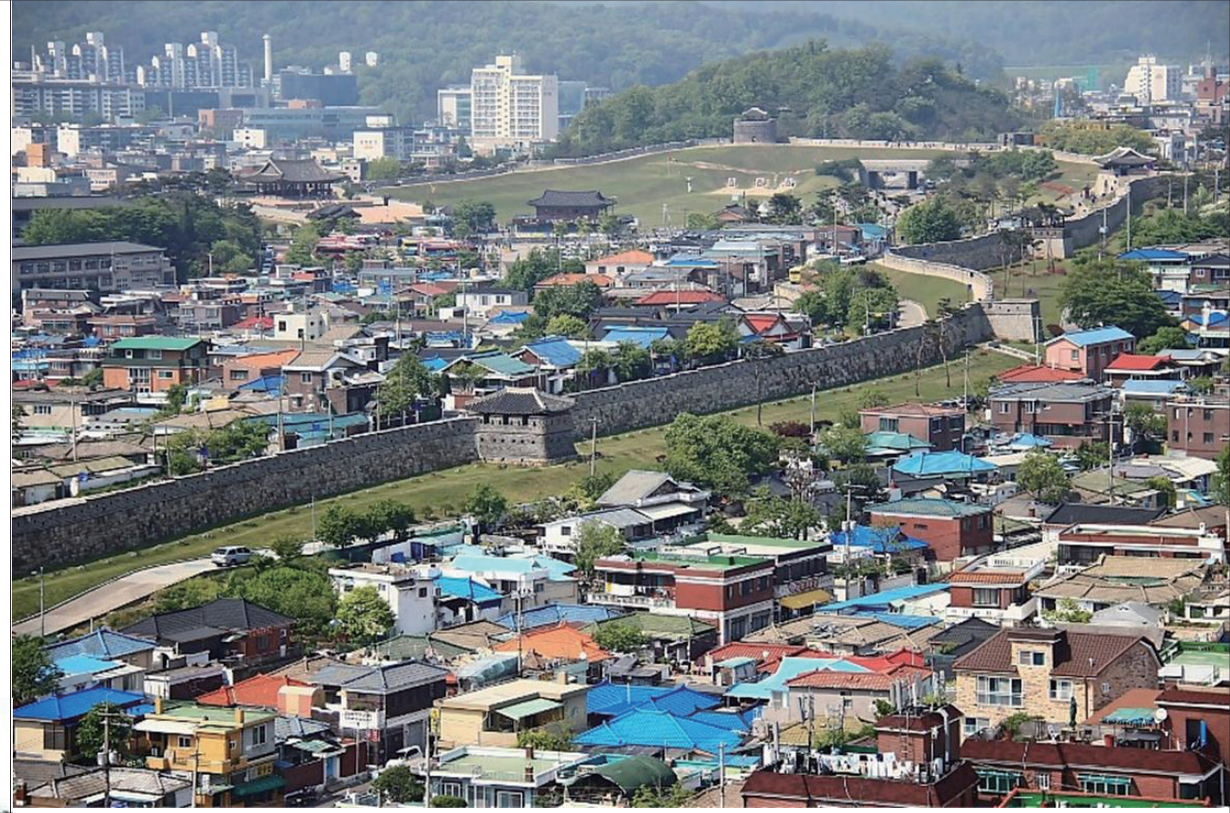
동암문을 지나 연무대로 이어지는 성곽길

동장대 지나 동북공심돈 지나면 창룡문으로 이어집니다. 성 밖에서 본 창룡문도 둥글게 옹성을 덧대고 있습니다. 창용위중부 관할 경비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수원화성을 거닐면서 깃발의 색깔을 보셨나요? 깃발에도 글자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깃발의 색상만으로도 어느 부대 관할구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무대로 이어지는 성곽길





수원제일교회 노을빛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원화성

봉수대인 봉돈을 지나면 팔달문에 이르지요. 봉수대 역시 연락과 상황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사시설입니다. 봉수대 연기가 하나이냐 두 개이냐 정도에 따라 위급 정도를 알렸으니까요.

수원제일교회 노을빛 전망대에 오르면 수원화성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조망이 뛰어나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므로 꼭 한 번 올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창룡문에서 팔달문 사이 동일포루, 동일치, 동삼치 등의 군사시설을 지나면 수원화성 남수문이다. 남수문과 팔달문 사이는 4개의 시장이 몰려 있는 말 그대로 시장통이다.

왁자지껄 시장통을 지나면 팔달문에 이르게 됩니다. 화성의 4대문 중에 남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남문이죠. 정조대왕을 비롯 현륭원을 가려면 이 팔달문을 꼭 지나게 되지요. 사통팔달, 사방으로 통한다는 팔달문입니다.

팔달문



팔달문을 지나 산길로 오르게 되는 수원화성 코스

화성행궁에서 곧장 서장대로 올라 시작했더라면 나머지 구간이 편했을까요? 팔달문에서 길게 뻗은 서남각루(화양루), 서남치를 지나면 서노대가 있는 서장대에 오르게 됩니다. 정조대왕이 친히 썼다는 화성장대 편액이 걸려 있는 수원화성에서 가장 높은 서장대는 장용외영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소였습니다. 군사들의 기합소리 들리는 듯합니다.

서장대





화성행궁

서장대에서는 화성행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은 왕이 궁을 떠나 지방에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곳을 말합니다. 요양이 필요할 때, 나라가 위급할 때 등에 이용되기도 했지만 화성행궁은 헌륭원 능원 참배길에 머물던 곳입니다. 화성행궁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기에 성곽 둘레길 편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화성행궁 역시 꼭 가 봐야 할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입니다.

서장대에서 화서문으로 회귀하면 수원화성 성곽 둘레길 한 바퀴 끝~.

화성행궁에서 시작하여 수원화성의 제일 높은 서장대로 올라 마지막에 수원화성 행궁을 둘러보는 것도 체력적으로 좋습니다. 팔달문에서 서장대로 올라 한 바퀴 돌아 지동시장 쪽으로 내려와 시장 구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원화성을 찾아가는 길은 잘 발달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지만 화성행궁 주차장을 비롯 연무대와 창룡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화성 성곽길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순환되는 한 바퀴이지만 편안한 여행길이 되기 위해서 운동화가 필수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걸어도 좋은 수원화성, 정조의 효심과 역사도 배우고 건강도 챙기는 수원화성 성곽길입니다. 서장대에서 연무대까지 운행하는 수원 화성열차를 이용하면 편하게 수원화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 획 최지연
진 행 이문행, 김지나, 임제린, 유현희
편 집 홍현영
디자인 아이콘커뮤니케이션

시민들이 만든 수원 스토리북

삶과 추억 그리고 여행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수원학연구센터)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26
T. 031-220-8058 **H.** www.suwon.re.kr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ISBN 979-11-90343-40-4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2019 수원시정연구원

